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최찬식 문학 연구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金紅蓮



# 최찬식 문학 연구

지도교수 김 종 욱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김 홍 련

김홍련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월

위원장	양 승 국	
부위원장	손 유 경	
위원	김 종 욱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던 신소설 작가 최찬식의 문학세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최찬식은 1912년에 『추월색』으로 독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이어 『금강문』·『안의 성』·『능라도』·『춘몽』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는 1927년까지 꾸준히 창작활동을 하였으며 『신문계』와 『반도시론』에서 기자로 활약하였다. 최찬식이 살아있던 시대는 근대와 전근대가 충돌하고 외래의 것이 섞여 나타나는 시대적 격변기였다. 그렇기에 최찬식은 신소설의 흥망과 문단의 변천, 교체과정을 몸소 경험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최찬식 연구의 주된 흐름은 친일성과 통속성의 이분법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 최찬식은 친일단체 일진회의 총무였던 아버지가 있다는 개인사적인 측면과 결부되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온 바 있다. 또한 작품의 통속성은 고전소설로의 퇴행이라는 저평가를 받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나아가, 최찬식의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총체적인 측면에서 문학세계를 살핀 연구가 부족하다. 하지만 최찬식은 엄연히 이인직, 이해조 뒤를 이어 신소설 개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작가이다. 이러한 연구적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최찬식의 문학세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최찬식 연구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최찬식의 생애와 문필활동을 밝힌다. 최찬식의 행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져 있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간 연구자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인용되었다. 이에 최찬식의 생애를 복원하여 그의 교육과정을 진일보 분석 설명하고, 아버지 최영년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간 방치해두었던 작품과 새로 발견된 작품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작품연보를 만들고자 한다.

3장은 1910년대에 발표한 소설과 『신문계』, 『반도시론』에 기자로 있으면서 발표한 기행문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최찬식 초기의 문학 특징을 살펴본다. 최찬식은 처녀작 『추월색』에서 남다른 공간적 감각을 선보였으며 이후 기자로 재직하던 중 많은 명승고적을 여행하면서 기행문을 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명승지나 금수강산의 여행지가 소설의 무대로 적극적으로 재현되었다. 예컨대 『금강문』, 『능라도』가 있으며 지명으로 소설 제목을 명명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특정 공간을 통해 최찬식은 자신의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찬식은 형제자매의 의리를 강조하며, 특히 혼인관계 속에서는 부부간의 신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4장은 1920년대에 발표된 소설과 위인전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1920년대의 소설에서 최찬식은 해외 공간-만주를 주요한 무대로 설정하였으며 만주의 ‘명물’-마적을 긍정적으로 부각했다. 반대로 최찬식이 부단히 해외공간을 모색하였다는 것은 당시 조선에서 안주할 수 없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최찬식은 현실에 주안점을 두고 실존 인물, 전기물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여러 편의 전기물을 출판한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최찬식 문학세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최찬식에 대한 적극적인 재평가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최찬식의 문학세계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최찬식, 기자활동, 기행문, 만주, 마적, 인물 전기

학 번 : 2016-25237

# 목 차

국문초록 .....	i
1. 서 론 .....	1
1.1. 문제 제기 .....	1
1.2. 연구사 및 연구시각 .....	2
2. 최찬식의 생애와 문필활동 .....	10
2.1. 최찬식과 최영년의 거리 .....	10
2.2. 신문 기자체험과 소설가로서의 활동 .....	15
3. 191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 .....	23
3.1. 기행문 쓰기와 소설 쓰기의 관련성 .....	23
3.2. 전통적 의리와 개인적 자유의 모순과 타협 .....	34
4. 1920년대 비허구적 글쓰기의 전환 .....	45
4.1. 만주 공간에 대한 관심과 마적의 형성화 .....	45
4.2. 실존 인물을 다루는 새로운 글쓰기 .....	56
5. 결론 .....	67

참고문헌 .....	69
부록1 .....	75
부록2 .....	82
Abstract .....	88

# 1. 서론

## 1.1. 문제 제기

최찬식(崔瓚植, 1881~1951)은 이인직, 이해조의 뒤를 이어 1910년대 이후 활약한 신소설 작가이다. 1912년 『추월색(秋月色)』으로 등단하여 1927년까지 꾸준히 창작 활동을 진행한 최찬식은 신소설의 흥망을 같이 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최찬식의 문학세계를 분석함에 있어 『추월색』(1912), 『해안(海岸)』(1914), 『금강문(金剛門)』(1914), 『안(雁)의 성(聲)』(1914), 『능라도(綾羅島)』(1919) 등에 집중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추월색』에 관한 논의가 압도적이다. 특히 1920년대 작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한정된 작품의 범위 내에서 최찬식의 문학세계를 통속적이거나 친일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분법적인 평가들을 야기해왔다. 최찬식은 1927년까지 창작 활동을 지속했으며 근 20편의 소설을 썼고 『신문계(新文界)』, 『반도시론(半島時論)』의 기자로서 다수의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하동호와 정숙희에 의해 최찬식의 작품 연구가 체계화되기 시작했지만, 많은 작품은 작품명만 남기고 원본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강명화전(康明花傳)』(1925), 『이순신실기(李舜臣實記)』(1925), 『동서위인소년시대(東西偉人少年時代)』(1927), 「홍차기 애화: 출천지효(洪次奇哀話: 出天之孝)」(1939) 등의 작품이 새롭게 발굴되었지만 연구자들의 냉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을 아우르는 체계화된 작품연보를 만드는 것은 최찬식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에 있어 시급한 작업이다.

최찬식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대체로 이분법적인 시각의 한계들을 가진다. 이에 우선적으로 최찬식을 친일작가로 평가하는 데 대해 이의(疑意)를 제기한다. 그 이유로 최찬식의 생애에서 직접적인 친일행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과 단지 그가 친일파 최영년의 아들이기에 그도 친일파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부당(不當)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최찬식의 작품에서 일본 또는 일본인을 찬양하거나 우호적으로 표현했다는 점, 그리고 의병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근거로 그의 문학세계를 친일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선부른 판단일 수 있다. 당시 신소설 작가 이해조의 작품에서도 일본인 구원자<sup>1)</sup>가 자주 등장하고 의병

을 불한당<sup>2)</sup>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이해조는 애국계몽작가로 정의된다. 최찬식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당시 신소설에서 의병은 대부분 민중의 재산과 생명을 침해하는 폭도, 범법자로 묘사되었다.<sup>3)</sup> 따라서 최찬식에게만 친일성을 문제 삼아왔던 기존의 관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최찬식의 소설을 흥미성에 치우친 통속소설로만 평가절하 해왔던 연구의 시각들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최찬식은 최대 발매를 이룩한 작가이며, 당대 독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작가이다. 그러나 당시 최찬식 소설이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이유에는 단순히 통속성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조선 내부를 넘어서 그 바깥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왔던 지식인이자 작가로서, 통속성 이면에 놓인 다채로운 작가의식들을 살피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1.2. 연구사 및 연구시각

김태준은 최찬식을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거론하며 이인직 뒤를 잇는 신소설 작가로 이해조, 최찬식, 김교제를 꼽고, 최찬식 소설 중 『춘몽』을 분석하였다.<sup>4)</sup> 그는 최찬식이 『춘몽』의 주인공 옥선과 『능라도』의 주인공 도영과 같이 의리를 알고 열정이 있는 주인공을 힘 있게 그렸다고 분석한다. 더불어, 『능라도』의 변화 많은 장면은 탐정소설에서 보는 긴장미를 준다고 거론하였다. 한편, 임화는 최찬식을 흥미 본위로 통속화하여 신소설 도(道)를 개척한 사람으로 보며, 이인직과 이해조와 달리 대중작가라고 평가하였다.<sup>5)</sup> 최찬식에 관한 연구는 1960년 전광용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광용<sup>6)</sup>은 “신소설 작가 3인 중, 1916년에 이인직이, 1930년에

---

1) 예컨대, 이해조의 『소학령』에서 일본인을 구원자로 설정하였으며, 『구의산』에서 파선하여 무인도에 도착한 오복이를 구해준 사람은 이학박사 등정수태랑이다.

2) 이해조의 『화의 혈』에서 의병을 불한당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3) 홍순애, 「법률이야기의 정치성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 최찬식 신소설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28, 시학과언어학회, 2014, 150면.

4)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30면.

5) 임화는 이인직은 순수한 현대작가요, 이해조는 전통적 작가요, 최찬식은 대중작가라 부를 수가 있다고 한다. 임규찬, 한진일 편, 『임화신문학사』, 한길사, 1993, 157면.

6) 전광용, 「新小說研究」,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박사학위 논문, 1973.

이해조가 각각 죽어 자기네가 씨 뿌린 현대문학의 발전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최찬식만은 1951년까지 71세 고령으로 살아서 한국 현대문학을 보고 자기의 문학과 비교해 보면서 슬퍼하며 세상을 떠났다.”<sup>7)</sup>라고 하였고 그의 생애를 최초로 밝히며 『추월색』, 『안의 성』 등 작품을 분석하였다. 『추월색』에서는 신결혼관을 주장하고 신교육관의 필요성을 고취(鼓吹)하여 독자를 이끌어 가는 박력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으며, 『안의 성』은 기성 윤리관에서 해탈하여 자기의 의사로 사랑을 요구하고 그것이 애절한 삼각연애의 대립 속에서 그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과 그리고 사랑을 값있게 쟁취하여 현대적 사랑의 새로운 모랄을 설정한 최초의 작품이기에 다른 어느 계몽적인 작품보다 문학적인 의의가 있다고 밝힌다.

한편, 최원식(崔瑗植)은 최찬식의 아우이자 『아동최씨고(我東崔氏考)』<sup>8)</sup>를 출판함으로써 최찬식과 그의 아버지 최영년의 생애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후 하동호<sup>9)</sup>는 최찬식 작품의 체계적인 서지사향과 작품연보를 만들었다. 정숙희<sup>10)</sup>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최찬식의 장남인 최영택을 직접 찾아가 그의 증언에 따라 최찬식의 생애와 작품연보를 만들고, 처음으로 최찬식의 사진과 족보를 밝혔다.<sup>11)</sup> 이런 연구자들을 통해 최찬식의 생애와 작품연보가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최찬식에 관한 논의는 주로 작품구조의 통속성<sup>12)</sup>, 의식의 친일성<sup>13)</sup>, 통속성과 친일성을 아우르는 이중성<sup>14)</sup>, 소설의 대중성<sup>15)</sup>, 연애<sup>16)</sup>와 여성성<sup>17)</sup>, 일본소설과의

---

7) 전광용, 「신소설과 최찬식」, 『국어국문학』 22, 국어국문학, 1960, 36면.  
 8) 최원식, 『我東崔氏考』, 新明文化社, 1968.  
 9) 하동호, 「개화기 소설 연구: 서지 중심으로 본 개화기 소설」, 단국대학교 국어국문 석사학위 논문, 1972.  
 \_\_\_\_\_, 「최찬식의 작품과 개화사상」,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10) 정숙희, 「新小說 作家 崔瑗植 研究」, 경희대학교 국어국문 석사학위 논문, 1974.  
 11) 위의 글, 1974, 36면.  
 12) 김용구, 「최찬식 소설의 구조」, 『冠嶽語文研究』 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문흥구, 「최찬식의 『추월색』 연구」, 『돈암어문학』 9, 돈암어문학회, 1997.  
 13) 이승원, 「최찬식의 『추월색』 고」, 『국어교육』 3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1.  
 최원식, 서영채(토론자), 「1910년대 친일문학의 근대성」, 『아시아문화』 1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_\_\_\_\_, 「1910년대 친일문학과 근대성」, 『민족문화사연구』 14, 민족문화사학회, 1999.  
 한기형, 「1910년대 최찬식의 행적과 친일논리 —신자료 <궤상의 몽> 소개와 관련하여」, 『현대소설연구』 1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우미영, 「‘조선(朝鮮) 일주(一週)’의 정치성과 식민 정보원의 글쓰기 —『반도시론』의 조선 시찰 일기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14) 김현숙, 「20세기 초 한국서사문학의 두 가지 양식」, 『상허학보』 8, 상허학회, 2002.

영향관계<sup>18)</sup>, 가부장적 이데올로기<sup>19)</sup>, 소설 속의 법률성<sup>20)</sup>, 이국적 취향<sup>21)</sup> 및 개별적 작품 연구<sup>22)</sup>등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최찬식을 단독 연구대상으로 한 학위 논문은 4편<sup>23)</sup>에 불과하며 1990년대부터는 학위 논문이 전무한 상태로 아직

- 
- 곽상인, 「최찬식 작품에 나타난 근대적 장치와 그 한계 —『추월색』과 『안의 성』을 중심으로」, 『전농어문연구』 15, 서울시立大學校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004.
- 15) 남석순, 「신소설의 대중화와 통속적 요인 연구」, 『한국문예창작』 2, 한국문예창작학회, 2003.  
고은지, 「『추월색』의 대중적 인기와 서사구조」, 『민족문학사연구』 30, 민족문학사학회, 2006.  
임선애, 「『추월색』과 한국적 근대의 이질성」, 『현대소설연구』 3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 16) 최혜실, 「개화기 근대정신과 자유연애 결혼 —『혈의 누』와 『추월색』을 중심으로」, 『현대이론연구』 10,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이경림, 「『연애의 시대』 이전: 1910년대 신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표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1, 한국현대문학학회, 2017.
- 17) 최창수, 「신소설 여성의 근대화와 자기정체성 —『혈의 누』, 『자유종』, 『추월색』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28, 중앙어문학회, 2000.  
이상신, 「이인직, 최찬식 소설속의 여성인물 연구」, 『社會科學研究』 11, 長安專門大學 社會科學研究所, 2002.  
소영현, 「정열의 근대적 재배치 —최찬식의 『능라도』와 이광수의 『개척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최기숙, 「출구 없는 여성, 여성적 시간의 식민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서연주, 「신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광기」, 『여성문학연구』 3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이선경, 「이인직 신소설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여성 수난 서사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57, 한국비평문학학회, 2015.
- 18) 김순전, 「말광철장(末廣鐵腸)와 최찬식(崔瓚植)의 비교연구」, 『日語日文學研究』 15, 한국 일어일문학회, 1989.  
이정은, 「최찬식의 (해안) 연구 —(안의 성) 및 신파극 (사민동권교사회)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18, 한민족어문학회, 1990.  
김순전, 「崔瓚植의 『雪中梅』의 受容樣態比較研究」, 『용봉인문논총』 22, 全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93.
- 19) 金熙子, 「崔瓚植 小說에서의 家父長的 이데올로기」, 『論文集』 29, 건국대학교, 1989.
- 20) 최진옥, 「신소설에 나타난 가족 살해 모티프와 가족주의 고찰」, 『한국현대문학』 2, 한국현대문학학회, 2013.  
\_\_\_\_\_, 「신소설에 나타난 법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박사학위 논문, 2015.
- 21) 곽승미, 「근대 계몽기 서사의 이국취향을 통해 본 문화의 재배치 과정」,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22) 정준식, 「『삼강문』의 구성방식과 작가의식」, 『韓國文學論叢』 41, 한국문학학회, 2005.  
조경덕, 「최찬식 『능라도』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46, 국제어문학회, 2009.

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최찬식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띠는 것이 문제적이다. 한편으로는 초기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통속성’ 문제가 그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명구를 필두로 한 논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친일성’ 문제이다. 김용구는 최찬식 소설의 구조를 분석하며 고전소설의 경향을 띠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영현은 구체적인 작품론을 통해 최찬식의 작품이 공적 차원에서의 계몽주의와 사적 차원에서의 부르주아적 생활세계로 분열되어 있으며 그 균열을 봉합하는 것이 바로 통속적 서사 구조라고 분석한다.

윤명구는 최찬식이 친일적인 집안에서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양선<sup>24)</sup>은 최찬식 소설에서 의병을 ‘악’의 상징으로, 경찰, 헌병대, 재판소를 ‘선’으로 취급하며 이를 식민지 통치질서에 순응하는 친일적인 경향이라고 논의하였다. 최찬식의 친일성 문제는 유양선의 언급으로부터 시작하여 최원식(崔元植)<sup>25)</sup>을 거쳐 ‘친일 작가’라는 일반적인 평가로 굳어지게 된다. 최원식은 「1920년대 신소설의 운명 —『백련화』 소고」에서 최찬식의 작품인 『백련화』를 처음으로 밝히는 것을 계기로 그의 친일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는 최찬식의 아버지 최영년이 친일파이므로 최찬식도 그런 부친의 영향을 받아 문단에서 활동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최찬식이 일본인이 주관하고 있었던 『신문계』, 『반도시론』에서 기자활동을 한 것을 내세운다. 「1910년대 친일문학과 근대성 —최찬식의 경우」에서는 『추월색』, 『해안』, 『금강문』, 『안의 성』 등 4작품을 분석하면서 최찬식의 문학세계는 친일적 구도 안에서의 근대성이라고 비판하였다. 그 후 최승희는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최원식의 논의를 따랐으며, 한기형은 『신문계』와 『반도시론』을 연구하면서 최찬식에 관심을 가졌으며 새롭게 발굴한 최찬식의 단편 소설 「기상의 몽(機上의 夢)」에도 친일적 경향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최찬식은 무단통치기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의식개조작업의 선봉에 섰던 인물로 평가된다.

23) 정숙희, 「新小説 作家 崔瓚植 研究」, 경희대학교 국어국문 석사학위 논문, 1974.

이영순, 「최찬식 신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 석사학위 논문, 1977.

서영순, 「최찬식 소설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 석사학위 논문, 1981.

신승희, 「최찬식 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국어국문 석사학위 논문, 1986.

24) 유양선, 「최찬식 소설의 사회적 성격」, 『한국 근현대 문학과 시대정신』, 박이정 출판사, 1996, 78-91면.

25) 글에서 동명이인이 등장하기에 최찬식의 동생 최원식(崔瓚植)은 한자로 표기하고 평론가 최원식(崔元植)은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최찬식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경향이 보인다. 최찬식 소설의 흥미성이나 통속성을 비판적인 것으로 치부하던 시각으로부터, 그의 작품이 이렇듯 대중들의 호감을 살 수 있었던 원인을 찾는 관점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남석순은 1910년대 신소설이 통속화되는 과정에서 『추월색』이 흥행하게 되는 사회적 요건을 해석하였고, 고은지는 『추월색』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당대 독자들에게 익숙한 애정소설의 서사적 유형을 바탕에 두고 춘향을 빼닮은 여주인공을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논의한다. 임선애는 『추월색』에서 보여준 근대와 전근대의 합성기술은 서구의 근대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시대에 대한 경종이며 한국적 근대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하였다.

최찬식은 1910년대에 창작한 일련의 작품들에서 여학생을 적극적으로 등장시켜 새로운 여성 주인공을 형상화하고자 하였고 여성의 수난사를 다루고 있다. 최기숙은 최찬식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여학생에 주목하였다. 논의에 따르면, 여학생은 사회적 공간이 혼인을 통해 재편되는 가정 안으로 포섭되는 과정이며, 여성인물은 자기 인식의 정당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신경병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서연주는 여성의 신경병, 즉 광기는 억압적인 권력체제로부터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인 행동이며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여정의 기폭제로 발휘한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여성의 수난사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하며 그 과정에서 범죄서사로 이어진다. 연구자들은 최찬식 작품에 나타나는 범죄서사, 법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경림은 최찬식 신소설에서 법률 그 자체는 인물들의 의도에 의해 공정하게 사용되거나 또는 악용될 수 있는 중립적 수단으로 나타난다고 제기하고, 근대제도로서의 학교, 또는 국가의 개입을 요청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을 이용하여 친일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논의한다. 홍순애는 최찬식 신소설의 법률 이야기의 양상과 식민지 법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최찬식이 조선과는 차별화되는 제국의 법에 의한 가족의 재탄생을 통하여 그의 친일 개화론의 일면을 보이고자 했음을 살핀다.

최진옥은 친일적·통속적인 평가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가족 서사의 시각에서 최찬식의 문학세계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최찬식이 일부일처와 정절이라는 윤리 의식을 결합하고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이때의 ‘정절(의리)’은 전통적 유교 윤리의 반복이 아니라 최찬식만의 자유 혼인을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 연구

는 최찬식 소설에서의 정절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였지만, 그것이 전통적 유교 윤리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으로 끝맺었으며 최찬식 몇몇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문학세계 전반을 관통하지 못했다.

이렇듯 최찬식에 관한 논의는 양적으로 부족하지만 더 문제적인 것은 최찬식을 통속적, 친일적 작가라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1910년대는 일제의 통치 속에서 신구와 외래의 것이 섞여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문학에서도 번역·번안소설, 신파소설, 고전소설의 역행 등으로 신소설을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에서 최찬식은 등단하였고, 1912년에 『추월색』으로 크게 성공하였지만 그 후로는 신소설이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그 후에도 최찬식은 꾸준히 창작활동을 하였기에 그는 신소설의 흥망과 같이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찬식은 소설을 쓰는 동시에 『신문계』와 『반도시론』에 5년간 기자로 있었으며 1918년 11월을 끝으로 기자생활을 그만두었다. 1920년대 이후로는 소설 창작에만 전념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최찬식의 1910년대 글쓰기와 1920년대 글쓰기는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논문은 최찬식의 작품을 1910년대와 1920년대로 나누어 그의 문학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1910년을 전기, 1920년대를 후기로 지칭하겠다.

이 글에서는 최찬식이라는 신소설 작가의 생애와 문필활동을 실증적으로 보고자한다. 최찬식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활약한 신소설 작가이다. 이때 문제적인 것은 최찬식에 대한 행적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이 선행연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실증적인 방법으로 근거를 찾아 최찬식을 재해석하여야 한다.

최찬식은 신소설 작가 이인직, 이해조와는 세대가 다르지만 창작 활동의 시기는 신소설의 전성기와 쇠퇴기를 모두 경험한 작가이다. 그러므로 최찬식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은 문학사에서도 중요하다.

1876년 개항을 계기로 조선은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빈번해지게 되었다. 또한, 1900년 철도가 건설되면서 항구와 도시를 빠른 속도로 연결해주었다.<sup>26)</sup> 이에 따라 공간이 확장되면서 사람들은 유학, 순례, 무역, 여행, 관광 등을 통해서 개인들이 새로운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의 변화, 공간 인식의 변화는 당대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신소설이 주로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을

26) 최성민, 「공간의 인식과 식민 담론 —이인직 신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 한국근대문학회, 2005, 185-186면.

다루었다면 개항, 철도 건설에 따라 점차 다양한 공간 혹은 장소를 다루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문학 연구는 이인직을 연구의 중심에 놓으면서 주로 유학을 통한 지식인의 새로운 공간경험을 다루어왔지만, 최찬식의 경우에는 유학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관광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소설 속에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찬식 소설의 배경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일본, 중국, 영국, 남양군도)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소설에서 공간이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유학, 여행, 관광, 자본축적, 도피, 피난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인식은 최찬식이 기자로 활동하던 중 직접 여행을 한 경험을 통해 소설 창작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최찬식의 소설에서 아름다운 자연풍경, 명승지를 소설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설의 구성적 특징과 함께 작가의 이념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소설 속에 나타나는 인물 간의 관계와 도덕관념, 가치관이 소설의 배경을 통해 추출되며, 이를 통해 최찬식에게 의리라는 전통적 관념이 중요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

의리는 ‘의(義)’와 ‘리(理)’의 합성어이다.<sup>27)</sup> 유교에는 일찍이 ‘의’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예를 들면 오륜(五倫: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과 오상(五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하나로서 사람이 당연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한다. 의리란 윤리도덕의 행위준칙으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일, 또는 남남끼리 만나서 가

---

27) ‘의(義)’는 양(羊)과 아(我)가 조합하여 이루어진 한자이다. 옛 뜻에 따르면 양은 미와 선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럴 경우에 의는 나 자신의 미와 선이며 나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며 그 의미가 차츰 추상화되어 어떤 행동을 착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옳음’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미조구치 유조; 마루야마 마쓰유키; 이케다 도모히사 엮음, 김석근, 김용천; 박규태 옮김, 『中國思想文化事典』, 책과함께, 2011, 207면.

‘리(理)’는 치옥(治玉)을 뜻하는 글자였다. 옥을 제대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옥의 결(脈理)에 따라야 하느라,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이 본래 지니고 있는 ‘결’을 또한 ‘리(理)’라고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理)은 또한 ‘규범적 표준’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하여 리(理)는 ‘다스림’과 다스리는 사람이 따라야 하는 ‘규범적 표준’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게 된 것이다.

이상익, 「한국의 의리사상에 대한 접근법」, 『한국 철학논집』 33, 한국철학사연구회, 2012, 39면.

족관계를 이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이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를 의미한다.<sup>28)</sup> 최찬식은 인간관계의 의리, 예컨대 형제자매의 의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혼인관계 속에서는 부부간의 신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최찬식은 당시 사회현실을 예민하게 자각하고 자신의 문학에 체현하려고 노력한 지식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910년대는 신구교체의 전환기이므로 전통적인 관념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찬식을 보다 섬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계와 새로운 관계의 과도기적 상황을 함께 염두에 두고 고찰해야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최찬식의 생애와 아버지 최영년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또한 통계적 방법으로 최찬식의 최근까지 새롭게 발굴된 전반 작품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작품연보를 만들어 최찬식이 문필활동을 기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은 최찬식의 전기에 발표한 소설과 『신문계』와 『반도시론』에 기자로 있으면서 발표한 기사들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최찬식 초기의 문학 특징을 밝힐 것이다. 4장은 후기에 발표된 소설과 위인전을 분석하여 최찬식의 문학적 특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

28) 손흥철, 「의리론」, 『선비문화』 27, 남명학연구원, 2015, 15면.

## 2. 최찬식의 생애와 문필활동

### 2.1. 최찬식과 최영년의 거리

최찬식의 생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광용, 崔瑗植, 정숙희의 연구를 통해 구체화되었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술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객관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최찬식에 관한 전기적 기술은 별다른 비판 없이 선행연구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조하되 현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최찬식의 생애를 복원해 보고자 한다.

최찬식은 호를 해동초인 또는 동초라고 하며, 고종 18년(1881년) 음 8월 16일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온천리에서 태어났으나, 본적은 서울로 되어 있다. 그는 어린 시절 광주 사숙에서 한학을 공부하여 칠서까지 떼였고, 갑오경장 후 아버지 매하산인 최영년(후에 개화기 언론계의 중진이 되었음) 광주에 시흥학교를 설립하자 그곳에서 역사, 지리, 산수, 초등어학(영어) 등 신문학을 공부하였으며, 후에 서울로 올라와 구한말 말엽의 한성중학교(지금의 경기중학교의 전신)에 수학하였다. 동초는 한때 언론기관에도 관계하였으며, 말년에는 독섬에 있는 농장에 은퇴하여 문족으로 한말에 흑산도에 유배되었던 면암 최익현의 실기를 집필 중 6·25 전란으로 말미암아 1·4후퇴 때 노쇠, 병이 든 몸으로 한강 건너까지 피난했으나, 병세가 위독하여졌으므로, 다시 독섬으로 귀환하여 1951년 1월 10일 향년 71세로 영세하였다.<sup>29)</sup>

위의 인용문은 전광용이 처음으로 밝힌 최찬식의 생애이다. 최찬식의 동생 崔瑗植은 『아동최씨고』을 통해 “최찬식은 어릴 때 한학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배웠고 처음으로 생긴 한성학교를 졸업한 후 국문을 연구하는 한편 소설 쓰기에 종사하였다.”<sup>30)</sup>라고 한다. 하지만 윤명구는 최찬식의 교육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최찬식이 시흥학교에 다니다 한성중학교에 다녔다는 것이 기록 문서상으로 확인할 바가 없다고 하였으며 최승희도 최찬식이 시흥학교 재적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1900

29) 전광용, 앞의 글, 1973, 137면, 밑줄은 인용자.

30) 崔瑗植, 『我東崔氏考』, 新明文化社, 1968, 223면.

년~1907년 사이 한성중학교의 졸업자명단 및 재적 부에서 최찬식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최원식은 『대한제국 관원이력서(大韓帝國官員履歷書)』에서 구품경지부기수(九品慶支部技手) 최연식(崔璉植 1886년 5월23일 생)이라는 최찬식 동생의 생애를 확인하였다. 최연식의 이력서에 “1898년(광무2년 2월10일) 사립시흥학교에 입학 하여 1900년(광무4년 3월 20일) 졸업하였다.”<sup>31)</sup>라고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최찬식도 동생 최연식과 마찬가지로 사립시흥학교에 다녔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중학교는 1894년 과거제도의 폐지, 구식 교육기관의 폐쇄 등 시대적 조류 속에서 1900년에 세워진 당시 조선의 최초의 고등학교이다.<sup>32)</sup> 최찬식은 1908년부터는 잡지 『자선부인회』 편집자 직을 맡았으므로 1900~1907년 사이에 경기중학교에 다녔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경기중학교의 졸업자명단에서는 최찬식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경기중학교에서 중도퇴학 현상이 현저하게 많았다<sup>33)</sup>는 점을 고려하면 최찬식 또한 중퇴 이력을 가졌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최찬식은 사립시흥학교에 다니다가 경기중학교로 진학한 후에 퇴학 하였을 수 있다.

최찬식의 생애를 언급하면서 그의 아버지 최영년을 빼놓을 수 없다. 최영년의 호는 매하산인(梅下山人)이며 구한말의 풍운아(風雲兒)로서 정치계, 언론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최영년은 공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사람이므로 기록이 많이 남았지만 최찬식은 신소설 작가 중에 가장 오래 생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기록 문헌이 적다. 따라서 최찬식의 생애를 밝히려면 그의 아버지 최영년의 생애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영년은 5남1녀(崔瓚植, 崔璉植, 崔玼植, 崔瑗植, 崔瑛植, 崔璿子)를 두었는데 그중 최찬식은 장남이다. 崔瑗植의 『아동최씨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영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경주인, 호 매하산인, 1856년 2월 2일생, 일찍 심중산문에 구학하여 사서삼경과 제자백가를 무불통섭하고 11세인 고종 등기시 유년과에 장원하여 대원군으로부터 격상을 받았으며 『황성신문』이 창간되자 주필로써 시폐를 극론하고 신사조를 환기하다가 노일전쟁시는 『대한일보』 주필로 신문학에 노력하였으며 다음해에는 초시후릉참봉 6품에 승하고 고종황제어사로 정산에 부하여 노신 최익현에게 조명을 선하고 아울러 시국구국의 어명을 전하였으나 일정의 박해로 최익현은 원

31) 국사편찬위원회, 『大韓帝國官員履歷書』, 1972, 340면.

32) 경기구십년사편찬위원회, 『京畿九十年史: 1900~1990』, 京畿高等學校同窓會, 1990, 49-78면.

33) 위의 책, 1990, 64-65면.

도에 감금케 되자 다시 직을 교육에 전하여 한어학교의 학문교관으로 있으며, 『대한매일신보』의 객원으로 논설, 시, 수필 등 풍자격언으로 시인을 경세하였고 국민신보사장에 직하여는 이미 일제침략이 날이 갈수록 심한 때라 국가종사를 부호하고 인민 안전을 구제하기에 진취하였으되, 그의 기만술책에는 필야(畢也) 분한만 더 할 뿐이었으므로 다시 결발고관(結髮高冠)으로 환고하여 시주로 세려(世慮)을 잊으며 『조선문예』, 대동시단 등 시문잡지로 시풍을 조장하며 후학을 계도하기에 전념하며 정모정, 신해당 등 당시 명가 수(數) 10인과 상선(相善)하여 축(逐)일 음영(吟詠)으로 소견하는 중 혹은 금강, 혹은 달성, 동래로 경승을 탐하여 유역하며 각지의 명사와도 교결장주하였고 또는 유래의 우리 정악을 이끌었다. 1935년 8월1일에 돌아갔으며 향년 81세, 한시는 만당체를 전상하여 명성을 높이고 국내에 수천시제자를 양성하였고 원히 중국과 일본에서도 많은 시인의 평정을 구하는 자였다. 유고 『매하음』 3권, 『시금강』, 『해동지죽가』 또 미간행 『금경』 1권이 있다.<sup>34)</sup>

제시된 인용문에서는 최영년의 친일적 행적을 숨기고 문학적 재능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들 崔瑗植이 쓴 전기적 서술에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친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물론 최영년은 어려서부터 시문에 능통하여 대원군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하였다. 갑오경장(1894) 후 독립협회에도 참가하였다가 1901년에는 『황성신문』의 주필로 활동하였으며 1904년 7월 후릉참봉 8품을 받았다.<sup>35)</sup> 이후 최영년은 1905년 6월에는 『대한일보』의 기자로<sup>36)</sup>, 1906년 4월은 외국어학교 교관<sup>37)</sup>, 9월에는 한성 한어(漢語)학교 교관을 역임하였다.<sup>38)</sup>

이러한 활동부터 알 수 있듯이 최영년은 당시 언론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신소설 작가 이인직의 『귀의성』(1907) 서문을 써주었으며 이인직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귀의성』에 대해 고평했다. 그는 ‘고금으로 동양에는 여러 유형의 소설이 많고도 많지만 그것은 모두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침내

34) 崔瑗植, 앞의 책, 1968, 219면, 밑줄은 인용자.

35) 「叙任及辭令」, 『황성신문』, 1904.7.30.

이는 최영년 본인이 자신을 최익현(崔益鉉)의 7촌 조카라고 소개하여 얻은 것으로, 당시 조정에서는 최영년에게 관직을 내림으로써 최익현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6) 「開進會晚龔」, 『황성신문』, 1905.6.28.

37) 「叙任及辭令」, 『황성신문』, 1906.4.28.

38) 「敍任及辭令」, 『대한매일신보』, 1906.9.6.

‘재자인(才子人) 이인직은 『귀의성』이라는 재자서(才子書)’써냈으며, 『귀의성』은 각종 패관소설보다 월등하고 정밀하며 세상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보감(寶箴)이라고 평가했다. 서문 말미에 그가 쓴 “세역양지모춘월초생(歲赤羊之暮春月初生) 서우행화소루춘우중(書于杏花小樓春雨中)”<sup>39)</sup>이라는 대구적인 한시인데 그 뜻인 즉 어느 봄날의 늦은 밤에 누각에서 이러한 서문을 쓰게 되었고 창밖은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영년이 이인직 소설의 서문을 썼다는 것은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가 이인직만큼의 문학적 수양을 가지고 있으며 문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후 최영년은 1907년 9월 18일 일진회 총무원으로 선임되었다.<sup>40)</sup> 그가 독립협회에 참가하였다가 일진회에 들어간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1908년 9월에는 일진회 회장 이용구를 따라 일본에 갔다가<sup>41)</sup> 1909년 1월에 귀국하였다.<sup>42)</sup> 같은 해 2월 일진회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이 원류(願留) 할 사항을 협상하기 위해 일진회 총무 최영년이 다시 일본에 갔으며<sup>43)</sup> 일본에서 일진회 회장 이용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sup>44)</sup> 같은 해 7월 최영년은 이용구, 송병준, 한석진에 이어 일진회의 기관지 『국민신보』의 사장으로 취임하였고<sup>45)</sup> 10월에는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 조문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sup>46)</sup> 11월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회를 주최하였다. 일진회에 들어간 후 최영년의 친일적 행적은 분명해지는데 1909년 이후 ‘국권 침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최영년의 이러한 노골적인 친일 행적은 당시 조선인들의 분노를 샀으며 교사 구찬서로부터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sup>47)</sup>

흥미로운 것은 최영년의 친일 행위는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일진회에서 발표한 합방청원서에는 최영년의 손을 거쳐 위조된 부분이 많았으며, 자기 아들 崔瑗植을 시켜 최익환이 합방에 동의한다는 위조 문서를<sup>48)</sup>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최영년의 영향으로 그의 아들 최영식은 창씨개명<sup>49)</sup>을

39) 이인직, 「귀의성」, 『한국신소설대계 1편』, 주식회사 토클, 2001, 2-3면.

40) 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사, 2002, 29면.

41) 「壹進總務件渡」, 『대한매일신보』, 1908.9.12.

42) 「崔氏歸國」, 『황성신문』, 1909.1.8.

43) 「願留何用」, 『대한매일신보』, 1909.2.17.

44) 「崔氏歸國」, 『황성신문』, 1909.3.18.

45) 「韓免崔代」, 『대한매일신보』, 1909.7.28.

46) 「日文委員選定」, 『대한매일신보』, 1909.10.29.

47) 최원식, 앞의 책, 2002, 30면.

48) 國民新報社長崔永年の子瑗植이가 警務總監部に 被捉혔다함은 各新聞에 揭布한바 어

하였으며 학교 동창들까지도 선동하여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었다. 더욱이 학교에서 처벌을 주자 형인 崔瑗植이 나서서 동생 최영식을 감싸기도 하였다. 이렇듯 최영년은 자식에게까지 친일 행위를 강요하였지만, 흥미롭게도 그의 큰아들인 최찬식에게서는 이러한 친일행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에 의해 간과된 부분이 있는데 최찬식은 일찍이 백(伯)조부 최숙현에게 출계하였기 때문에<sup>50)</sup>,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1910년 이후 최영년은 정치적 활동에서 물러나 문예활동에 집중하였다. 그는 일본인이 주관한 『신문계』와 『반도시론』에 해동문예란, 사조(詞藻)를 만들어 한시를 발표하였고 1917년에는 『조선문예』 창간호의 편집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문예사, 대동사문회 등 문학단체를 창설하였다. 저서로는 『실사총담』, 『해동죽지(海東竹枝)』, 『시금강』 등이 있다.

그렇지만 최찬식도 1913년 4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신문계』와 『반도시론』에서 기자로 활동하였다. 최찬식은 「관동8경의 기승(關東八景의 奇勝)」(『신문계』, 1913.11.)에서 관동8경에 대해 차례로 기술하면서 그 뒤에 고시(古詩)를 첨부하였다. 이때 “가군(家君) 자호 매하산인이 숙(夙)년 금강을 상(賞)하고 관동에 유력(遊歷)하여 8경으로 한편의 고시가 유(有)하여 차에 부함”<sup>51)</sup>이라고 쓴 글 뒤에 최영년의 한시를 첨가했다. 이 글은 최찬식이 유일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며 이를 통해 그가 아버지의 문학적 소양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같은 시기 같은 잡지에 글을 발표했다는 것은 최찬식이 아버지 최영년의 도움

니와 其內容을 聞은즉 平壤郡崔益煥의 合邦贊成書를 崔瑗植이가 手書함을 因함이 라더라. 「식자우환」, 『대한매일신보』, 1910.7.29.

49) 普成小學校學徒中崔瑛植金善英兪甲倫方仁榮李商雨等이 姓名을 變改호 行爲로 黜學을 當함은 各報에 已揭어니 其主動者崔瑛植은 崔永年의 子라 右五個兒의 改稱호 姓名은 曰鷄林瑛次郎이라 鷄林善太郎이라 杞溪章이라 秋田榮吉이라 鷄林商一郎이라호 얏스니 此는 幼穉호 兒童의 思想으로 出호바아니오 必是主動者의 家庭敎訓으로 各其 貫鄉을 隨호야 製定以給호것이라고 物論이 藉藉호며 又其內容은 崔某가 一進會에 周旋호야 金額을 取得호고 使其子瑛植으로 各官私立小學校生二十歲以下十歲以上의 數 百名을 誘引募集호야 ... 崔瑛植等이 普成小學校에서 黜學을 當호 同時에 崔瑗植及侍 天敎人幾名이 該校長呂昌奎氏에게 質問호기를... 「凶計百出」, 『황성신문』, 1910.2.13.

50) 최찬식의 시조(始祖)는 신라 최문창후(崔文昌候)이고 경주 최씨이며 29세손이다. 증조 숙현(肅鉉)은 자손이 없으므로 아우인 최응현에게 양자를 얻기를 원했지만 최응현도 독자 최영년뿐이었기에 장손인 최찬식을 숙현인 백(伯)조부에게 출계하였다. 정승희, 『新小説作家 崔瑗植 研究』,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학위 논문, 1974, 9면.

51) 최찬식, 「關東八景의 奇勝」, 『신문계』, 1913.11., 8면.

으로 문필 활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설도 배제할 수 없다.

최영년이 타계한 후 그의 아들 崔瑗植은 『아동최씨고』를 쓰면서 아버지 최영년을 미화하며 그의 친일적 행적을 숨겼다. 崔瑗植은 최영년의 넷째 아들이며 1889년에 태어나 최찬식과 8살 차이가 난다. 崔瑗植이 작성한 자신에 대한 약력에는 “한문학전공 10년, 양정의숙(養正義塾) 법률과 졸업, 전한 말 민단자치운동에 종사, 『조선신문』 편집장, 조선 광고계 『중외의약신보』 주간, 『조선일보』, 『조선상공신문』, 『시대일보』 등의 편집장 역임, 조선매약(賣藥) 주식회사상무(常務) 취체(取締)역, 경성 상고협회 감사, 『조선상공통신사』주간, 세계통신사 사장으로 6·25사변 후 은퇴”<sup>52)</sup>라고 적혀있다. 이로부터 崔瑗植은 한문학교, 법률학교에 다녔고 그 후 여러 언론사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6·25사변 전까지 활약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崔瑗植이 아버지를 도와 문서 위조 등을 했던 행적을 통해, 친일과 최영년의 적통 후계자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최찬식은 아버지 미화행위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더러 만년에 독립운동가 최익현의 실기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최찬식이 최익현의 실기를 썼다고 하지만, 현재 그 원본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발굴된 『강명화전』, 『이순신실기』, 『동서위인소년시대』 등 전기를 쓴 것을 보아 최찬식이 말년에 최익현의 실기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

## 2.2. 신문 기자체험과 소설가로서의 활동

최찬식의 첫 공식 활동은 서모 김석자<sup>53)</sup>가 발기하여 조직한 『자선부인회잡지』 편집인을 한 것이다. 서모 김석자는 신여성이고 여성 운동가이며 최영년의 첩이다. 최영년은 1858년에 태어나 1935년 78세에 서거하였고<sup>54)</sup> 본처 청송 심씨는 1908년

52) 崔瑗植, 앞의 책, 1968, 229면.

53) 夫人愛國 公洞 李議官洛用氏의 副室 金一堂氏와 崔永年氏의 副室 金石子氏가 國債를 報償하기 爲하야 斷烟同盟會가 發起한 事에 對하야 自己는 本以吸烟을 不知하는 故로 烟草는 勿論하고 每日朝夕에 一器飯을 半器로 減하고 減剩한 半器米三朔條 十五升價新貨 二圓七十錢을 本社로 親來傳授하고 自己家君들도 方在斷烟中이라 하니 同 夫人들의 愛國思想은 可히 令人效則할 事이더라.

「잡보란」, 『황성신문』, 1907.3.1. 최영년의 부실은 김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4) 「崔永年氏永眠」, 『조선중앙일보』, 1935.8.31., 「梅下山人 崔永年氏 二十九일 오후에 장서

10월 25일에 세상을 떠났다.<sup>55)</sup> 최찬식이 어떠한 연고(緣故)로 친모(親母)가 죽은 해에 서모가 조직한 당시 고관 부인들의 어용단체의 기관지였던 『자선부인회잡지』<sup>56)</sup>의 편집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인지는 재고할 문제이다.

최찬식은 1907년에 중국에서 발행한 『설부총서(說部叢書)』를 번역 또는 번안한 뒤 신소설 창작에 착수하였다고 백철 편 『세계문예사전(世界文藝辭典)』에서 처음으로 언급한다. 하동호는 일찍이 과연 최찬식이 『설부총서』를 번역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 후 대다수의 연구는 이러한 태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찬식과 『설부총서』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상해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기획 출판한 『설부총서』는 해외소설을 번역한 번역문학총서이다. 상무인서관은 당시 번역문단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출판사이다. 상무인서관에서 1903년부터 1924년을 걸쳐 외국문학을 번역 및 출판하였고 그것을 10집 계열과 4집 계열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출간하였다. 10집 계열은 10집으로 나누어진 각 집이 10편씩, 전체 100편으로 이루어졌으며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출판하였다. 그 후로 1908년부터 4집 계열을 출판하였다. 4집 계열은 초집, 2집, 3집은 각각 100편씩, 마지막 4집은 22편, 전체 322편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4집 계열에 속하는 초집은 앞서 출간한 10집 계열과 같다.<sup>57)</sup> 한국에서 주로 10집 계열이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양서원의 『소설총서』가 바로 『설부총서』 10집 계열을 본받아 편찬한 것이다.<sup>58)</sup> 또한 이 당시 『설부총서』를 번역 및 번안한 작품으로는 김교제<sup>59)</sup>의 『비행선』, 『지장보살』, 『일만구천방』, 『쌍봉쟁화』, 『현미경』이 있고 현공렴의 『회천기담』, 조중환의 『지환당』, 저자명이 없는 『도리원』, 『누구의 죄』, 『홍루지』 등이 있다. 그 당시 『설부총서』를 번역·번안한 작품

漢詩壇의 耆宿, 『매일신보』, 1935.8.31.

55) 本月二十五日(陰十月初一日)上午七時別世 西部戰笠洞八七、三護喪所

「崔永年氏夫人沈氏」, 『황성신문』, 1908.10.29.

56) 윤명구, 『개화기 소설의 이해』, 인하대학교 출판사, 1986, 127면.

57) 鄭方曉, 「清末民初商務版『說部叢書』研究」, 夏旦大學中國古代文學博士學位論文, 2013.

김소정, 서정희, 「번역하는 중국-근대번역그룹의 탄생과 외국문학의 중국적 변용」, 『중어문학』 60, 영남중국어학회, 2012, 374-375면.

58) 강현조, 「한국근대소설 형성 동인으로서의 번역·번안-근대초기 번역·번안소설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 19면.

장노현, 「근대전환기 중국 매개 번역문학의 현황과 양상」, 『국제어문』 56, 국제어문학회, 2012, 331면.

59) 강현조, 「김교제 번역·번안소설의 원작 및 대본 연구」, 『현대소설연구』 48, 현대소설학회, 2011.

들은 작품명을 거의 비슷하게 짓는 경향이 많으며, 이는 특히 김교제에게서 잘 나타난다. 하지만 『설부총서』 소설의 작품명과 최찬식이 창작한 소설 이름을 비교해 본 결과 같은 것이 없었다. 비록 그 당시 최찬식이 『설부총서』를 접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가 과연 『설부총서』를 번역·번안했는지는 재고할 문제이다.

최찬식은 『추월색』을 발표하면서 정식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최찬식의 처녀작이자 출세작인 『추월색』은 1912년 3월 13일에 회동서관에서 출판하였으며 1923년 12월 18일까지 18판을 찍는 쾌거(快擧)를 이룩하였다.<sup>60)</sup> 그는 1913년 4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일본인이 주관한 『신문계』와 『반도시론』<sup>61)</sup>에서 기자로 활동하였다. 주지하듯 1910년대는 일본이 조선인 사이의 언론, 출판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고 1910년 이후 신문지법에 의한 조선인의 출판활동이 허가되지 않았으며 단행본 출판도 제약 당하는 시기였다.<sup>62)</sup> 당시 조선에서 발행을 허가받은 잡지로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 『청춘』, 『신문계』, 『반도시론』 등이 있으며, 그 외에는 종교 잡지 『천도교회월보』, 『공도』, 『유심』 그리고 일본에서 간행된 잡지 『학지광』, 『근대사조』, 『기독교청년』, 『여자계』, 『삼광』, 『창조』, 『녹성』 등이 전부이다.<sup>63)</sup> 이와 같이 식민지 조선의 언론, 출판 상황 전반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최찬식이 1910년대 ‘최대 잡지’<sup>64)</sup>로 불리는 『신문계』와 『반도시론』에서 110여 편의 기사를 발표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찬식의 기사는 주로 기행문, 자연과학 기사, 문예작품, 시사 기사 등이 있다.

최찬식이 쓴 자연과학 기사는 다음과 같다. 1913년 10월 「천연와스(天然瓦斯)」,

60) 하동호, 「해동초인소고」, 『시문학』, 1975, 77-78면.

61) 『신문계』는 1913년 4월부터 1917년 3월까지 발행되었고 그 후속지 『반도시론』은 1917년 4월부터 1919년 4월까지 발행하였다. 이 두 잡지를 합하면 총 77호가 발행한 셈이고 이는 1910년대 대표적 잡지 『청춘』과 『학지광』의 발간 횟수를 견주어 보면 『신문계』와 『반도시론』은 1910년대 최대의 잡지라고 할 수 있다. 발행인은 일본인 타케 우찌(竹內錄之助)였으며 주요 필진으로 최찬식, 백대진 등이 있다.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사, 2005, 254면.

62) 권보드래,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 『동악어문학』 54, 동악어문학회, 2010, 20면.

63) 위의 글, 2010, 21면.

64) 『신문계』는 발행기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총 48호가 나왔다. 이는 1910년대 대표적 잡지라 할 만한 『청춘』과 『학지광』이 각각 15호와 18호를 내는데 그쳤던 사정과 견주어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발간 횟수와 지속성이란 측면에서만 본다면 『신문계』는 1910년대의 최대 잡지였다.

한기형, 『한국 근대 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사, 2005, 226면.

1914년 1월 「기묘한 식충식물의 일종(奇妙한 食蟲植物의 一種)」, 1914년 2월 「백의는 가외의 소동물(白蟻는 可畏의 小動物)」, 1914년 4월 「라지우무 금속(金屬)의 話」, 1914년 9월 「명사의 과학담(名士의 科學談)」, 1914년 11월 「과학의 전쟁(科學의 戰爭)」, 1915년 3월 「동식물의 공동생활(動植物의 共同生活)」, 1915년 5월 「도전의 양어(稻田의 養鯉)」, 1916년 1월 「偉人 구리유게루의 少年時代」, 1916년 2월 「뉴턴의 少年時代」 등이 있다. 기사 중에 언급된 구리유게루와 뉴턴의 사적은 최찬식이 1927년에 발표한 『동서위인소년시대』에서 기술한 두 위인의 사적과 같다. 또한 『신문계』에서 벽종거사(碧鍾居士)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汽車 發明者 스티븐슨의 少年時代」(1916.3), 「偉人 넬슨의 少年時代」(1916.6)라는 기사는 최찬식이 『동서위인소년시대』의 스티븐슨, 넬슨제독(提都)의 유년시절을 기술한 것과 거의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벽종거사”는 최찬식의 또 다른 필명이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최찬식은 벽종거사라는 필명으로 『신문계』에만 글을 썼는데 그 글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3년 7월 「단양천기(端陽天氣)」, 1915년 5월 「토이고인의 청수 애음하는 기풍속(土耳其人의 清水 愛飲하는 奇風俗)」, 1915년 10월 「가정의 모범을 작할 가정전(家庭의 模範을 作할 家庭博)」, 1915년 11월 「해수류에 취하여(海獸類에 就하여)」, 1916년 3월 「汽車 發明者 스티븐슨의 少年時代」, 1916년 6월 「偉人 넬슨의 少年時代」, 1916년 7월 「오동재배에 권함(梧桐栽培에 勸함)」, 1916년 10월 「광물질 비료는 하자(鑛物質 肥料는 何者)」, 1917년 1월 「자연육추 급 인공육추(自然育雛及 人工育雛)」, 1917년 2월 단편소설 「경성유람기(京城遊覽記)」 등 글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벽종거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최찬식이 당시 새로운 과학기술에 근거한 실업 발전 문제에 관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sup>65)</sup>

최찬식의 과학 기사는 대체적으로 독자대중에게 과학 지식, 상식을 보급·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천연와스」에서는 세계에서 천연가스가 많은 곳, 천연가스를 분비할 때의 상태, 천연가스 생성 원리 등을 설명해주고 일부 기사에서는 기묘한 동식물에 대한 상식을 설파한다. 「명사의 과학담」에서는 과학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여 동·서양의 과학을 분류하고, 조선의 젊은이들이 보통학교를 다녀야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최찬식이 발표한 기사 「오늘의 경성(今日の 京城)」과 1917년 2월에 벽종거사가 발표한 단편 소설 「경성유람기」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65) 권보드래, 「1910년대 ‘신문(新文)’의 구상과 「경성유람기」, 『서울학연구』 18,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2002, 117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경성유람기」는 노인 이승지, 청년 김종성, 남학생이 함께 기차를 타고 경성으로 간 뒤, 경성의 곳곳을 유람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안내문에 가까운 성격을 나타낸다.<sup>66)</sup> 이 글에 등장하는 남학생은 함께 올라온 이승지와 김종성을 대신하여 일종의 안내원 역할을 한다. 특히 소설 속에서 전기, 전차, 팔대문 및 성벽의 철거, 서화, 여관, 학교, 병원, 은행, 교회, 건물, 관청, 공원, 극장, 가스 및 수도, 화류계, 상업계 등 경성의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의 경성」에서 나오는 자료와 흡사하다.

최찬식은 기자로 활동하는 기간에도 여러 편의 소설을 창작하였다. 1914년 1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우리의 가정』에 「해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미완에 그쳤고, 그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신문계』에 한문소설 「백장홍(百丈紅)」을 연재하였으며 그 사이 8월 19일 동미서시에 『금강문』, 9월 30일 박문서관에서 『안의성』을 출판하였다. 이렇듯 최찬식은 1914년에 4편의 소설을 창작하였고 기사까지 쓰며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15년에는 기사 외에 발표한 소설은 없고 1916년 8월 30일 유일서관에 『도화원』을 발표하고 기사 글을 썼다. 『도화원』은 중국을 배경으로 설정하였고 주인공도 중국인 왕자호, 왕자용이며 내용을 보면 중국 문학작품을 참조하여 번역 또는 번안했을 가능성이 높다.<sup>67)</sup> 1917년 1월부터 3월까지 『신문계』에 「입지소설(立志小說): 기상(機上)의 몽(夢)」을 발표하였고 5월에는 『반도시론』에서 단편 소설 「중소리」를 발표하였으며 간간이 기사를 썼다. 한기형은 최찬식의 단편소설 「중소리」의 주인공 이름이 이문상으로 되었는데 이는 태화산인(太華山人)이 지은 「우의(友誼)」의 주인공 이름과 같다고 한다.<sup>68)</sup> 이보다 앞서 진동혁이 태화산인은 최영년의 필명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진동혁은 태화산인의 제자였던 한학자 해오(海悟) 김관호(金觀鎬)를 만나서 그의 증언에 따라 최영년의 필명이 태화산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최원식과 한기형은 태화산인은 최찬식의 또 다른 필명일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최원식은 한시인(漢詩人)인 최영년이 한글 단편을 창작하였다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서 태화산인을 최찬식의 필명으로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도 이런 논의에 동의하며 태화산인이 최찬식의 필명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는 태화산인이라는 필명으로 『신문계』, 『반도시론』에 근 30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기사들을 보면 자연과학 기사가 위주이

66) 위의 글, 2002, 117면.

67) 강현조, 앞의 글, 2012, 24면.

68)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사, 2005, 254면.

고 가사, 기행문, 그리고 단편 소설 「우의(友誼)」, 「옹두의 춘가(甕頭의 春歌)」 등이 있다.<sup>69)</sup> 앞서 말했듯이 최찬식은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또한 많은 과학 기사를 발표하였는데, 태화산인도 과학 기사를 많이 썼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리고 1913년 9월호의 목차에는 「신작창가: 근(新作唱歌: 勤)」-해동초인이라고 적혀있고 본문에서는 「新作唱歌: 勤」-태화산인이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1914년 3월호의 목차에는 「혜택을 교환하는 동식물(惠澤을 交換하는 動植物)」-해동초인, 「산소응용의 신발명(酸素應用의 新發明)」-태화산인이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혜택을 교환하는 동식물」은 태화산인이고 「산소응용의 신발명」이 해동초인이라고 바꾸어 기재했다. 이는 단순히 편집상의 문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단편소설 「옹두의 춘가(甕頭의 春歌)」<sup>70)</sup>의 경우, 최찬식이 썼던 「백장홍」과 같은 한문 소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태화산인을 최찬식의 필명으로 볼 수 있다.

1918년 11월에 최찬식은 『반도시론』에 「유상옥소녀의 소식」이라는 기사를 발표하는 것을 끝으로 기자생활을 그만 두었다. 『반도시론』은 이듬해(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4월까지 계속 발행되었지만 최찬식이 왜 그 전에 기사를 그만 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기자 생활을 중단한 것은 그의 문필활동과 생애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 동시에 11월 11일에 덕흥서림에 『삼강문』을 발표하였다. 『삼강문』은 1935년 11월 15일까지 총 3판을 찍었다. 『삼강문』을 발표하고 뒤이어 1919년 2월 7일 유일서관에 『능라도』를 출판한다. 『능라도』는 1919년에 간행되어 1930년까지 12판을 찍었다.<sup>71)</sup> 이는 『추월색』 다음으로 많이 재판된 작품에 해당한다.

최찬식이 『신문계』와 『반도시론』 등 잡지에 기자로 활동하던 것 외에 1914년을 전후한 시기 『조선신문』에도 글을 발표하였다는 논의가 있다.<sup>72)</sup> 최찬식의 밝혀지지 않은 작품 『여의 화(女의 花)』, 『새벽달』, 『일엽청(一葉靑)』, 『열혈(熱血)』 등이

69) 부록2 참조.

70) 「옹두의 춘가」에 대해 본고에서 처음으로 언급한다. 「옹두의 춘가」에서 옹두는 처음 익은 술을 지칭한다. 소설은 설날에 장삼봉(張三鳳)이라는 사람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이종덕 집의 술을 훔쳐 먹다가 발각된다. 이종덕은 옛날에 장삼봉과 같이 가난할 때 귀인(貴人)의 도움으로 겨우 살 수 있었던 일이 생각나 장삼봉을 도와준다. 후에 알고 보니 장삼봉은 자신을 도와줬던 귀인의 아들이었다. 이 소설은 제목처럼 술로 인해 이야기가 시작되며 사람에게 베풀 줄 알면 언제 가는 자신한테도 은혜가 돌아온다는 교훈을 시사한다.

71) 하동호, 「해동초인소고」, 『시문학』, 1975, 78면.

72) 김태준, 앞의 책, 1990, 249면.

『조선신문』에 연재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연구자들은 『조선신문』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또한 최찬식의 동생 崔瑗植은 1910년부터 1916년까지 『조선신문』 편집장을 맡았다는 사실<sup>73)</sup>에 따라 최찬식이 동생이 주관한 『조선신문』에 작품을 연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조선신문』은 1890년 1월 28일 인천에서 창간되어 차례로 『인천경성격주상보(仁川京城隔週商報)』, 『조선순보』, 『조선신보』로 개제하였다. 청일전쟁 때 휴간되었으며, 1898년부터 일본영사관의 보조금을 받아 『조선타임즈』와 합병된 뒤 『조선신문』으로 이름을 고쳤다. 『조선신문』은 일본인을 위한 일본어 일간지였지만 조선인 독자들을 위해 한글판을 개설(開設)하였다. 『조선신문』은 1911년 10월 1일부터 언문란(諺文欄)을 실었다.<sup>74)</sup> 장신, 임동근은 『조선신문』 한글판에 수록된 소설을 표로 정리했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최찬식의 작품들이 발견된다.<sup>75)</sup> 하지만 현존하는 『조선신문』을 확인해 본 결과 기념호에만 언문란이 있었고 그 후에 발간한 신문에는 일본어만 있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선신문』에 대한 논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1920년의 경우, 최찬식은 글을 쓰지 않았으며, 1921년 11월에 『신민공론』에 단편소설 「동정의 눈물」을 발표하고 난 뒤, 또다시 창작 활동을 중단한다. 『춘몽』은 1924년 2월 29일 박문서관에서 출판하였으며 최찬식의 작품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장편소설로 꼽히고 있다. 1925년 11월 15일 박문서관에 『강명화전(康明花傳)』, 5일 후 같은 출판사에 『이순신실기(李舜臣實記)』를 발표한다. 1926년에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백련화(白蓮花)』(1926.5.10.), 『용정촌(龍井村)』(1926.11.30.), 『자작부인(子爵夫人)』(1926.11.30.) 등 세편의 소설을 발표한다. 흥미로운 것은 『자작부

73) 최원식, 앞의 책, 2002, 35면.

74) 장신, 임동근, 「1910년대 매일신보의 쇄신과 보급망 확장」, 『동방학지』 18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321면.

75) 聽蕉堂 소설 江上村 1911.10.1~17 1~13(13회분) 박학서원(1912.10).

太華山人 小說 世界花 1912.8.18~9.5 26~41(10회분).

海東樵人 鴈聲 1913.12.3~24 86~104 박문서관(1914.9).

東樵散人 短篇小說 黃金星 1913.12.26, 28 (전 2회) 국한문.

海東樵人 螢月 1914.2.8~4.7 박문서관(1915.1).

海東樵人 보쌈 1913.3.6~21(21) (전 6회).

海東樵人 小說 女의花 1914.4.28~6.30 1~56.

碧鐘居士 鏡中影(능라도) 1914.12.17~1915.1.22 65~87 유일서관(1919.2).

海東樵人 단편소설 飛行機 1915.1.1 (전 1회).

인』의 후반부는 중국 포천소(包天笑)가 쓴 소설 『공곡란(空谷蘭)』(1912)과 비슷하였다.<sup>76)</sup> 또한 포천소의 『공곡란』은 일본 작가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淚香)의 『야의화(野의花)』(1910)를 번역·번안 한 것이고 구로이와의 해당 작품은 영국 작가 샬롯 메리 브레임(Charlotte Mary Brame)의 『여인지과(女人之過)』(1872~1873)를 번역한 것이다.<sup>77)</sup> 최찬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작부인』을 창작하였는지는 재고할 문제이지만 그가 일부 작품은 중국 또는 일본 작품에 근거하여 번역·번안하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준다.

---

76) 『자작부인』은 요릿집 사환인 신영자와 자작의 아들 이기영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시영의 집에서 이시영이 난봉질 한 것을 알고 급히 혼처를 구해 귀족의 자제 김난자와 결혼을 시키고 신혼여행 겸 유학으로 미국 워싱턴으로 보낸다. 그 사이 영자는 임신 을 하여 아이를 낳았으며 백일 만에 이시영 집에서 아이만 데려간다. 그 후 영자는 성서 학원에 공부하며 이름을 성애라고 고친다. 그는 선도사로 경주 야소교당에 파송되어 전도를 열심히 하였다. 이상 전반부의 내용이며 『자작부인』 후반부는 『공곡란』의 후반부와 매우 흡사하기에 후반부의 줄거리를 상세히 기술하겠다.

13년 후 신영자는 대구에 있는 사립고등여학교 학감으로 갔는데 학교 교주가 바로 이기영의 아내 김난자였다. 어느 날 김난자 내외가 아들을 데리고 신영자 집을 방문한다. 대응이는 친모 영자를 알아보고 영자와 가깝게 지나다가 병에 걸린다. 김난자 내외는 영자를 불러 옆에서 대응이를 보살피게 한다. 영자는 어느 날 저녁 얼굴을 가린 사람이 대응이의 약병을 바꾸는 것을 보았는데 약을 바꾼 사람이 김난자였다. 김난자는 자신의 소생이 아닌 대응을 미워하였고 자신의 낳은 재웅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대응을 독사(毒死) 시키어 그것을 영자 소위(所爲)라고 모함하려고 하였다. 영자에게 발각된 김난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 한다. 이시영과 영자는 재결합하고 영자, 대응 모자(母子)는 비로소 한 집에 살게 되었으며 영자는 자작부인이 된다.

77) 潘少瑜, 「近代翻譯家庭小說中女性社會身份的解離與重構」, 『跨文化流動的弔詭—一晚清到民國』, 台北: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出版, 2016.

### 3. 191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

#### 3.1. 기행문 쓰기와 소설 쓰기의 관련성

앞장에서 최찬식에 대한 전기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생애와 문필활동을 알아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1910년대에 발표한 최찬식의 소설과 기사들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최찬식의 대표작 『추월색』에서는 조선, 일본, 영국, 중국 등 여러 공간을 오가는 장소 이동이 있었고, 이런 공간 이동에 따라 소설 속 복잡다단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구성된다.

『추월색』은 정혼한 남녀가 이별하고 재회하는 혼사장애(婚事障礙) 모티프를 중심으로 하는 소설이다.<sup>78)</sup> 이정임과 김영창은 어려서부터 친근하게 지냈다가 양가 부모는 두 자녀가 7살 되던 해 정혼을 시킨다. 그 후 김영창의 아버지 김승지가 초산군수로 이직하게 되자 영창이와 정임이는 헤어진다.

초산으로 간 김승지 일가는 민요(民擾)를 만나 김승지 내외를 뒤주 속에 넣어 압록강에 띄워 보냈고 영창이는 강물을 따라가다가 영국인 자선가 스미트의 구조를 받으며 영국에 가게 된다. 정임의 아버지 이시중은 김승지 일가가 행방불명이 되자 정임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려고 한다. 정임은 결혼 전날 가출하여 일본으로 가서 공부하면서 영창이에 대한 정조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임이와 영창이는 우연히 일본 우에노공원에서 재회하고, 마침내 결혼하게 된다. 그들은 서양식으로 신혼 여행을 떠나고, 그 목적지는 만주 봉천으로 설정된다. 이는 한국 근대문학사상 최초로 ‘신혼여행’이 서술된 문학작품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sup>79)</sup> 정임은 동경, 영창은 영국 등 해외에 있다가 귀국하여 신혼여행지로 중국 만주에 간다. 그들은 압록강을 건너 구련성을 구경하고 계관산, 송수산 돌아보며 “내일은 어디 어디 구경할까요? 요양 백담과 화표주는 어디쯤 있으며, 여기서 심양 봉천부는 멀리나 남았소? 아마 봉황성은 가깝지? 그리고 계문연수가 구경할 만하다는데 그 구경도 할 겸 이 길에 북경까지 갈까?”<sup>80)</sup>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승고적을 탐방하고

78) 이승원, 「최찬식의 『추월색』 고」, 『국어교육』 3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1, 139면.

79) 이경훈, 「자본의 순환과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학관계 —한국 근대문학의 트랜스 내서 네티티: 식민지와 관광지 —만주라는 근대 극장」, 『SAI』 6, 국제한국학문화학회, 2009, 73면.

있다. 그러던 중 마적단의 습격을 받아, 정임을 납치해간다. 이때 마적단에 있는 조선인 통역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영창과 압록강에서 헤어졌던 김승지였다. 마적굴에서 김승지 내외는 아들 영창 내외를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압록강에서 김승지 내외와 영창이는 헤어졌을 뿐, 김승지 내외가 죽었다는 사실이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재회는 일정 정도 암시되어 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길로 안주 백상루, 용천 청유당 다 지나서 의주 통군정에 올라 난간에 의지하여 압록강 상에 풍범사도와 연운죽주를 바라보더니 영창이 얼굴에 초창한 빛을 띠고 손을 들어 사장을 가리키며,

(영창) “저곳이 내가 스미트 박사 만나던 곳이오. 저곳을 다시 보니 감구지회를 이기지 못하겠소. 이 완악한 목숨은 살아 이곳에 다시 왔으나, 우리 부모는 저 강물에 장사 지내고 다시 뵈지 못하겠으니 천추에 잊지 못할 한을 향하여 호소할 데가 없소그려” 하고 바람을 입하여 한숨을 길게 쉬며 흐르는 눈물을 금치 못하니, 정임이도 그 말 듣고 그 모양 보매 자연 비감한 생각이 나서 역시 눈물을 씻으며... (『추월색』 60면)

위의 인용문처럼 영창은 압록강을 다시 돌아보는 장면을 통해, 어릴 적 부모와 헤어지던 고난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린다. 잃어버린 부모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들이 헤어진 곳을 다시금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에,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들 부부의 신혼 여행지를 만주로 설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영창은 죽은 줄로 알던 부모를 찾아 이산과 만남<sup>81)</sup>을 이루는 대단원의 결말을 이룰 수 있다.

『추월색』에서 공간 경험은 다양하게 서술되고 있다. 정임은 영창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일본 유학을 떠났고 영창은 가족과 헤어지며 영국에서 문학박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임과 영창은 재회하여 신식결혼식을 올리고 만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이러한 공간 이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 철도가 부설되었기 때문이다. 철도는 근대적 문물이기도 하지만 화륜선, 우편, 전신 등과 결합하여 교

80) 권영민, 김종욱, 배경열 편, 『한국신소설선집』 7,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59면. 이하 소설 『추월색』, 『안의 성』, 『금강문』의 인용은 본문에서 (면수)로 표기한다.

81) 남석순, 「신소설의 대중화와 통속적 요인 연구」, 『한국문예창작』 2, 한국문예창작학회, 2003, 95면.

통-통신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sup>82)</sup> 이러한 장면은 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간 사이의 이동이 가능해진 당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금강문』은 주인공 김경원과 이정진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한다. 김경원은 학교 선생인 김교원의 외동딸이다. 김교원은 학교 학생 중 이정진을 사위로 마음에 들어 딸과 정혼시킨다. 그 후 김교원 내외가 죽게 되자 유일한 친척인 김경원의 외삼촌이 술가하여 경원의 집으로 오게 된다. 그러다가 경원을 흠모하던 구소년은 외삼촌 내외를 이용하여 경원과 이정진을 파혼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동네 노파를 수매하여 일부러 이정진의 집에 보내 경원가 외간남자랑 간통한다고 모함한다. 이에 정진의 모친은 즉시 이 정혼을 파기하고, 아들을 윤국장의 딸과 새롭게 정혼시킨다. 정진은 어머니의 성급한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경원을 잊지 못해 결국 영국 유학길에 오른다. 중매를 썼던 신교장 부인은 우연히 동네 노파를 마주한 뒤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고, 꾀를 내어 노파가 자신의 죄와 외삼촌 내외의 죄를 관가에 가서 자백하게 만든다. 경원은 외삼촌이 자신을 구소년에게 시집보내려는 것을 알고서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된다. 일련의 시련을 겪은 경원은 출가(出家)하는 것이야말로 정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금강산으로 출가한다.

경원은 노승과, 정진은 중과 금강산 유람을 하다가 우연히 금강문에서 재회하게 된다. 경원은 금강산 백화암(白華庵)으로 떠나와, 노승에게 자신이 어릴 때 배운 지지(地誌) 공부에 의하면 금강산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기에 함께 가보자고 권유한다. 그래서 노승은 경원을 데리고 백화암을 떠나 만폭동(萬瀑洞)을 구경하고자 금강문에 다다른다. 금강문 문턱에 올라서자 난데없는 까마귀가 머리 위로 날아가며 우는 소리에 노승은 심회가 불편하여 절로 돌아가려던 참에 구소년을 만난다. 이때 중으로 위장한 구소년이 노승을 죽이고 경원을 겁탈하려고하자 정진이 나타나 경원을 구해 준다. 정진은 영국 유학을 떠났지만,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되어 통천에 다다랐는데, 이 기회에 금강산 유람이나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여 금강산에 온 것이었다. 정진은 신계사(新溪寺), 만물초(萬物肖), 옥녀세두분(玉女洗頭盆)을 차례로 보고 그 이튿날에는 오선대(五仙臺), 백파담(白波潭), 옥류동(玉流洞), 연주담(連珠潭), 무봉폭(舞鳳瀑), 비봉폭(飛鳳瀑), 구룡연(九龍淵)을 유람하였다. 셋째 날은 유점사(楡岾寺), 넷째 날은 만경대(萬景臺), 중내원(中內院), 다섯째 날은

82) 김동식, 「신소설과 철도의 표상; 이인직과 이해조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학회, 2012, 82면.

효운동(曉雲洞), 마하연(摩訶衍), 여섯째 날은 비로봉(毗盧峰), 수미암(須彌庵)을 구경하였고 이날은 일곱 번째 날이며 내팔담(內八潭), 보덕굴(普德窟), 금강문을 지나 만폭동을 구경하려던 참이었다.

작가는 소설 『금강문』에서 금강산의 풍경을 기행문처럼 묘사한다. 이정진과 중은 7일간 금강산을 유람하고, 중이 금강산에 대해 해설해주는 대목이 나온다. “금강문을 나서면 곧 만폭동이며 만폭동은 수석이 괴이한 것이라든지 참 금강산 일만 이천 봉 중에 제일 장관처가 많은 곳이올시다”(325면)라고 한다. 이렇듯 작가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 만폭동을 보려면 금강문이라는 중요한 곳을 지나가야한다는 것을 제시해준다. 경원은 백화암, 이정진은 신계사, 둘은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여 결국 금강문에서 재회하게 된다. 또한, 소설 『금강문』의 표지는 이 소설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신사복을 입은 남성이 땅에 쓰러진 여승 쪽으로 달려가고 여승 왼쪽에는 칼을 들고 승려 차림을 한 남성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차례로 정진, 경원, 구소년이다. 그리고 삽화의 배경은 금강산 금강문이다. 이는 구소년이 중으로 위장하여 경원을 겁탈하려고 할 때 정진이 나타나 경원을 구조해주고 구소년은 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실제로 금강산에는 여러 개의 금강문이 존재하는데, 작가가 그중 금강산의 절경으로 꼽히는 만폭동과 이어지는 금강문을 소설의 대미를 장식할 재회의 장소로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 장치 이상의 의미, 즉 고난을 넘어 절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작가의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저 지공무사한 천도는 복선화음하는 일이 바이없는 것이 아니오, 공평 정직한 인사는 창선징악(彰善懲惡)하는 일이 반드시 있나니, 고로 경원의 장래에 영화를 받아 무궁한 행락을 하는 것은 다시 금강문 하권을 발간되기를 기다릴 바이 아니로다. (『금강문』 347면)

제시된 인용문에서도 작가가 경원의 행락을 그리는 『금강문』 하편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 금강문은 고난에서 행복으로 향하는 상징적인 ‘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금강문』은 유독 금강산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던 최찬식이 그것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소설화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최찬식은 『신문계』와 『반도시론』에 대량의 기행문을 연재하였다. 그가 쓴 기행문은 자연풍경 묘사, 역사 고적 탐방이 있으며 그중에도 금강산에

대한 글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를 들면 『신문계』에 「금강은 천연의 공원(金剛은 天然의 公園)」(1913.4~8, 10.)이라는 제목으로 총6회 6개월간 연재했고 그 후에도 연이어 「세계의 절승 금강산(世界的 絶勝 金剛山)」(1916.8~9.), 「세계절승 금강산의 일폭(世界絶勝 金剛山の 一幅)」(1916.10~11, 1917.1, 3.)이라는 제목으로 기행문을 썼다. 또한 『반도시론』에 「여회여화의 추금강(如繪如花의 秋金剛)」(1917.8.), 「대자연의 금강(大自然의 金剛)」(1917.11.)이라는 금강산 기행문을 발표하였다.

「금강은 천연의 공원」에서는 장안사(長安寺), 령원동(靈源洞), 수렴동(水簾洞), 백담동(白塔洞), 만군탑(望軍塔), 백화암(白華庵), 표훈사(表訓寺), 정양사(正陽寺), 원통암(圓通庵), 수미암(須彌庵), 만폭동(萬瀑洞), 마하연(摩訶衍), 비로봉(昆盧峯), 효운동(曉雲洞), 유점사(楡岾寺), 옥류동(玉流洞), 구룡암(九龍淵), 외원통(外圓通), 신계사(新溪寺)의 순서대로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다. 이는 내금강으로부터 외금강으로 유람하는 이동 순서를 기술한 것이다. 다음 「세계의 절승 금강산」에서는 신계사, 만물초, 옥녀세두분, 비봉포, 구룡암, 마하연, 비로봉, 수미암, 만폭동, 원통암, 표훈사, 정양사, 백화암, 령원동, 수렴동, 백담동, 장안사 등 노정으로 금강산을 소개한다. 이는 위와 반대로 외금강으로부터 내금강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서술한다. 이렇듯 최찬식이 여러 가지 코스로 금강산 유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금강산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포착할 수 있다. 1917년 11월 『반도시론』에서 기획한 ‘금강산 탐승 기념호’ 「대자연의 금강」에서는 33페이지를 할애하면서 금강산을 재차 소개하였다. 최찬식은 자신이 설계한 금강산 탐승-내·외금강의 일주(一周)에서 가이드처럼 유람코스를 정해주었다. 외금강에서 내금강으로 다시 외금강의 순서로 일주일간 일정을 만들었으며 지명의 유래, 고적과 인물 사건 등을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최찬식의 소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연풍경 묘사에 능하였으며 지리적 위치에 대해 상당히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이는 그의 기행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吁)라 차 대자연의 미야, 기 웅건(雄健), 가려(佳麗), 기괴(奇怪), 운아(韻雅)의 상태를 어찌 순설(脣舌)로써 형용하며 어찌 호묵(毫墨)으로서 기득(記得)하리오만은 대진산(大盡山)은 산이오 또 산, 수(水)이오 또수, 산이 유하면 기봉을 기(起)하고 수가 유하면 청계를 작하여 축축(矗矗)한 기봉은 금을 성(鏤)하고 옥을 조(調)하였으며 O 淙淙한 청계는 금(錦)을 탁(濯)하고 주(珠)를 키(簸)해야 실로 회산화수(繪山畫水)의 대관을 정(呈)하는 중창송취백(中蒼松翠栢)과 강풍(絳楓)이 최대

하여 금상첨화(錦上添花)의 광경을 수면에 은영(隱映)하는 기관, 가히 심청신이 (心淸神怡)함을 불각할지오. 또는 산의 전체를 암으로서 성(成)하여 기암괴석이 천대만상을 구하였을뿐아니라. 산의 봉, 동(洞)의 학(壑)이 무비암(無非岩)의 구조 오. 산의 전부를 불(佛)로서 임하여 명사거찰(明寺巨刹)이 산의 주재를 작하였을 뿐아라 봉의 명, 수의 호가 무비불(無非佛)의 명명(命名)한바이니 산의 일세계를 지(指)해야 가히 산국수국풍국암국불국의 평을 부할지라. 연즉(然則)여사(如斯)한 기산여수와 絳楓怪岩은 전혀 불을 위하여 생성하였다할지니 차지는 실로 제천초지(諸天初地)의 청정법계라.

기자는 치우(癡愚)를 불치(不恥)하고 감히 불충분한 지리적 변론을 일술하거되 금강은 기산맥이 본시(本始)조선반도의 根蒂되는 백두산으로 자하여 원히 함경남 북도를 경하고 강원도에 지(至)하여 해를 빈하고 금강의 미과(美果)를 결한 후 갱(更)히 남으로 연하여 오대산지리산제주한라산 등의 장산(壯山)을 기하여서 반도의 척수(脊髓)를 작한바 금강은 상차(尙且)기중양에 위하였으니 기지는 즉(卽) 양양무변한 일본해에 접하여 태평양의 난류(暖流)와 북빙양의 한기(寒氣)가 상박(相撲)함으로 기지는 항상(恒常)저기압을 생함이 다하여 급풍폭우가 시시 상하하는 데...(「大自然的 金剛」, 『반도시론』, 1917.11., 23-24면, 밑줄은 인용자.)

최찬식은 금강산을 ‘산국(山國) 수국(水國) 풍국(楓國) 암국(巖國) 불국(佛國)’라고 평가 하고 있다. 즉 금강산에는 어느 하나 진귀하지 않은 것이 없거니와 ‘일산 일수 일동(洞) 일학(壑)’ 모두 명승을 이루고 있다. 각 명소 고적의 유래, 전설까지 일일이 서술하고 있는데 그 풍경은 실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금강산은 그야말로 세계의 절승, 명승이다. 최찬식은 금강산에 대한 애착을 자신의 지리적 지식과 연결하여 소설에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최찬식이 금강산 같은 명승고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나는 잡지사의 기획요구로 인해 명승고적 탐방을 기행문으로 쓰게 되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최찬식이 스스로 여행, 유람을 취미로 생각하고 좋아했다.

때는 9월상순, 기자는 본사 주최한 금강산탐승회를 수행하여 세계적 명산의 대자연 장관을 관하였노라. 기자-수년전 신문계의 사명으로 금강은 천연적 공원이 라는 문제를 천하에 소개코자 산의 기승을 상밀(詳密) 조사한 사(事)가 유(有)하나 차시(此時)는 단(但)히 담화중의 선경, 사진상의 기관을 포문포견(飽聞飽見)하

였을뿐이요. 기(其) 수이(袖異)한 조화공, 금강의 진면목이 여의 야속한 안구를 경키는 시(始)이 금일이다. (『大自然의 金剛』, 『반도시론』, 1917.11., 23면)

위와 같이 최찬식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금강산 기행문을 쓰게 된 이유는 ‘본사’에서 주촉했기 때문이다. 즉, 이는 잡지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글쓰기라고 볼 수 있다. 1910년대 이후 본격화된 대규모의 정책적, 상업적 단체 여행인 ‘시찰’, ‘관광’이 본격화되었으며 당시 『신문계』와 『반도시론』에 나타난 친일적 경향을 생각했을 때 이는 정치적으로 읽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위수로 조선인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 여행에는 조선의 지리적 영역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장악하고자 하는 일제의 의도가 강하게 내재하여 있다.<sup>83)</sup> 최찬식은 이러한 취지(取旨)로 「관동팔경의 기승(關東八景의 奇勝)」(『신문계』, 1913.11.), 「수족관관람기(水族館觀覽記)」(『신문계』, 1915.10.), 「개성인과 기생활(開城人과 其生活)」(『반도시론』, 1917.10.), 「영남의 명승과 고적(嶺南의 名勝과 古蹟)」(『반도시론』, 1917.12.), 「20일간 3천리 여행(20日間 3千里 旅行)」(『반도시론』, 1917.12.~1918.1.), 「백제 고도 부여의 팔경(百濟 古都 夫餘의 八景)」(『반도시론』, 1918.3.), 「화성의 풍경(華城의 風景)」(『반도시론』, 1918.4.), 「고려고적과 기풍경(高慮古蹟과 其風景)」(『반도시론』, 1918.7.), 「박연관포기(朴淵觀瀑記)」(『반도시론』, 1918.7.), 「흥천사에 일야(興天寺에 一夜)」(『반도시론』, 1918.9.), 「오늘의 경성(今日의 京城)」(『반도시론』, 1918.10.) 등 많은 기행문을 썼다. 예컨대, 「20일간 3천리 여행」 등의 조선 시찰 일기는 『반도시론』의 기획한 결과물로서 조선 각 도를 직접 시찰하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sup>84)</sup> 「오늘의 경성」에서 경성의 위치와 지세, 기후, 토지, 교통, 위생, 종교 등 경성의 이모저모를 조사한 결과를 통계적 수치로 전달하고 있었다. 「영남의 명승과 고적」, 「백제 부여의 8경」 등에서는 해당 지역의 유적지 소개와 함께 산업발전을 도모한 유명 인사를 방문한다. 수족관, 창덕궁, 경성 등은 모두 근대적 문물이 들어온 결과이다.

최찬식의 금강산 유람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시기 교통의 발달과 함께 발전된 경제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경원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경성에서 금강산으로 유람하는 것이 훨씬 편리해졌다. 최찬식은 이것을 보고 ‘이는 조선의 문명 정도가

83) 우미영, 「‘조선(朝鮮) 일주(一週)’의 정치성과 식민(植民) 정보원(情報員)의 글쓰기」, 『語文研究』 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30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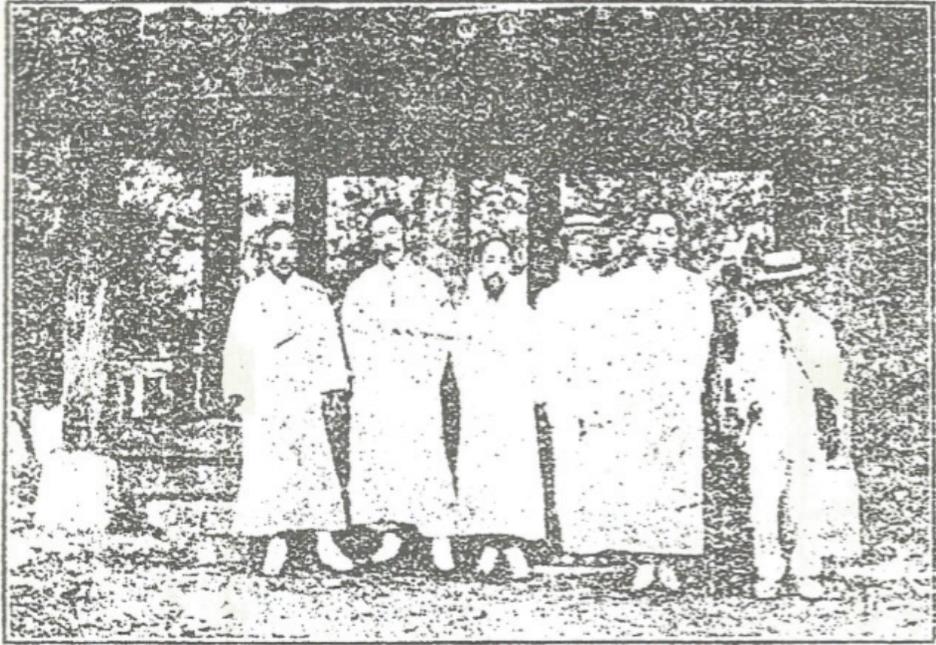
84) 위의 글, 2015, 298면.

날로 진보하여 도로수축(修築)이 일층 발전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다른 한편 최찬식이 이러한 기행문을 많이 쓰게 된 것은 최찬식이 스스로가 여행을 즐겼기 때문이다. 최찬식은 여행을 통하여 학술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자-결코 자기가 학술을 연구코자하는 여행이 아니라 제군(諸君)을 대표하여 차(此) 학문을 용단(勇斷)하여 도중으로부터 귀에 축하고 안구에 접하는 바로 의하여 문한자는 문한대로 견한자는 견한대로 일문을 첩기(輒記)하며 일견을 첩화(輒畫)하여 가히 제군의 학술연구상 참고의 재료가 될만치 간이(簡易)한 문법과 전근(淺近)한 의미로 본지에 발표할지면 제군은 사정에 ○반됨을 인하여 차학(此學)을 맹진할 필요가 무(無)히 차를 참고하며 차를 연구하여서 취미를 흥기한 실익(實益)고을 획득함에 만일의 조(助)가 유(有)키를 양망(仰望)하는바이라. 현에 경성으로부터 우선 지근(至近)의 도회를 답진(踏盡)하고 차(次)에 내지에 문물제도과 지나의 대륙상황(大陸狀況) 유력(遊歷)한 후 우차(又次)에 육주오양(六洲五洋)의 파랑(波浪)를 타파하여 태서(泰西)의 장관(壯觀)과 남양의 기괴(奇怪)를 일일 유람할터인데 금번(今番)에 제일회 착수로 개성여행을 실천하고 기 여행기를 일시(一試)하나 (『학술연구 세계주유기 -제1회 개성여행의 실기』, 『신문계』, 1913.12., 16면)

최찬식은 독자들에게 여행은 학술연구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여행을 통하여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위 인용문의 제목이 「학술연구 세계주유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학자들에게 학술연구를 위해서라면 세계주유를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기도 한다. 최찬식은 경성을 비롯한 조선을 우선 탐승하고 다음 일본, 중국을 유람하며 마지막으로 유럽, 남양 등지를 구경하고자 하는 세계 일주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洙宅韓 鍾圭金 植瓚崔 러부로右 (亭斯逝)  
 錫箕李 鉉秀李 德熙李

(사진 1)

위의 사진은 「박연관포기」(『반도시론』, 1918.7.)라는 기행문을 쓰면서 첨부한 최찬식을 비롯한 일행이 찍은 유람 사진이다. 오른쪽 중절모를 쓰고 양복을 입은 사람이 최찬식이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있다. 최찬식은 그의 기행문에 자주 유람지 사진을 삽입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가주의 불사의가 — 유명한 활동사진 촬영장(米國加州의 不思議街 — 有名한 活動寫眞 撮影場)」(『신문계』, 1915.7.), 「활동사진을 관람하는 취미(活動寫眞을 觀覽하는 趣味)」(『반도시론』, 1917.4.) 등을 보아 최찬식은 활동사진 관람하기 좋아하고 여행을 즐기며 여행 중 사진 찍기를 좋아하였다.

“1910년 이후 여행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신문과 잡지를 통해 여행기와 여행지의 사진이 널리 보급되고, 여행과 여행기의 독서가 하나의 취미로 자리 잡게 된다.”<sup>85)</sup> 최찬식도 이러한 사회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여행 취미가 있었으며 그것을

85) 이지훈,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의 여행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박사학위 논문,

기록하는 것을 즐겼다. 최찬식의 기행문에는 유람지의 교통-지리적 위치, 유람순서, 유람지의 경제상황 등 많은 정보가 있어 이 당시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이 여행하는 것은 기행문에 언급되었던 유람지에 가거나 비슷한 노선으로 탐승하는 점에 유사하고 관련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찬식에게는 세계 일주의 꿈이 있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안의 성』에서 주인공은 세계여행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청년 법학자 김상현과 생선장수 박춘식의 동생 정애는 신분타과를 하고 결혼을 한다. 행복한 결혼생활도 잠시 김상현을 좋아하던 이웃집 정봉자는 김상현의 동생 영자와 같이 정애를 모함하여 정애를 친정으로 보낸다. 이러한 가정 풍파를 겪은 상현은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여행을 떠난다. 최찬식은 서사의 흐름과 큰 연결이 없는 세계주유(世界周遊)를 상세하게 다루었다.

집을 떠난 후로 먼저 개성으로 내려가 명승고적을 구경하는데, 고려 왕궁의 만월대 기지와 선죽교상의 포은 선생 혈흔이며, 채하동 수석과 박연의 폭포를 낚날이 구경하고, 그길로 평양으로 내려가 대동강 모란봉의 명미한 산수와 연광정, 부벽루의 기려한 풍경이며, 기린궁, 영명사 등의 금수강산을 유람하고 즉시 신의주 시가의 새로 번창함을 본 후, 곧 압록강 철교를 건너 동청철도를 타고 안동현 봉황성을 지나, 봉천부에 다다라 시가의 번성함과 물화의 교통하는 상태를 관찰하고, 계문연수를 지나 북경에 들어가니, 가옥의 굉결함과 물산의 풍부함이 평일에 듣던 바에서 지나므로 경탄함을 마지아니하고, 그길로 남청철도를 좇아 상해에 다다라서 동서양 인물의 폭주병진하는 성화를 구경한 후 남경 오송의 문물을 사랑하고, 한가한 자취로 동정군산과 소상춘수에 놀아 이백 간 뒤에 오래 한가하던 강남풍월을 위로하니 벌써 떠난 지가 오륙 개월이라. 다시 태서에 두류코자 상해로부터 비로소 윤선에 올라 태평양 너른 물결을 깨트리고 인도양을 횡단하여 영령 인도에 들어가 열대지의 동식물이며 새로 발달되는 공업품을 낚날이 시찰하고, 다시 지중해를 통하여 처음 구라파에 도착하니... 그길로 파리·백림·피득보 등의 장결한 시가를 열력하고, 서서의 세계명승지라 칭하는 빙하공원의 기관이며, 기타의 화란·정말·서반아·이태리 등의 풍물을 곳곳이 구경하고, 영국 수부 런던의 장관을 유람한 후 또한 아블리가로 항행하여 사하라 사막·희망봉 산맥을 바라보고, 연초 산지 애급과 열강의 점령지 제 부락을 낚날이 구경하고, 태평양 너른 바다에 용맹한 뜻을 다시 달아 적도선을 통과하고, 열대지방으로 유명

---

2017, 25면.

한 호주에 들어가서 세계에 제일 화려하다는 시가와 세계에 제일 풍부하다는 물산 등의 모든 상황을 목도하고, 그길로 남양 제도 야만인종의 기괴한 풍속을 재미있게 구경하니, ...회정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지에 다다라 동경의 모든 풍물과 경도·대관·마관 등지의 화려한 물색과 선미한 풍속을 관광하고, 연락선으로부터 부산에 도착하였더라. (『안의 성』 179-182면, 밑줄은 인용자.)

이렇게 김상현은 서울에서 출발하여 개성의 만월대, 선죽교, 채하동, 박연폭포 등 명승고적을 구경하고 평양으로 올라가 대동강 모란봉, 연관정, 부벽루, 기린궁, 연명사 등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그는 즉시 신의주, 압록강철교를 지나 동청철도를 타고 봉천(심양)에 도착한다. 그리고 계문연수를 지나 북경에 갔다가 남청철도를 타고 상해에 다다라 상해를 구경한 후 남경 등 중국 강남풍월을 유람한다. 다시 상해로 올라와서 윤선을 타고 태평양, 인도양을 지나 인도에 도착하여 시찰한다.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도착하여 파리, 베를린,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런던 등 세계명승지를 구경한다. 다음 아프리카로 항행하여 사하라사막, 희망봉 산맥, 이집트 등을 구경하고 호주에 갔다가 남양군도까지 유람한다. 그는 삼 년 만에 세계 일주를 마치고 일본 동경, 교토, 오사카, 시모노세키를 돌아보고 부산으로 입국한다. 그의 여행노선을 정리하면 서울에서 출발하여 조선을 유람하고 중국-유럽-아프리카-호주-남양주-일본을 걸쳐 부산으로 귀국한다. 이는 최찬식이 쓴 「학술연구 세계주유기」에서의 유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계 일주를 하는 장면이다.

흥미로운 것은 주인공 김상현이 여행하는 과정에 준비한 여비를 다 쓰자 정치가, 재산가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여행하였는데 최찬식은 이를 ‘쾌 소년(快少年)의 무전여행(無錢旅行)’이라고 기술하였다. 세계여행을 경제적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여행을 좋아하던 최찬식의 꿈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는 작중 인물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계주유를 통해 김상현은 현실 생활에서 도피하여 잠시 머리를 식히고 문건을 넓히며 성장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정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작가 최찬식은 주인공이 세계 일주를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소설에서 여행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여러 번의 공간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강문』과 같이 금강산 유람을 통해 ‘금강문’이라는 장소가 남녀가 재회하는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내포하도록 설정하거나, 『추월색』에서처럼 근대소설에서 최

초로 등장하는 ‘신혼여행’ 화소를 경유하여 그 여행지로 설정된 만주라는 공간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안의 성』의 경우 주인공은 세계일주를 통해 성장한 인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 3.2. 전통적 의리와 개인적 자유의 모순과 타협

최찬식의 소설에서는 장소이동을 통해 인물들의 만남과 이별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설정으로 작가가 내세우고자 하는 세계관을 알 수 있다. 전형적인 예로 『삼강문』을 들 수 있다.

『삼강문』은 최찬식이 기자 생활을 그만두는 시점에 발표한 소설이다.<sup>86)</sup> 그런 의미에서 『삼강문』 또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삼강문』은 조선시대 전라도 광주군 창동에 삼강문 넘어 안동리라는 곳에 정안동이 살고 있다. 정안동은 원래 온양에 사는 이진사 집의 노복(奴僕)이었으며 이름은 정돌쇠였다. 그는 노주관계를 벗어나 자유를 얻고자 주인 이진사에게서 글을 배웠으며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이진사에게 돈을 준 뒤 노비 문서를 없앴다. 반면 이진사는 양반인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아 정안동이 준 돈을 다 쓰고 심지어 아내가 해산할 돈조차 마련해두지 않아 정안동을 다시 찾으러 간다.

정안동은 찾아온 이진사를 반갑게 맞이하며 사정을 듣고 돈 삼천 냥을 흔쾌히 내어준다. 정안동의 아들(대붕)은 이진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에도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아서 하인 차돌이를 시켜 이진사를 죽여 버린다. 그 후 이진사의 아내는 유복자(기동)를 출산하고 기동이는 그가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집을 나선다. 그는 안동리에 와서 선친의 친구 김진사 집에서 공부하면서 복수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진사와 같은 마을에 살던 정안동은 김진

---

86) 『삼강문』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정준식은 『삼강문』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전반부는 최찬식이 창작한 노비 정돌쇠의 신분 해방이고, 후반부는 이진사의 추노 과정 중 대붕에게 살해당하는 것과 기동의 복수여정을 재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서혜은은 『삼강문』의 후반부에서 정옥이가 기동이 대신 죽은 것은 반노(叛奴)의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아들 대신 죽은 내용과 흡사하다고 한다. 정준식, 「『삼강문』의 구성방식과 작가의식」, 『韓國文學論叢』 41, 한국문화회, 2005.

사집에서 공부하는 기동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막내 딸 (정옥)과 강제결혼을 시킨다. 결혼 후 기동은 김진사로부터 자신이 원수의 딸과 결혼한 것을 알게 되고, 대붕이 또한 자신의 매형되는 기동이 자신이 죽인 이진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대붕이는 기동일까지 죽이려고 모계하였는데, 이 사실을 기동의 아내, 즉 대붕이의 동생 정옥이가 알게 된다. 정옥이는 기동과 옷을 바꿔 입고 대신 죽게 되는데 기동이는 이 틈을 타서 도망간다. 그 후 대붕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정옥이는 조선에서 제일가는 정절을 지킨 여성으로 높이 평가되어, 정옥의 무덤 앞에 황제가 삼강문을 하사해준다.

소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노주관계를 일반적으로 강압적이거나 좋지 않은 관계로 묘사되는 상황과 달리 『삼강문』에서는 노주위계 없이 친밀히 지내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최찬식이 노주관계에서 부각하고자 하는 것은 정안동의 인물형상이다. 정안동은 노비 신세를 고치려고 부지런히 농사하는 동시에 열심히 일하여 저축하였다. 정안동은 돈으로 신분을 탈피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자각한다. 그는 이진사에게 공부할 의향을 말하였으며 이진사도 흔쾌히 받아들여 그를 가르친다. 이진사가 노비인 정안동의 학구열을 크게 찬상(讚賞)하는 것으로부터 그는 개명한 양반임을 알 수 있다. 노주대결에서 노비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여 주인을 살해하거나 그 집안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삼강문』에서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노비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자유를 찾는 구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안동 자신이 지식의 힘으로 신분을 바꾸었기에 그가 기동이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것도 문벌이나 재산보다도 문필 학식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최찬식은 노비의 신분 해방에 지지하며 또한 노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도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는 작가가 노주사이에 의리라는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신분 해방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동의 아내 정옥이는 남편 기동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남편 대신 죽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삼강문』의 또 다른 이름은 『비련애화(悲戀哀話): 홍안(紅顏)의 루(淚)』이다. 표지에는 여성이 의자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 ‘홍안의 루’는 아리따운 여자의 눈물을 말하는데 이는 정옥이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붕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양쪽 가문은 무사했겠지만 정옥이는 모두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친오빠와 대항을 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결말에서는 정옥이의 행적을 높이 칭송하

며 그의 무덤 앞에 삼강문을 세우게 된다. 이 문에는 ‘충(忠)’, ‘효(孝)’, ‘열(烈)’이라고 적혀있는데 충은 정옥이가 부친의 상전을 보호해준 것을 뜻하고, 효는 정옥이의 죽음으로 부친의 화를 면하는 것을 가리키며, 열은 정옥이가 남편 기동 대신 죽은 것을 칭송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소설의 시작 부분에 세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 광주군 창동이라하는 곳에는 삼강문이라 이름하는 고대 건물 한간이 있더라. 창동은 원래 사람 사는 촌가도 없고 또한 교통하는 도로도 없는데 다만 그 퇴락한 문 한간이이 적막한 강산주인옹이 되어 황량한 풀 속에 쇠잔한 석양빛을 띠었더라 그 문은 장구한 세월에 무한한 풍상을 역력한 고로 가히 옛 시대 사람의 유물이라고는 하겠으나 그 건축한 제도는 별로 웅장해달 것도 없고 화려해달 것도 없으며 또한 고대 사람에 미술적 공예품이라 할 것도 되지 못하여 학술 연구의 자료가 된다던지 공업창고의 표본이 된다던지 가히 취할만한 가치는 조금없을 뿐더러 300년동안을 풍마우세하여 기와는 깨지고 단청은 벗어져 그 외양까지 조금 구경스럽지도 못한 것이라 누가 보던지 그다지 대수롭게 여길 것이 없어 다만 심상히 보고도 심히 지내버릴 뿐더러 그런 고로 세상 사람은 그 삼강문 역사를 별로 아는 자가 적고 전하는자도 없셔소 다만 처량한 새소리와 무정한 꽃 향기가 그 삼강문의 고적함을 위로 하는 듯일 뿐이더라. (『삼강문』 1-2면, 밑줄은 인용자.)

소설의 시작을 이례적으로 시간적 순서로 기술하고 있었다. ‘전라남도 광주군 창동이라는 곳에 삼강문이라는 고대 건물이 있지만 건축은 볼품이 없어 학술연구의 자료가 될 수가 없으며 공업의 표본이 될 수도 없다’는 설명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볼품이 없는’ 300년 전의 고대 건물을 다시 소설의 배경으로 내세운 목적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하였듯이 삼강문은 황제가 정옥이의 금석 같은 의리를 칭송하기 위하여 화강석으로 건축한 고적이다. 이로써 최찬식이 『삼강문』에서 정옥이의 절개를 높이 사며 그것으로부터 정옥이의 사생취의(捨生取義)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양반 이덕경과 그의 딸 난향은 정안동, 정옥이와 의리를 지킨다. 이덕경은 정안동이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알게 된 친구이며 정안동과 의형제를 맺고 그가 과거에 급제한 것을 대신 기뻐한다. 심지어 정안동이 노비신분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안동의 인격을 더욱 칭찬하며 형으로 모시고 그를 도와 신분을 감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끔 도와준다.

난향모: 우리 두 집 사이를 말할 것 같으면 의형제를 믿고 친밀히 지내는데... 우리 난향은 형님의 딸님 정옥이와 동갑이 아니오닛가 난향이는 정옥이보다 하루를 나중 나왔지요. 그 두 아이가 인물인들 어찌 그렇게 같으며 정분인들 어찌 그렇게 좋을가요, 누가 보던지 쌍둥이로 알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칭찬을 하는 바인데 아마 저의끼리 정답게 놀 때에 우리가 이렇게 친절히 지내다가 각각 시집을 갈 것 같으면 서로 만나 보지 못할 터이니 보고 싶어 어찌하느냐 우리 시집을 갈지라도 한 사람에게로 같이 가서 백년을 같이 하자 이같이 언약을 하였나 봅니다. 그런데 형님 딸님 정옥이는 일전에 어진 백필을 맞아서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이왕 저의끼리 언약 한바는 모두 허사가 되었으므로 제 마음에는 분한 생각이 있던게야오 그러나 여자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슴 속에만 넣어두고 참아 발표는 못하다 제가 병이 위중하자 일전에야 하는 말이 세상이 이렇소구려

정옥 모: 우리 정옥이 년도 초례하든 날 난향이와 상약한 일이 있으니까 시집을 가지못하겠다고 방색을 하는 것을 저의 아버지는 그런 줄 모르고 호령을 하셨지 (『삼강문』 113-114면)

위의 인용문은 난향 어머니와 정옥 어머니의 대화이다. 난향과 정옥은 나이도 같고 외모도 비슷하여 마치 쌍둥이 같았다. 두 사람은 정분이 두터워 시집을 가거든 헤어지기 싫어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자고 약속한다. 그래서 정옥은 기동과의 혼인을 거부한 적도 있고 난향은 정옥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혼자 시집을 가는 것을 알고 병이 나기도 하였다. 정옥이 남긴 유서에서 난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 유서에는 ‘죄를 지은 대붕이만 처분할 것이며 그의 부모와 작은 오빠(소봉)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후처로 이덕경의 딸 난향을 취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정옥이는 비록 죽었지만 난향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삼강문』은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몰락한 양반과 성장한 노비의 역전된 관계를 탁월하게 그려냈다.<sup>87)</sup> 하지만 후반부는 지나친 여성 절개를 강조했으며 최찬식의 다른 작품보다 남녀사이의 애절한 사랑을 그려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sup>88)</sup> 최찬식은 노주 양가의 얽히고

87) 위의 글, 2005, 117면.

88) “반노 딸의 열행 서사는 20세기 초에 이르러 고전소설과 신소설에 수용되면서 다양한 서사의 형태로 향유되었지만 양반 남성을 위한 천민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이 부정되고 천민 여성과 양반 남성의 애정이 성취되는 고전소설 『김학공전』이 가장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친 관계를 의리로 풀이하려고 하였으며 ‘삼강문’이라는 건물을 내세워 의리를 강조하고 있다.

『삼강문』과 같이 『능라도』는 대동강 능라도라는 특정 공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시작한다. 『능라도』는 홍도영과 홍춘식이라는 의좋은 남매가 등장한다. 다섯 살 되던 해에 홍도영은 본래 평양부이속(吏屬)이었던 도영의 부모를 여의었다. 도영의 부모는 아들 춘식을 낳은 뒤, 딸아이를 더 낳아 그를 이용해 “화류계에 출각 시켜 서울 대관의 별실이나 되면 은행에 주금(株金)을 놓은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sup>89)</sup>고 생각한다. 하지만 춘식은 부모와 달리 자신을 헌신하며 동생 도영이를 공부시킨다.

궁핍한 생활을 극복하고자 대동강으로 사냥을 떠난 춘식은 능라도 숲속에서 우연히 동생이 형을 죽이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에 분노한 춘식은 그 동생을 쏘아 죽인다. 알고 보니 죽을 뻔한 사람은 남승지의 아들 남정린이었고 그 동생은 바로 그의 서모가 데려온 아들 즉, 동생 남정용이었다. 남승지가 죽은 뒤 재산을 탐내던 서모와 남정용은 남정린을 죽이려고 능라도로 유인하였던 것이다. 한순간의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춘식은 사람을 죽이게 되자 도망쳐버리고, 남정린이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게 된다. 하지만 신문기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춘식은 재판소에 가서 자현(自現)한다.

“오, 너는 생명을 살해한 자인즉 의당히 사형에 처할 것이로되, 네가 정룡이를 살해한 이유는 악한 뜻으로 그리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부득이 행사한 것인즉 이는 정방행위일뿐 아니요, 또는 정린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기고 정직한 마음으로 네 몸이 자현을 하였은즉 이는 가히 의리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니, 그런고로 너를 대단히 가상히 여겨 형법 제 37조를 참고하여 특별히 형벌을 면제한다” (『한국 신소설전집』 5, 113-114면)

판사는 조사를 거쳐 남정린의 억울함을 헤아리고, 춘식의 행위 또한 남정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그들의 죄를 면해준다. 이러한 정당방위는 『신

---

서혜은, 「소설 속 叛奴딸의 烈行서사의 향유 방식과 그 의식」, 『우리말글』 57, 우리말글학회, 2013, 29면.

89) 『한국 신소설 전집』 5, 을유문화사, 2011, 91면.

이하, 『능라도』, 『춘몽』은 『한국 신소설 전집』을 인용한 것임으로 본문에서(권수, 면수)로 표기한다.

문계』의 「현행법전 해석 법률신강화 정당방위 급(及) 긴급(緊急) 상태(狀態)에 취(就)하야」라는 제목으로 해설이 덧붙여진다.

법을 조각(阻却)하는 원인을 법률에 규정(規定)하니 즉(卽) 긴급행위라 운(云)하는 者是也니라 즉 (1)정당 또는 긴급방위 급 (2)긴장상태 또는 피난의 이(二)在者 유하나니 유별(類別)이(而) 설논코져하노라

정의(正義) 정당방위라함은 긴박불정(緊迫不正)의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함에 출(出)하는 가해행위를 운(云)해오니 보통 경우에는 범죄 될 만한 행위의 불법성을 소각(消却)하는 자라 차 정당방위가 성립함에는 우에 조건을 필요하나라. (「정당방위 급(及) 긴급(緊急)상태(狀態)에 취(就)하야」, 『신문계』, 1915.10., 29-30면)

정당방위라 하는 것은 급작스러운 습격이나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다만 정당방위에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정의(正義)에 기반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으로 보면 춘식은 동생이 형을 죽이려는 불의(不義)한 상황을 마주한 뒤, 긴박한 상태에서 피해자 남정린 대신 그의 동생을 죽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춘식의 행위는 정의로움에 입각한 정당방위에 속하며, 또한 스스로 자수까지 하였기에 작가는 춘식이 처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소설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찬식은 법률의 원칙보다 정의의 가치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가능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춘식사와 정린이는 친분이 생겼고 더욱이 춘식은 도영과 도화원에서 만났던 사람이 정린이라는 것을 알고 둘을 정혼 시킨다. 이는 부모의 결정에 따르는 강제적인 정혼이 아니라 도영이도 정린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의 결정이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춘식사와 정린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서모는 하인 귀돌이를 시켜 이웃집 여학생 영자를 죽이고 정린리와 춘식사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운다. 이에 춘식사와 정린이는 동경으로 도망간다. 정린이는 육지로 춘식사는 수로(水路)로 따로 떠났다.

한편 도영이는 정린리와 춘식사를 보내고 난 뒤, 과학지식에 기반한 추리 수사를 통해 범인 색출에 나선다. 김영자의 눈을 사진으로 찍어 그 눈에 맺힌 범인의 형상을 이용해 범인을 찾아내도록 한다. 도영이는 변창기라는 정탐가의 구혼(求婚)을 거절하여 수난을 경험하다가 서울로 도망간다. 서울에서 다과점을 경영하는 김

운경의 도움으로 간호부 생활을 하던 중 도영이는 동경으로 남정린을 찾으러 간다. 동경으로 떠난 정린이는 도영이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도영이의 이모의 거짓 답신을 받고 도영이 변심했다고 생각하여 자살을 시도한다. 이때 일본 기생 화자가 그를 구해주었고 나중에 이들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렇듯 『능라도』 후반부에서는 도영, 남정린, 화자 사이의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다. 『능라도』의 첫 대목은 도화원에서 도영이와 남정린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다. 이는 도영과 남정린의 첫 만남이었고 도영이가 한시 한 수를 짓자 남정린은 답시로 서로에 대해 호감을 표하게 된다.

(도영) 연광정의 낙화비 유견홍도우후비라, 임영성서춘이만하니 이화불발대수 귀오.

(정린) 두견화진앵화비 유유홍도일수비라, 막언성서춘이만하니 유화불발대오귀 라 (『한국 신소설전집』 5, 90면)

위에 인용문에서 도화(桃花)는 도영(桃英)이를 지칭하며, 도영이가 늦게 핀 도화를 보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냐고 말을 하자 남정린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앞으로의 ‘사랑’을 암시한다. 『능라도』의 부제는 『경중영(鏡中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鏡)은 거울이며, 남정린이 애정의 신표(信標)로 도영이에게 준 손거울이다. 그 거울은 특별히 북경에서 주문한 것으로, 각각 도영과 정린을 상징하는 도화와 기린(麒麟)그림이 그려져 있는바, 소설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징표로서 설정된 것이다.<sup>90)</sup> 『추월색』에서 정임과 영창이 상대에게 느끼는 그리움과 애틀함을 띠는 것처럼<sup>91)</sup> 『능라도』에서 한시를 짓고 신표를 주는 등 행동은 연애감정을 띠고 있는 것이다. 또한 표지에 ‘보경위수명(寶鏡僞誰明)’, ‘도영여사(桃英女史)’라는 문구가 붙어있는데 이 또한 의미심장하다. 도영이 남정린과의 사랑을 확인한 후 거울을 받은 것은, 이후 남정린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자 이를 해명해줄 것이라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도영이는 남정린의 누명을 벗겨주고 서울로 가서 간호부 일을 하면서 돈을 저축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정린이 준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늦기 전에 남정린을 찾으러 가야겠다고 결심한다.

90) 조경덕, 「최찬식 『능라도』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46, 국제어문학회, 2009, 300면.

91) 최진옥, 「신소설에 나타난 법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157면.

다른 한편 화자는 ‘동경에 유명한 기생’으로 자살하려는 남정린을 구해주고, 학비를 대신 내어주며 공부를 시킨다. 이 설정은 지금까지 연구자에 의해 일본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라 논의되어 왔으며 나아가 최찬식의 친일성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해 주는 논거로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거로만 해석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장면이 『능라도』 이후의 작품 『춘몽』에서 나타난다. 『춘몽』에서 옥선은 동경 유학을 떠나고, 우연히 공원에서 고학을 하던 유학생 안익상의 자살 시도를 목격한다. 옥선은 그를 구한 뒤 유학비용을 대주며 공부를 시키는데, 이러한 설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찬식이 화자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화자를 긍정적으로 그린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화자의 국적을 떠나 기생이라는 신분에 주목하면 기생인 화자는 남자의 정실부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으며 마침 정린을 구해주고 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 그와 결혼하고자 한다. 여기서 화자는 도영이 못지않은 적극적인 인물형으로 주목될 수 있다. 도영의 부모가 도영을 기생으로 만들어 남의 집 부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도영과 화자는 매우 유사한 인물로 해석된다. 이렇게 『능라도』에서 일부이처의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당신의 현숙한 덕은 가히 군자의 좋은 짝이 될 만하니, 나는 당신을 사모하여 하례하며 정린씨를 위하여 축하하오. 나는 비록 정린씨와 정중한 언약이 있으나 당신도 역시 정린씨와 결약한 바이 있다 하오니 당신과 나의 사이에도 아마 천생 인연이 중한가 보오. 그러나 나는 정린씨가 버리지 않기는 바라는 바이나, 나로 하여금 당신과 정린씨 간에 혹시 정의가 서어하여질까 두려워 하옵나이다.” 하며 친절히 말하는데 화자는 웃는 얼굴로 단정히 대답하는 말이, “당신이 것처럼 말씀 하시니 듣기에 너무 황송하외다. 그러지 아니하여도 내가 당신 말씀을 듣고 어찌하면서로 만나서 아황 여영같이 친형제처럼 지내볼꼬 하였더니, 천우신조하여 오늘날 당신을 만난 것은 이 사람의 뜻대로 되었나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라 하오리까. 폐일언하고 당신의 나이 나보다 많은즉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형님으로 섬길 터이오니, 형님은 나를 더러이 여기지 마시고 아우로 알아주시기를 바라오며, 겸하여 차후부터 정의가 친밀하게 지내기를 바라오니 존의에 어떠하실는지 가부를 말씀하여 주시오.”(『한국 신소설전집』 5, 195면)

도영이와 화자는 의형제를 맺고 동시에 정린에게 시집가는 신식 결혼식을 하게 된다. 이로써 도영이는 그간의 억울함을 풀게 되고, 화자는 소원을 이루게 된다.

최찬식은 도영과 정린, 화자와 정린 사이를 각각 아름다운 언약, 아름다운 인연으로 그리고 있다. 정린은 도영과의 오해를 해소함으로 그와의 혼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화자는 그를 지극히 간호하였고 마찬가지로 혼약을 맺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린은 두 여자에게 다 의리를 지켜야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최찬식은 두 여자가 서로 다투고, 별다른 갈등 없이 의자매를 맺은 뒤, 한 남자를 섬기려고 설정함으로써 ‘의리’의 문제를 표면에 나타낸 것이다.

1917년 5월 최찬식은 「반도시론」에 단편소설 「중소리」를 발표하였다. 「중소리」에서 청년구락부원 이문상은 자선음악회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여학생 안영자를 마음에 두고 청혼을 한다. 그리하여 이문상은 선친(先親)이 정해준 윤진사의 딸 윤옥선과의 혼약을 파괴하고 안영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이에 이유 없이 파혼당한 윤옥선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부모님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출가(出家)한다.

대저 여자의 일신을 한번 남자와 언약한 이상에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두 번 허락하는 것이, 도저히 여자의 절개라 할 수 없으니 여자가 되어 어찌 여자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 하오릿가. 이문상의 박정한 행동은 장황히 말씀할 필요가 없거니와 옥선의 일신으로 말하면 다만 성례만 아니하였다할 뿐이지, 오늘까지 확실한 이씨의 집사람으로 인정하던 터인즉, 이문상이는 비록 나를 저버리나, 나는 결코 실정하는 여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니이다. 지금 세상의 박약한 인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문상이가 무정한 사람이라 할 것도 아니고, 윤옥선이가 박명한 여자라고 할 것도 없으나 남자는 신의가 없고 여자는 절개를 지키지 아니하여 이러한 일이 이 세상의 인상(印像)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인류는 검수가 되고 말지 이 어찌 사람으로서 금수가 되고자 하오릿가 (「중소리」, 『반도시론』, 1917.5., 81면)

위 편지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정혼 한 옥선이는 자신을 이씨 집안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유 없이 파혼을 당하자 이문상을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은 그와 다르며 절개를 지키겠다고 결심한다. 한편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잠시, 이문상의 모친이 잦은 며느리의 바깥출입을 눈여겨보고 있을 즈음에 마침 며느리에게로 오는 음란한 편지를 발견하게 된다. 편지를 보고 며느리의 행실이 부정하다 여겨 그들을 이혼시키며 이 모든 것의 변은 문상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꾸짖는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나자 문상은 어머니의

말에 따라 옥선이를 찾아가 못다 한 인연을 이어가려고 한다. 중이 된 옥선이는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며 이문상을 거절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작품의 끝에 최찬식의 평가가 덧붙여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문상은 부모의 명령을 위반한 자, 아녀자에게 신의를 잃은 자, 박정한 이문상은 홀로 쓸쓸히 안심사(安心寺) 동구 안개 속에 사라졌다.”<sup>92)</sup> 당시 사회에서 조혼 이야기는 늘 중요한 논의거리였다. 대부분 소설에는 주로 조혼한 지식인 남성중심의 입장을 대변하여 많은 폐단을 밝히고 있지만 조혼을 당하는 여성의 입장을 비춰보는 작품은 많지 않았기에 이 작품은 파혼을 당한 여성의 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혼한 여성들은 고된 시집살이, 애정 없는 남편과의 생활도 물론 힘들었지만 파혼을 당하면 재가(再嫁)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당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최찬식은 여성들이 파혼을 당하게 되면 자살 내지 출가(出家)하는 비극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부모의 결정에 따르고 여성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결혼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찬식이 1918년 8월 『반도시론』에 쓴 기사 「자유(自由)의 가(嫁)」에서도 그의 결혼관을 엿볼 수 있다.

구주(歐洲)의 신평조가 불어옴으로부터 서양사람 흉내내기에 병든 조선은 여자들까지도 저렇게저서, 가장 문명공기나 흡수할 듯이 자유결혼문제를 주장하여, 특하면 부모의 압제(壓制)로 결혼함이 불가하니, 신랑신부가 서로 보고, 상합한 후에 허혼함이 가히니하여, 고대의 량풍선속(良風善俗)만 파괴할뿐이오, 정말 서양사람 같이 남녀가 자유로 구혼하되, 인격과 학문이 상당하고, 또한 심지가 상합한 후에 결혼하여, 백년의 벗되는 내외가 평화한 가정을 조직하고 원만한 행복을 누려서, 자유결혼의 효과가 완전무결(完全無缺)한 실지를 여행하는 자는, 웃노라 하나를 구경치못하였더니니가, 4, 5년 전에 비로소 용감과단 이 세상 상에 희유한 여자 한 사람을 구경하였노라. (「자유(自由)의 가(嫁)」, 『반도시론』, 1918.8., 76면)

주목을 요하는 것은 최찬식은 조선인이 맹목적으로 자유결혼을 주장하는 것에 반감을 품으며 부모가 정혼해주는 것은 고대의 량풍선속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아직도 자유결혼의 효과를 본 사람이 없음을 강조하며 이를 풍자하는 태도가 보인다.

기사 속 동대문 안에 사는 여자는 여자고등학교 4학년생이며 군벌가의 자손이

92) 최찬식, 「종소리」, 『신문계』, 1917.5., 85면.

라 집안 재산도 넉넉하였다. 그는 정혼 한 남자를 직접 찾아가 보았지만 남자가 탐탁지 않아 파혼을 한다. 그 뒤 매파가 극빈(極貧)한 청년을 소개해주었는데 여자는 그 청년이 연로하신 부모를 봉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효성에 감동되어 청혼한다. 최찬식은 기사의 끝부분에 ‘그 여자의 처사가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알 수 없으나, 근래 여자가 주장하는바 자유결혼, 남녀동권의 목적을 비로소 이 여자가 달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여자가 정혼 한 남자와 의기상합 하지 않아 파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찬식이 여자가 능동적인 입장이 되는 자유결혼은 반대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정혼해주는 것을 량풍선속이라고 여기는 전통적인 사상을 고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찬식이 이러한 ‘완고’한 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의리’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최찬식은 조혼의 폐단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자유결혼을 제창하지는 않았고 정혼 한 남녀가 마침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지만 정혼 한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 부모지명을 버린다면 그것은 정혼 한 여자에 대해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맹목적으로 자유결혼을 하겠다고 주장하여 남녀 간의 신의를 버리게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최찬식은 당사자 모르는 부모 사이의 정혼 풍습에는 반대하지만, 서로 정이 들고 이를 통해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에 이르는 것이 최선의 결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남녀가 정혼한 사이라면, 남녀 모두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능라도』는 이와 같은 작가의 윤리관, 결혼관이 내포된 작품이기 때문에, 일부이치라는 모순적 행위를 ‘의리’라는 가치로 바꾸어 설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삼강문』에서는 특히 여성의 “열(烈)”, 바꾸어 말하면 ‘남편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최찬식의 ‘의리’를 중시하는 윤리관과 이어진다. 이는 ‘삼강문’이라는 고적이 배경으로 설정된 부분과 관련하여 작가가 내세우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더욱 잘 부각된다. 최찬식은 소설 창작을 시작하면서부터 의도적으로 공간 설정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또한 기행문에서 자신의 여행 경험을 기술했던 방식을 다시 응용하여 소설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능라도』에서 나타난 공간 설정과 이동 장면을 통해 가장 성공적으로 발견된다. 『능라도』는 대동강 능라도, 경성, 일본, 남양군도 등 다양한 지리적 공간의 소설적 형상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1920년대 비허구적 글쓰기의 전환

### 4.1. 만주 공간에 대한 관심과 마적의 형성화

최찬식 소설의 배경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다만 초기 소설에서 공간이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유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후기에는 좀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예컨대 자본축적, 도피, 피난 등과 같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만주라는 해외 무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신소설에서 만주를 배경으로 하는 것은 1910년 『대한민보』에 연재된 『소금강』<sup>93)</sup> 이외에는 최찬식의 작품이 유일하다. 흥미로운 것은 최찬식이 1920년대에도 만주에서 마적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만주 생활을 체험한 최서해와는 다른 경향을 띠는 점이다.

당시 역사 현실을 보면 조선인이 만주로 이주하는 경향은 1905년 이전부터 있었지만 대체로 경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10년 일본에 의해 조선이 강점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조선인의 만주 이주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만주에 있는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것을 빌미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한다.<sup>94)</sup> 그러므로 일본은 만주를 희망의 땅으로 그려 조선인들이 많이 가도록 선전하였다.

마적은 중국 동북에 있는 드넓은 들판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토비(土匪)를 말한다. 청나라 관문서에는 중국 동북의 토비(土匪)를 마적(馬賊)이라고 불렀으며, 민간에서는 후쯔(胡子), 홍후쯔(紅胡子)라고 불렀다. 마적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자연재해, 또는 폭정에 의해 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어 마적 단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둘째, 동북지역은 갑오전쟁, 8국연합군침화전쟁(八國聯軍侵華戰爭), 노일전쟁 등의 외세 침략이 비일비재했으므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어 삼림으로 들어가 마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동북지역의 삼림면적이 전체면적의 32%를 차지한다. 셋째, 동북지역은 원래

93) 천춘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박사학위 논문, 2014, 25면.

94) 박강, 「1920년대 마적과 한인, 그리고 아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 54면.

물산이 풍부하여 중국 각지에서 온 유랑민이 많았으며 조선, 러시아의 변경지대이므로 외국인 이주, 부랑자도 많았기 때문이다. 마적은 동북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의 영향으로 주로 길림 동부 녕고탑, 연길, 훈춘, 일면파, 모아산 그리고 송화강유역, 장백산일대에 많이 집거해 있었다.<sup>95)</sup>

마적은 비록 민가를 습격하여 약탈하는 도적떼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도적과 달리 강자를 탄압하고 약자를 도와주며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의협(義俠)적인 존재이다. 마적은 정부와 대립하는 성격을 가지지만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민족적 위기에 직면하자 마적은 항일무장부대를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9.18 사변 이후로 항일무장투쟁에 앞장서는 마적이 있는가 하면 친일적인 마적도 있다. 따라서 마적은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마적이 등장한 소설로 『백련화(白蓮花)』가 있다. 『백련화』는 을축년(1925년) 대홍수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 전반부는 홍수로 인한 조선의 참상을 그렸고 후반부는 홍수 때문에 가족을 잃은 김길배와 이중근이 만주로 가기로 한다. 그들은 경성에서 경의선 급행열차를 타고 만주에 도착한다.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김길배와 이중근은 안동현에서부터 봉천과 장춘을 지나 길림까지 이르도록 무슨 물건을 본국으로 수입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까 하고 여러 방면으로 탐문을 하였지만 좋은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김길배와 이중근은 만주에서 아편 장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악목현(柞木縣)등지에 가서 아편을 사가지고 봉천까지 오는 동안에 순경에게 들키지만 아니하면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다섯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는다. 큰돈을 벌기 위해 김길배와 이중근은 위험을 무릅 쓰고 악목현으로 향한다. 1925년 당시 만주에서는 아편 재배가 불법이다.<sup>96)</sup> 더욱이 아편 밀수, 밀매는 더 큰 처벌이 뒤따른다. 당시 만주에는 아편을 재배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자주 마적의 습격을 받아 고난을 겪게 되자 짧은 시간에 많은 수입이 되는 것은 아편 밀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김길배와 이중근도 결국은 아편 밀수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만주에서 먹고살기 어렵기에 생존하기 위해 위법행위도 마다하지 않음을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95) 高志剛, 「民國時期土匪群体透析」,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李延哲, 高洋, 「近代東北土匪의 嬗變」, 『赤峰學院學報』 31, 漢文哲學社會科學版, 2010.

魏連棟, 「清末至民國中期東北土匪研究」, 哈爾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曹保明 지음, 이종주 옮김, 『마적(土匪)』, 민속원, 2015.

黃昆, 「近十年民國土匪史研究述評」, 淮南師範學院學報 20, 2018.

96) 박단, 「만주국의 아편정책」, 『중국학논총』 8,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994, 93-94면.

과연 길림성 악목현(柁木縣)이라는 곳이 존재했을까? 실제로 악목현이라는 곳은 없었고 다만 액목(額穆)현이라는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액목이라는 이름은 만어(滿語) 아목혜(俄莫惠)에서 기원되었으며 물을 따라 생긴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목혜-악목-액목의 중국어 발음이 비슷하기에 악목현은 현재의 길림성 돈화시 액목현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액목현 현지인의 기술에 의하면 액목현 주위에 삼림이 많아 마적 떼가 많았으며 특산물이 담뱃잎이며 아편 꽃도 재배했다고 한다. 특히 악목현에 아편밀수 하러 갔다가 마적 떼를 만났다는 대목에서 악목현은 현재의 액목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찬식의 생애를 보면 그가 만주에 가본 적은 없지만 최찬식이 이렇게 상세한 지명까지 조사하여 소설 창작을 하였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며 그가 그만큼 만주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반증한다.

악목현으로 가는 도중에 김길배와 이중근은 마적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자 김길배는 ‘위디꺼리인(나는 고려인)’이라고 2달간 만주에서 배운 중국어로 마적과 대화하려 한다. 이는 『추월색』에서 일본으로 유학 간 정임은 원래 총명과인(聰明過人)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는 다소 과장되어 현실감이 떨어지고 오히려 만주에서 2달간 머무르면서 배운 중국어 ‘나는 고려인이다’라는 중국어 표현은 이러한 설정이 더 현실적으로 와 닿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실감 나는 표현으로 인해 독자들은 흥미를 느꼈을 것이다.

한편 김길배의 아내 이씨부인은 수재 당시 아들을 업은 채로 물결에 떠내려간다. 이씨부인은 강화앞바다에서 중국인 해적선대에 의해 구조된다. 해적은 이씨부인을 겁탈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이씨부인이 “아야 아야” 하며 고통을 호소하자 해적도 ‘아야? 아야?’하며 이씨부인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듣고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시킨다. 이씨부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간호 일을 하는 동포 이길용을 알게 된다. 이국타향에서 동포를 만나니 엄청 반가움에 이길용을 친동생처럼 생각하며 믿었다. 하지만 이길용은 이씨부인을 고국에 보내준다는 핑계로 장춘에 있는 조선인 기생집 고려현에 500원을 받고 팔아버린다. 그곳은 ‘천하 각국사람에게 매창매소를 하는 악마굴이다.’ 고려현의 주인은 조선여자이며 험상궂은 면상에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이었다. 주인은 다짜고짜 이씨부인더러 손님을 접대하라고 하며 이씨부인이 반항을 하자 구타하며 온갖 욕을 퍼부었다. 이씨부인의 수난에서 알 수 있듯 현지인들보다 이길용과 같은 동포 사이에 기인편재(欺人騙財) 하는 인

물을 악인으로 설정하였다.

『백련화』 말미에 “김길배 내외는 즉시 고향을 돌아와서 그 고독한 노모를 위로코자 하는 생각이 간절하나 그때 만주일경에는 곽송령(郭松齡)<sup>97)</sup>의 전쟁이 맹렬하여 봉천을 통과하기 극난이 위협할 뿐만 안이다.”(84면)라고 한다. 만주일경에서 곽송령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1925년 곽송령의 반봉(反奉)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곽송령은 1920년대 동북 봉천군벌의 군인이다. 곽송령은 손중산의 영향을 받아 동북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장작림의 매국적 행동에 크게 노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작가는 실존 인물 곽송령의 반봉 전쟁을 언급함으로써 당시 시대상을 톺아내 더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작품에 돌아와서 만주에 사는 조선인 한창해를 주목해보자. 그는 동포 사랑이 지극한 사람으로 김길배와 이씨부인을 재회하게 도와준 조력자이다.

한창해는 “본래 애국지사요 義士요, 애국자로서 불쌍한 동포를 구제하기 위하여 만주일대를 편답하다가 마침내 표류하는 동포를 구원할 목적으로 길림성동편

---

97) 곽송령은 1883년 심양동교어초채(沈陽東郊漁樵寨)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글을 배우게 된다. 그는 아버지가 꾸린 사숙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등 유교경전을 탐독하였다. 1903년에 그의 아버지는 곽송령을 시내에 있는 서원에 보낸다. 이 서원은 동한(董漢)이라는 유학자가 개설한 것이며 곽송령은 여기에 애국계몽 교육을 받게 된다. 1905년, 봉천육군소학당에 들어가 공부하였으며 군인으로 된다. 1907년에 속성 무관학당을 수석으로 졸업하여 북양군 제3진 견습생으로 간다.

봉천군벌은 만주 지역에서 성립된 북양군벌의 한 파벌이다. 봉천군벌의 원수(元帥)는 장작림(張作霖)이다. 그는 마적으로 득세하였으며 일본 육군의 후원을 받았다. 곽송령은 1910년에 사천으로 가서 동맹회(同盟會)에 참가하여 손중산(孫中山)과 친근하게 지낸다. 그는 손중산의 민주개혁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봉천으로 돌아가 동북을 개조하고 군벌의 폭정을 청산하려고 생각하였다. 1918년에 호법운동(護法運動)이 실패하자 곽송령은 동북으로 돌아와서 봉군(奉軍)에 가입한다. 곽송령은 장작림의 중용(重用)을 받아 봉천군벌의 실질적인 군대 대권을 장악하게 된다. 장작림은 군벌을 통치하여 중국을 통일시키려는 야망으로 연속 3차례의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으로 동북 백성들이 도탄 속에 빠지게 되었으며 전쟁에 의한 손해가 막대하였다. 그러자 곽송령은 전쟁을 반대하였지만 야심이 가득한 장작림은 기어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로써 곽송령과 장작림의 갈등은 심해졌으며 더욱이 장작림이 일본과 매국적 밀약을 맺고 일본의 원조를 받아 동북을 팔아먹으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곽송령은 장작림을 뒤엎으려고 1925년 11월 23일, 곽송령은 반봉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楊善玲, 「郭松齡反奉起因及失敗結局評析」,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4.

楊雪, 「1925年郭松齡事變與日本的援張政策再抉擇」,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백 여리쯤 되는 곳에 넓은 토지를 개척하고 많은 동포를 수용하여 조선인의 촌락을 새로 만들어 동리 이름을 신흥촌이라고 하고 그곳에 거주하여 농업을 힘쓰는 중에 흑룡강 일대에 기근이 심하여 수천동포의 생명이 위경에 빠졌다는 보도를 듣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만주 각처로 돌아다니며 기부금모집을 하는 중에 마침내 장춘에 도착하여 며칠간 두류하는 터인데 이때 고려현 청루에서 변사가 났다고 들었으며 즉시 오백 원을 내어주고 이씨부인 모자를 구해준다.”(『백련화』 82면)

제시된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창해는 만주일대의 동포를 구원하려고 토지도 개척하고 조선인 촌락을 만들기도 하며 공익사업에 열중하는 의사(義士)이다. 한창해에 의해 이산된 가족이 재회할 수 있었다. 또한 김길배, 이중근이 본의(本意) 아니게 가지게 된 적십자가 그려져 있는 돈 2만원은 한창해가 만주 각처에서 모은 기부금이었다. 김길배는 한창해에게 선뜻 돈을 돌려주자, 김길배도 가족을 찾게 되는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창해라는 인물이 가상적인 인물이었다고 논의하고, 이에 따라 이 인물이 가진 정치적인 이념 또한 오해되어 왔던 바 있다. 그러나 필자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한창해는 실존했던 인물이고 나아가 독립활동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에 이러한 점을 함께 놓고 최찬식을 살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한창해<sup>98)</sup> 본명은 한군명, 1879년에 함북 경성에서 태어났고 일찍이

98) 1919년부터 1921년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니콜리스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대한국민회의장서리 및 회장, 노동재무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의용군편성, 무장독립투쟁, 3.1 독립선언 기념 시위 등을 주도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니콜리스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니콜리스크조선인회 서기를 역임하였다. 1919년 1월경 니리스크에서 러시아노동정부 집행관 중 한 명인 아우크센체프로부터 파리강화회의대표 파견을 제의받고 최재형(崔才亨) 등과 논의하여 재러조선인대표로 2명의 위원을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같은 해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같은 달 28일 블라디보스토크 한민학교(韓民學校)에서 최재형, 김철훈(金喆勳) 등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 임원들과 회합하여 임시정부의 승인문제를 논의하고 임시정부의 러시아 이전을 계획하였다. 1919년 12월 대한국민의회 임시총회에서 문창범(文昌範)의 뒤를 이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20년 2월 대한국민의회 의장서리로 선출되어 의용군(義勇軍)을 편성하고 3.1 독립선언 기념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1920년 4월 일본군이 시베리아로 출병하여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을 습격하여 한민학교를 불태우고 니콜리스크에서 대한국민의회 회장 최재형 등 90여 명을 사살하자, 그는 전 러시아 육군소장 출신 김인수(金仁洙), 한 안드레이와 함께 무루나이구베스케에서 노동자 등을 결집했다. 9월에는 블라고베시첸스크에서 대한국민의회 노동재무부장으로 문창범 등과 함께 무기와 탄약 등을 입수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 국가보훈처, 한창해, 2018년 8월 10일 최종 검색.

부모를 따라 러시아로 이주해갔으며 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니콜리스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10월 평의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같은 해 겨울 만주 지역 독립군의 노령 이주문제가 논의되자, 문창범, 오하묵(吳夏默) 등과 하바로프스크 소재 제2군단과 교섭을 진행하여 1921년 1월부터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이 이만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2월에는 하바로프스크에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밀정 처단, 그리고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주로 러시아에서 활동하였으며 국경지대인 만주에서도 활동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설에서도 한창해는 ‘나이 사십 여세쯤 되어 보이고 용모가 매우 후덕한 조선동포이다.’라고 서술하였으며 애국지사이고 동포를 구원하는 것을 보아 독립유공자 한창해의 이미지에 걸맞다. 한창해가 만주에서 공익사업을 하는 인물로 부각되고 돈에 적십자 표시가 박혀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래의 인용을 통해 살펴보겠다.

조선에서는 1905년 10월 27일에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반포하였으며 당시 적십자사의 재정은 대부분 왕실의 은사금으로 충당되었고 ‘빈곤한 상병자와 천재 및 사변 시 그 상병자를 구호’하는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4년 후 1909년 7월 23일 일본적십자사에 강제 병합된다. 이로써 일본적십자사조선본부에 의하여 우리 한민족은 적십자운동의 주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객체로 밀려났던 것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8월 망명지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들에 의하여 대한적십자회로 부활하였다. 임시정부는 만주, 러시아 등지에서 일본군과 투쟁하던 독립군의 의료보조기관으로서 전상병의 구호를 위하여 적십자회를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임정 적십자회 주요 사업은 상해 망명지를 위시한 중국 전역, 한국, 러시아, 미국 등지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를 기부받아, 1. 독립군 부상자 치료를 위하여 간호원을 양성하는 일, 2. 실제로 독립투쟁에서 부상을 입은 독립군과 그 가족의 생계를 돕는 일, 3. 적십자병원을 세워 상해 거류 동포들을 진료하는 일 등이었다. 이러한 적십자 활동은 간접적으로 독립군의 군자금 조성에도 큰 몫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 실제로 임정이나 적십자회 지도급 인사의 성향으로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다. 1923년 이후에는 임정 내부에 동란이 일어나자 일제의 중국 침략이 노골화 하여 임정이 이곳저곳 옮기게 되자 적십자 회원모집 운동도 펼 수 없게 되어 피땀으로 쌓아올린 업적이 하나하나 허물어지게 되었다. 대한적십자회는 그 활동무대를 망명지 상해에만 국한하지 않고 조국인 한국에도

동포들과의 연계를 가지면서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한편 적십자활동을 통하여  
입정의 독립운동을 동포들에게 인식시켜 나갔다.<sup>99)</sup>

이렇듯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적십자협회가 일본에 의해 일본적십자사에  
귀속되었지만, 1919년 3.1운동 후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해에서 대한적십자를  
부활시켰다. 1920년대 중국에서 일어난 적십자 활동은 독립운동의 후원역할을 하  
였다. 그러므로 독립운동가 한창해가 만주에서 적십자기부금으로 만주 동포를 구  
원해 준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다. 국내에서는 긍정적으로 독립운동을 내세울  
수 없었으니 최찬식은 의도적으로 만주에 있는 실존 인물을 쓴 것이다.

만주를 배경으로 하는 또 다른 소설 『용정촌(龍井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용정  
촌은 1920년대 만주 조선인 이주민이 가장 많은 곳으로 152,507명에 달한다. 만주  
조선인 이주민은 총 590,355명이며 그중 龍井村, 局子街(延吉), 琿春, 頭道溝만 하  
더라도 이주 조선인 인구는 30여만 명으로 만주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밀집해 있  
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sup>100)</sup> 『용정촌』에서 장봉익과 춘자는 조선에서 선후로 만주  
로 간다. 장봉익은 흑룡강 일 때에서 광산개발, 삼림 경영을 시도해 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는 투신자살하지만 마적에 의해 구조되어 마적단에 가입한다.

춘자는 만주에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 춘자가 만주로 간 장봉익을 수소  
문하던 중 동포인 오장풍을 알게 되었는데 결국 오장풍은 춘자를 중국인에게 팔아  
넘긴다. 그 중국인 집의 하인이 조선인이었는데 춘자가 아무리 빌고 애원을 해도  
도와주지 않다가 돈과 혈당포로 위협을 하니 그제야 도망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  
다. 이렇듯 만주에서의 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며 최찬식은 이를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였다고 본다. 그 후 춘자는 북간도 용정리 조선인소학교에서 교사를 하  
게 된다. 춘자는 동포 자녀의 교육에 힘을 썼으며 용정리에 절세미인 여교사가 있  
다고 소문이 퍼진다. 이 소문을 들은 마적단 두목은 용정리시가를 습격하여 춘자  
를 납치한다. 마적굴에서 춘자와 장봉익은 재회하게 된다. 마적단 두목은 춘자와  
장봉익이 서로 좋아하던 사이임을 눈치채고 부하를 시켜 장봉익을 죽이려고 한다.  
이때 일본군이 습격해온다. 하지만 장봉익은 마적단 두목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적을 수습해서 일본군에 맞서 싸운다.

99) 대한적십자사, 『한국적십자운동100년: 1905~2005』, 대한적십자사, 2006, 52-144면.

100) 박강, 앞의 글, 2016, 56면.

일본군과 교전한 후 장봉익은 마적단을 거느리고 훈춘방면으로 퇴각한다. 지리적 위치로 보면 훈춘은 용정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그로부터 125.7km 떨어졌다. 장봉익은 남은 마적단을 해체하고 춘자를 데리고 훈춘성 밖에 집을 짓고 조선에서 못다 한 과학실험을 재개하게 된다.

훈춘성 밖에서 멀지 아니한 농촌에는 이층양옥 한 채가 한편구석에 외따로 있고 그 지붕위에는 『엔테나』(空中線) 한줄기가 높이 섰는데, 그 근처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전마옥(電魔屋)이라고 부르는 터이니 그 집은 우선 울타리부터 이상하여 남이 보기에는 령성한 철망에 지나지 못하나 그 철망에는 날아다니는 새도 앉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 철망 밖에는 드문드문 목패를 쫓고 그 목패에는 『이 철망근처에 가까이 오지마오』라는 게시를 부쳤다. 그리고 누구던지 그 집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설 때에는 그 집주인 있는 방에 초인종이 울리어 손이 왔다는 통지를 하며 현관 맞은편에는 큼직한 채경이 달렸는데 그 채경에 비추는 그림자가 초인종 밑에 걸린 반조경(反照鏡)에 나타나서 주인은 방안에 앉아서도 누가 왔는지 미리 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람이 현관에 들어선 후에는 한편 문우에 달린 나팔에서 『이리 들어오시오』하는 소리가 나며 문이 스스로 열리는데 그 문을 들어서면 그 안문이 또한 그러하여 그 문단이 인도하는 고로 인도함을 따라 들어가면 자연히 주인 있는 방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만일 도적이 침범할 때에는 『스위치』를 제쳐 지하실로 인도하여 그곳에 가뉘 두고 전기를 사용하면 전신을 운동시킬 못하고 장승같이 섰을 뿐이다. (『용정춘』 71면)

전마옥의 모든 장치는 전기로 작동되며 손님인지 도적인지도 구분이 가능한 지능적인 모습을 보인다. 전마옥에서 그들은 조선에서 실패했던 동력기계 발명을 계속 하여 마침내 성공하였다. 『용정춘』 표지 하단에는 ‘취성(峗醒)’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취성(峗醒)’은 무엇이 무너지고 붕괴되어 마침내 깨우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일본에서 장봉익과 춘자가 함께 공부하면서 과학발명의 꿈을 꾸었지만 조선 땅에서는 이를 실현하지 못했던 것이다. 거듭된 실패로 용정춘에 와서 장봉익은 팔자에도 없는 마적을 해보고 춘자는 성적 위협을 당하였으나, 이들은 마침내 훈춘성 밖의 허허 벌판에서 실험을 거듭 하여 천연전류저장기를 발명하게 된다.

위의 ‘취성(峗醒)’이라는 단어와 같이 되새기면 최찬식은 『용정춘』이라는 작품을 통해 조선인이 만주에서 갖은 억압을 당했지만 발명의 뜻을 버리지 않고 그것의 진리를 깨우치고 성공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음을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찬식의 소설에서 만주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마적이다. 최찬식의 소설에서 마적에 대한 묘사로부터 그의 마적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 왕씨는 상마적 괴수인데 비록 도적질은 하나 사람인즉 글이 문장이요 뜻이 호화하여 훌륭한 풍류남자요, 또 천성이 지극히 인자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았던지 그때로부터 극진히 보호하여 의복 음식과 거처 범백을 모두 자기와 호리가 틀리지 아니하게 대접하며, 글도 같이 짓고, 술도 같이 먹고, 바둑도 같이 두고, 어디를 가도 같이 가니, 자연 지기가 상합하여 하루 이틀 지내는데 (『추월색』 69-70면)

『추월색』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마적에 대한 묘사이다. 마적 왕씨는 인자한 사람이며 김승지 내외를 구해주고 극진히 보호해주는 은인이다. 또한 정임이가 김승지의 며느리인 것을 알고 영창까지 데려와 만나게 한다. 왕씨는 “넓은 포용과 아량으로 의리를 보여 주고 있으며 한 가닥 인간적 정리를 간직한 성격이다.”<sup>101)</sup> 이렇듯 작가는 마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ㄱ)그자들은 비록 도적질은 할지언정 기상이 그리 녹록한 인물들은 아니다. 그자들의 원대한 지기와 쾌활한 의협심은 참으로 대륙성질의 본색인고로 그자들의 성격이 사나울 때는 극도로 사납고 흉악할 때는 극도로 흉악하나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까닭에 다른 사람의 박절한 일을 볼 때에는 어디까지든지 힘을 다하여 동정하고 조그마한 혐의는 원망하는 일이 없이 무엇에든지 용서점이 많으며 만일 불의의 일을 볼 때에는 뜨거운 피가 끊어서 생명을 앗고 나서는 것이 그자들의 특색이다. (『백련화』 62면, 밑줄은 인용자.)

(ㄴ)아, 쾌남자이다. 내가 항상 미워하는 바는 용맹이 없고 겁 많은 놈이다. 그대가 나를 때린 것을 나는 돌이켜 사랑하노라 (『백련화』 63면)

(ㄷ)마적 명소라고 하면 반드시 만주를 연상함과 같이 만주의 마적이라 하는 것은 과연 세계에 유명한 단체이니 그 마적단에 집합된 분자로 말하면 별별 인물이 다 모인단체로서 국가에 득죄한 지사도 있고 세상을 비판하는 실망자도 있어

101) 문흥구, 「최찬식의 『추월색』 연구」, 『돈암어문학』 9, 돈암어문학회, 1997, 120면.

자기 일신이 세상에 용납지 못할자는 모두 이곳에 모이었는데 그중에는 지식과 모략이 과인한 자도 있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 용자도 있으며 그 외에 말 잘하는 자 활 잘 쏘는 자 심지어 옷 잘 짓는자 밥 잘하는자 한 가지 재주는 없는자이 없이 모인 단체인고로 다시 말하자면 영웅호걸의 집단체라고 할 만한데 그자들이 비록 도적질은 하나 불의의 일은 결단코 아니하며 불쌍한 사람 구제하기를 자기의 자신을 사랑하는 듯하며 그 단체의 가장 엄숙한 규칙은 남의 여자를 겁탈하는 것이 사형에 처하는 중죄이라 그런 고로 그 단체가 지나가는 곳에 약자와 부녀는 추호도 침범치 안이한다. (『용정춘』 56면, 밑줄은 인용자.)

(ㄷ)이와 같이 유명한 단체가 만주 천지에 수가 없이 많은 중에 지금 룡정리를 습격한 마적단은 이름을 호룡대라하는 큰 단체로서 총원이 이천오백명이오 마필과 무기가 심히 정밀하여 마적단 중에는 가장 유력한 단체인데 그러한 단체를 통솔한 수령은 통령에 백호장군 부령에 한 도회지를 습격할 때에는 신출귀몰한 계획을 사용하여 여합부절히 성공함이 과연 어느 나라 군대의 사령장관이나 다름없다. 그 단체 이름이 백호대이던 것을 흑룡장군이라는 조선사람이 부령이 된 후로부터 이름을 호룡대라고 하였다. (『용정춘』 57면, 밑줄은 인용자.)

(ㄹ)그는 비록 마적단의 일부분은 되었으나 조선동포를 위하여서는 어디까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며 조선인의 촌락은 극력보호하고 추호도 침범치 아니할뿐 더러 동포의 재난을 구제하기에 전력을 다함으로 그의 애호함을 힘입어 쇠잔한 생명을 보전한 동포도 적지 아니하다. (『용정춘』 62면)

제시된 인용문(ㄱ), (ㄴ), (ㄷ), (ㄷ)에서 알 수 있듯 최찬식은 마적에 대해 우호(友好)적이다. 그의 묘사로 보면 마적단은 의협심(義俠心)이 있고 원칙이 있는 양산호한(梁山好漢)이다. 그들은 모두 제 나름대로의 장기가 있고 의리를 중요시하며 동정심이 강한 단체이다. 협(俠)이라는 것은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의미이다. 마적 무리는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조직 단체이다.<sup>102)</sup> (ㄹ)에서 마적이 된 장봉익은 오히려 만주에서 힘들게 사는 조선 동포를 보호해준다.

더욱 불쌍한 동포들이 정든 고향을 이별하고 처자의 손목을 이끌고 산설고물

102) 曹保明 앞의 책, 2015, 15-19면.

선 거친 들에 와서 외국사람의 학대를 받으며 가래와 흠이로 벗을 삼아 모진 바람과 싸움을 하면서 피와 땀을 흘리며 생(生)이라는 것을 유지하라고 천신만고를 무릅쓰고 악전고투를 하는 참상은 참아 눈으로 볼 수 없을 때에 알지 못할 불길이 가슴에 타오르고 뜨거운 눈물이 비오듯하며 “아, 아 유유한 창천아 저러한 인생을 왜 엿느냐 천리는 과연 무심한 것이다. 세상일이 어찌하여 저렇듯이 고르지 못하던 말이나, 아아 참혹하고 불쌍한 저 동포들을 생각하는자-누구이며 보호하는 자 누구일까”하는 동정의 한탄이 새삼 솟아 어찌 하면 그들을 만분지일이라도 구제하여 볼까 (『용정춘』 59면)

장봉익은 만주라는 이국 타향에서 불쌍한 우리 동포는 수난을 당하고 있으며 산 설고 물선 만주에서 중국인 학대를 받으며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그 아무도 우리 동포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으며 더욱이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은 이미 마적단에 가입하였으니 무장으로 조선 동포를 보호해주려는 마음을 먹게 된다. 『용정춘』의 표지를 보면 마적 모양을 한 남자가 여자를 안고 말을 탔으며 그 옆에는 마적 두 명이 앞뒤로 망을 보며 어디론가 공격을 개시하려는 모습이다. 이는 장봉익이 도망가려는 마적을 수습해서 부대로 만들어 일본군에 맞서 싸우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작가가 조선에서는 가능하지 못한 조선인에 대한 구제와 호위를, 해외 무대에서 마적이라는 신분을 통하여 가능하게 한 설정이다.

당시 시대배경으로 보거나 또는 신문 기사를 보아도 마적은 이주 조선인을 괴롭히는 두려운 이미지였는데 이것은 일본 언론 아래에 왜곡된 마적의 형상이었다. 최찬식은 왜곡된 마적의 형상을 바로 잡고 소설을 통해 마적의 의협, 의리를 강조하고 있다. 즉 최찬식은 마적이라는 것은 시국이 어지러워 심한 핍박을 받아 오갈데 없게 되어 의기상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로서 그들의 의협과 의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최찬식이 마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신앙 의리(義理)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당시 조선에서 일본과 맞서는 인물을 형상화할 수 없으므로 만주라는 공간에서 마적을 내세운 것이다.

이 시기에 와서 최찬식의 소설 속 공간은 초기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루어지는데, 예컨대 ‘악목’, ‘용정’, ‘훈춘’, ‘장춘’ 등 명확한 지명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마적과 같은 실존단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최찬식은 현실에 더욱 착안점을 두고 글쓰기를 하였다. 이는 최찬식이 기자를 그만둔 것과는 관련

이 있다고 본다.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기자로서의 글쓰기를 하였다면 기자를 그만둔 이후로는 좀 더 자유로운 작가로서의 글쓰기를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 4.2. 실존 인물을 다루는 새로운 글쓰기

최찬식은 후기 창작에서 『강명화전』, 『이순신실기』, 『동서위인소년시대』, 『홍차기 애화: 출천지효』 등 인물 전기를 쓰는 데 집중하였다. 강명화라는 여성은 당시 조선의 기생이었고 이순신 또한 역사인물이며 홍차기도 조선의 유명한 효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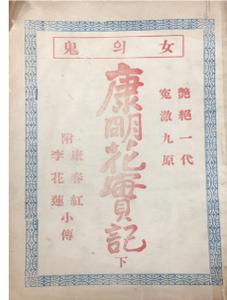
『강명화전』은 당시 실존 인물 강명화라는 기생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다. 경성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인 강명화와 대구의 대부호 장길상의 아들 장병천은 서로 사랑하였지만 신분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사(情死)한다. 이는 당시 『동아일보』에 「강명화의 자살 내막은 매우 복잡」, 「꽃 같은 몸이 생명을 끊기까지」이라는 기사가 발표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이 실화를 바탕으로 기사<sup>103)</sup>, 소설<sup>104)</sup>, 연극<sup>105)</sup>, 노래<sup>106)</sup>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창작되었다.<sup>107)</sup> 이로부터 당시 지식

- 
- 103) 「강명화의 자살 내막은 매우 복잡」, 『동아일보』, 1923.6.15.  
 「꽃 같은 몸이 생명을 끊기까지」, 『동아일보』, 1923.6.16.  
 「강명화의 자살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3.7.8.  
 「名妓의 哀話가 朝鮮劇場에 公演, 죽은 강명화의 일대기를 각색」, 『매일신보』, 1923.7.26.  
 「부호의 독자 장병천의 자살」, 『동아일보』, 1923.10.30.  
 「許可하고 制止 강명화의 사실극을」, 『시대일보』, 1924.6.3.  
 「張吉相에게 脅迫狀돈 안주면 장병천과 강명화사실을 연극」, 『시대일보』, 1924.12.14.  
 「낭객의 신년만필」, 『동아일보』, 1925.1.2.  
 「미인박명애사 - 사랑은 길고 인생은 짧다든 강명화」, 『삼천리』, 1935.8
- 104) 이해조, 『강명화 실기』, 회동서관, 1924.  
 이해조, 『강명화 실기』하(下), 회동서관, 1925.  
 최찬식 『강명화전』, 박문서관, 1925, 연세대 도서관 소장.  
 고유상, 『(여의귀) 강명화전』, 회동서관, 192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박철훈, 『절세미인 강명화의 설음』, 영창서관, 1928, 서울대 고문헌 자료실 소장.  
 강의영 저작 겸 발행, 『절세미인 강명화전』, 영창서관, 193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강명화의 애사』, 세창서관, 1952, 이대 도서관 소장.  
 김인성, 강준형 저작 겸 발행, 『미인의 정사』, 1954, 발행소 불명.  
 『강명화의 죽음』, 향민사, 1972, 연세대 도서관 소장.
- 105) 「비련의 곡」, 하야카와 고슈 감독, 김조성 문영옥 출연, 동아문화협회, 1924.  
 「강명화」, 윤석주 각색, 강대진 감독, 윤정희 신성일 출연, 1967.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인 10만여 관객을 모았으며 가수 이미자는 영화 주제가로 ‘강명화’

인들은 강명화 정사사건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명화실기』 상  
(회동서관, 1924)



『강명화실기』 하  
(회동서관, 1926)



『강명화전』  
박문서관,  
1925년 11월 15일



『여의 귀』 강명화전』  
회동서관,  
1927년 1월 25일

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다.

이해조, 김동우 편집, 『평양기생 강명화전』, 새움 출판사, 2015, 6-7면.

106) 「강명화」, 우영식 노래, 1927.

「강명화」, 조훈파 작사, 백영호 작곡, 이미자 노래, 1967.

107) 이상 목록은 김경애, 황지영, 김중순의 논문을 참조하여 확인 가능한 텍스트로 재구성한 것이다.

김경애, 「강명화 이야기의 소설적 변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황지영, 「인문학적 상상력과 서사전략: 근대 연애 담론의 양식적 변용과 정치적 재생산-강명화(康明花) 소재 텍스트 양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김중순, 「근대화의 담지자(擔持者) 기생(妓生) II: 대구 지역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한국학논집』 4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신소설 작가 이해조는 같은 해(1925년) 1월 18일에 회동서관에서 『강명화실기』하(下)를 발행하였으며 1927년 1월 25일에 동일한서관에서 『(여의 귀) 강명화전』을 발행하였다. 기존 논의에 의하면 『(여의 귀) 강명화전』은 『강명화실기』하(下)의 상편이다.<sup>108)</sup> 하지만 배정상은 『(여의 귀) 강명화전』은 『강명화실기』하(下)의 상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109)</sup> 왜냐하면 『한국의 딱지본』에는 회동서관에서 1924년에 발표한 『강명화실기』상(上)의 표지가 수록되어있기 때문이다. 『강명화실기』의 상편과 하편의 표지를 보면 모두다 가로형 문구 “女の 鬼”가 있고 중앙에 세로로 한자 “康明花實記”라고 쓰여 있다. 상·하편을 비교해본 결과 글자체도 거의 비슷하고 표지 설계도 흡사하다.

그러므로 우선 『강명화실기』는 상·하편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명화실기』 상(上)은 1924년에 발표하였고<sup>110)</sup> 『강명화실기』 하(下)는 1926년에 발표하였으므로 시기상으로 보아도 『강명화실기』하(下)의 상편은 『강명화실기』 상(上)이다. 즉 다시 말해, 『(여의 귀) 강명화전』과 『강명화실기』 하(下)는 서로 다른 두 작품이다. 흥미로운 것은 표지 상으로만 보았을 때 오히려 최찬식이 1925년 11월 15일에 발표한 『강명화전』과 이해조가 1927년 1월 15일에 발표한 『(여의 귀) 강명화전』이 더 흡사하다. 최찬식의 『강명화전』의 표지에는 “신소설 강명화전”이라는 문구가 있고 중심에는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다. 이해조의 『(여의 귀) 강명화전』은 “女の 鬼 康明花傳”이라고 기재되어있고 타원형 원판에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다. 이 여인은 강명화일 것이다. 두 작품의 표지 설계가 비슷한 것으로부터 어떠한 연관 관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의 여지가 있다.

강명화를 소재로 한 소설은 많지만 본고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최찬식의 『강명화전』, 이해조의 『(여의 귀) 강명화전』, 1928년 박철혼이 영창서관에서 발행한 『(절세미인) 강명화의 설음』이라는 작품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절세미인) 강명화전』은 최찬식의 『강명화전』과 비교해 볼 때 약간의 침삭은 있었지만 매우 흡사하다. 『강명화전』(1925)은 강명화와 장병천의 첫 만남으로 소설이 시작되어 죽음

108) 『(여의 귀) 강명화전』의 저작 겸 발행자는 회동서관의 사주인 고유상이지만 ‘머리의 말이 끝나고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에 저작자 이해관(李解觀)이라고 표기되었기에 이는 이해조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109) 배정상,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5, 420-426면.

110) 1924년 6월 21일, 『오늘일 래일일』, 『시대일보』 기사에서 여학생들이 『강명화실기』를 애독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강명화실기』 상(上)은 적어도 1924년 6월 21일 전에 발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 구조를 가졌지만, 『(절세미인) 강명화의 설음』은 연애에 대한 일반론으로 시작하여 강명화의 죽음 장면이 등장한 후 첫 만남의 상황을 회상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진다.<sup>111)</sup> 또한 『(절세미인) 강명화의 설음』과 1935년에 같은 서관에서 발표한 『절세미인 강명화』는 같은 작품인 것을 보아 후세에 최찬식의 영향도 일정하게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논의에서 이해조, 최찬식 등 신소설 대가들은 강명화 자살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최찬식의 『강명화전』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최찬식의 『강명화전』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찬식의 『강명화전』과 이해조의 『(여의 귀) 강명화전』은 강명화의 일대기를 쓴 것으로 대체로 비슷하다. 강명화는 평양부 남형제산골 강기덕의 딸로 태어났으며 본명은 강확실이다. 강기덕은 천성이 오활하여 집안을 돌보지 않아 아내인 윤씨가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확실이는 7살에 기방에 들어갔고 17살에 경성의 대정 권반으로 들어가 기명을 강명화로 하였다. 19살에 우연한 기회에 한강철교에서 장병천이라는 사람은 만나게 되는데 장병천은 부호의 자제이며 흰칠한 외모에 앞날이 창창한 젊음이였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장씨 집안의 반대가 특히 심했다. 이에 명화는 기생을 그만두고 머리도 자르고 장병천을 따라 일본으로 간다. 하지만 일본에 있던 유학생들은 강명화와 장병천을 죽이려고 한다. 강명화는 그들 앞에서 손가락을 절단하여 자신의 절개를 보여주었지만 이것도 잠시, 강명화가 요부이고 장병천은 부랑자라는 언론이 더욱더 심해져 일본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귀국한 후에도 장병천의 집안에서는 강명화를 집에 들이는 것을 견결히 반대하였고 계속 되는 언론의 압박, 경제적 궁핍으로 강명화는 자살을 선택한다. 얼마 후 장병천도 강명화를 따라 죽는다.

두 작품은 이러한 기존 사실에 충실하였지만 기술한 구조는 다르다. 최찬식의 『강명화전』의 서두는 어느 봄날 한강 철교(鐵橋) 위에서 청년 남녀가 만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인도교철난간을 의지하여 표연히 서서 있는 한 사람의 미인은 꽃 같은 용모와 구름 같은 의상이 당시 석교우에서 있던 팔선녀의 하나인 듯 오고가는 사람

111) 황지영, 앞의 글, 2011, 517면.

들의 깜짝 놀란 눈동자는 시선을 한데 모아 그 한사람에게 집중된다.

그 중에 어떤 청년 하나는 추파를 흘려보내 유심히 바라보는데 그 청년은 서색 양복에 『냉코투』를 벗어 들고 적대모 안경에 금시계 줄을 늘인 것이 누가 보던지 재산가의 아들인 듯 미묘한 용모에 따라서 마음도 매우 인상하여 보인다. 이때 그 미인의 시선도 역시 그 청년 남자와 마주쳤다. 그 두 청춘남녀의 안광이 우연히 한번 서로 접촉 된 것이 장차 어떠한 결과를 지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과연 그 두 사람의 이상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강명화전』 1-2면)

위의 인용문은 평양 기생 강명화와 부잣집 아들 장병천이 만나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강명화의 일대기를 순서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강명화와 장병천이 우연히 한강철교에서 만나는 대목으로 소설을 시작한다. 이는 최찬식의 다른 소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결과를 지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과연 그 두 사람의 이상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며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기법도 종종 등장한다.

이에 반해 이해조의 『(여의 귀) 강명화전』에서는 제목처럼 시작에 여귀(女鬼)가 등장한다. 머리말에서 23세쯤 된 여자인지, 여학생인지, 유부녀인지, 기생인지 알 수 없는 여귀가 떠돌아다니며 하소연을 시작한다고 운을 댄다. 이해조는 강명화에 대한 사실을 공명정대하게 쓸 것이기에 잘못을 한 사람은 빨리 회개하기를 바란다 고 한다. 따라서 원한을 품고 죽은 강명화를 여귀로 설정하고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구조를 취하였다. 소설의 전반 내용을 보았을 때 이해조는 강명화의 굳은 절개를 칭찬하고 원한을 호소하는 것을 통하여 독자를 계몽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최찬식은 어떠한 창작 의도를 가지고 강명화라는 기생을 각색하였을까?

1920년대는 처첩제도가 폐지되고 일부일처를 내세우고 있는 시대였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조혼하였다가 다른 사람과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강명화와 장병천도 그러하다. 강명화의 어머니 윤씨는 명화가 어차피 신분제도 때문에 고생할 것이니 차라리 기생이 되어 돈 많은 남편의 첩으로 출가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나이에 기생이 된 명화는 열심히 일하여 자신이 아닌 부모를 위해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장병천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된 후로 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경제적인 면은 물론 머리를 자르고 손가락을 절단하며 심지어 자결까지 한다. 장병천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부모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장병천을 만난 뒤로 그녀는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고

자신의 주체성을 찾게 되었다.

나약하고 무기력한 장병천은 명화가 죽은 4개월 후에 역시 음독자살을 선택하였다. 강명화와 장병천은 부모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부모세대와의 대립에서는 패하였지만 그 이야기는 후세에 오래오래 유전되고 애화로 칭송되었다. 최찬식은 장병천의 자살에 대해 명화에 대한 진정(眞情)이라고 하며 두 사람의 사랑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렇듯 기생에 대한 최찬식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강명화전』이 후에도 지속되었다. 1918년에 쓴 기사 「박희도선생을 방문하고 유상옥 소녀의 소식을 문하여」에서 최찬식은 “자는 소성(素性)이 다정다한하여 항상 여자의 박명한자만큼 탄식하고 종종 소설 기타의 문자로서 차 세상(此世上) 인정을 감화케함을 노력함이 불소하거니와 자래로 여자는 박명이 다한사-예증(多恨事-例症)이라”<sup>112)</sup>라고 언급하였다. 이 기사는 당시 9월 19일 매일신보의 「월하에 대읍(大泣)하는 박명의 二미인」<sup>113)</sup>라는 기사를 본 것을 기반으로 쓴 것이다. 유상옥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으며, 유상옥의 효성에 감동하여 많은 사람이 동정하여 돈을 모아 구조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14)</sup> 위의 기사와 연결하여 보았을 때 최찬식은 실존 인물들의 사기(事記)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강명화전』 이후 발표한 소설 『자작부인』<sup>115)</sup>에서도 요릿집 하녀가 부잣집

112) 최찬식, 「유상옥소녀의 소식」, 『신문계』, 1918.11., 57면.

113) 작부 유상옥(16)과 기생 문응순(18)은 원래 같은 학교 친구였는데 문응순 집에 가세가 기울여지면서 기생으로 되었고 유상옥도 가난한데다가 어머니의 초종을 치를 돈이 없어 150원에 몸을 팔았다. 공익사업가, 자선가인 박희도는 이를 동정하여 돈을 갚아준다. 박희도는 강연을 하면서 못사람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공익단체를 만들어 유상옥을 구조해줬다.

「월하에 大泣하는 박명의 二미인」, 『매일신보』, 1918.9.19.

114) 본보에 루차 기재된 동정의 눈물로 구제된 미인 유상옥의 사실은 일반이 아는바와 그 후 경성 수창동 기독교 신사 김운호씨는 상옥의 출중한 효성과 보호회 여러 회원의 열심히 구제한데 크게 동정하여서 금이백이십원을 보호회에 기부하여서 장래 상옥에 신상의 대한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이를 기부하였다더라

「貳百貳拾圓을 柳相玉에게, 본사의 기사를 보고」, 매일신보, 1918.10.9.

115) 『자작부인』의 주인공 신영자(18세)는 요릿집 금송정집의 사환이다. 영자는 본래 문벌이 조출한 신참봉의 무남독녀의 딸로 부친이 일찍 돌아가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그러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겨우 보통학교를 졸업하였지만 강명화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금송정에서 사환을 하였다. 요릿집에 드나드는 자작(子爵)의 아들 이시영이란 청년과 사랑을 하게 되어 몸과 마음을 바쳤지만 그 후로 이시영은 다시 오지 않게 되자 영자는 정조를 잃고 이시영도 잃게 된다. 이시영의 아버지는 이시영이 부랑자로 요릿집에 드

아들과 사랑하여 자작부인이 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는 마치 강명화와 장병천을 염두에 두고 그린 소설이라는 느낌을 준다. 위의 기사로 보았을 때 최찬식은 실존 인물에 관심이 많았고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소설을 창작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최찬식은 『강명화전』을 발표한 직후 『이순신실기』를 박문서관에 발표한다. 『이순신실기』는 이순신의 탄생부터 전사하게 되는 순간까지의 이순신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역사인물 이순신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는 경우는 시대를 불문하고 많았다. 예컨대, 신채호의 「이순신전」(『대한매일신보』, 1908.5.2.~8.18.) 박은식의 『이순신전』(삼일인서관, 1923) 이광수의 「이순신」, (『동아일보』, 1931.7.16.~1932.4.3.) 박태원의 『역사소설 이순신장군』(아협, 1948) 등이 있다. 이러한 소설의 소재는 주로 『이충무공전서』의 「행록」, 「행장」과 『난중일기』에서 취하고 있다.<sup>116)</sup> 똑같은 역사적 인물로 전기를 쓴다고 하여도 작가마다 또는 시대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다.

최찬식의 『이순신실기』 서언에서는 한중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위인은 이순신과 제갈량이라고 한다. 제갈량은 유비가 삼고초려(三顧草廬)하여 어렵게 초빙하였으며 제갈량에게 군사대권을 주어 백만 대군을 지휘한 인물이다. 반면, 이순신은 충성을 다하였지만 국가가 가난하고 적세가 드세며 관리들 사이의 시기 질투, 권력 다툼이 심하여 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웠다. 최찬식은 이러한 이순신의 처지를 애석하게 여겼던 것이다. 만약 제갈량과 이순신이 서로 바뀌어서 살았다면 제갈량은 이순신만큼 했겠느냐는 물음을 제기하며 이순신의 전기를 기술하여 그의 위대한 공훈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신채호의 『이순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신채호는 이순신과 영국 수군 제독 넬슨과 비교하면서 이순신은 넬슨에 비해 더 열악한 조건에서 승전을 이루었다고 이순신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순신실기』는 이순신의 생애를 시간 순서로 서술하였으며 수차례 해전을 중요히 다루며 이순신의 지략으로 적을 전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채호의 「이순신전」과 비슷하지만 신채호는 회장체로 구성되었다. 최찬식의 작품은 군담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자세한 편이어서 소설적 흥미를 더해주고 있

---

나든다는 풍문을 듣고 이시영을 감금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제결혼을 시켜 신혼여행 겸 유학으로 미국에 보낸다. 이렇게 신영자와 이시영은 헤어지게 되었고 13년 만에 재결합하여 자작부인이 된다.

116) 장경남, 「이순신의 소설적 형상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35, 민족문화사학회, 2007, 339-352면.

다.117) 최찬식은 이순신처럼 외세의 침입에 항거하는 영웅을 대상으로 그의 전기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한 것이다.

『동서위인소년시대』는 연대적 순서로 전반부는 동양 위인을 소개하고 후반부는 서양 위인을 소개한 번역위인전이다. 1920년대에 출판한 번역위인전이 가장 많을 때이다. 1900~1909년까지 애국·계몽적 인물전기가 유행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번역 전기물은 1910년 이전과 1920년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1910년대 이전에는 주로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구국의 영웅을 위주로 발행하였고, 1920년대는 사상, 예술, 종교, 발명, 실업, 과학, 정치, 군인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을 위주로 발행하였다.118) 최찬식의 『동서위인소년시대』에서 동양 위인은 1910년 이전의 번역 전기물의 특징을 수용했고 서양 위인은 1910년 이후 1920년을 대표하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서위인소년시대』는 1910년, 1920년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종합 위인전이라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최찬식은 ‘일생의計는 소년시대에 있다.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려면 소년시대에 먼저 그 인격을 수양(修養)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소년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서위인소년시대』는 동양에서 나라가 위급할 때 앞장선 구국장군들을 위주로 썼다면 서양은 나라를 통일시키는 대통령부터, 과학자, 모험가, 흑인 노예해방, 무산계급 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인을 소개했다.

위인이름	소제목	위인이름	소제목
項羽將軍 (楚)	幼時부터力拔山氣蓋世 萬人을敵할學問이所願	뉴턴博士 (英國)	最初에는一個懈怠漢 同窓生의蹶蹴에大覺醒
張良先生 (西漢)	從容簡精한一個美男子 博浪椎聲이天下를驚動	푸랭크린氏 (米國)	最初에는活版所의小使 그後에는合衆國의恩人
諸葛亮丞相 (後漢)	梁甫吟으로時局을悲嘆 荊益地圖를壁上에掛置	와싱턴大統領 (米國)	櫻樹를砍倒한事實을自白 荒野의冒險測量을成功
乙支文德將軍 (高句麗)	貧寒한에서誕生 石多山窟中에서修養	넬손提都 (英國)	幼時로부터恐懼는不知 氷世界에서白熊과猛戰

117) 위의 글, 2007, 353면.

118) 김성연, 『영웅에서 위인으로: 번역 위인전기 전집의 기원』, 소명출판사, 2013, 73면.

蓋蘇文將軍 (高句麗)	富貴가足한名門에출생 五刀를佩하고武藝鍊習	나폴레옹將軍 (佛國)	戰爭의胎敎를받은勇兒 幼少로부터軍人이所願
金庾信將軍 (新羅)	龍華香徒의一個花郎兒 三國統一이少時의大志	스지븐손氏 (英國)	石炭坑夫人一個의少年 幼時로부터機械를嗜好
元曉祖師 (新羅)	佛地村栗樹下에서誕生 教師도없이學問을獨習	가리발디大將 (伊太利)	蠡斯를泣하는一掬淚는 全國民을愛恤하는熱淚
裴度相公 (唐)	四方에漂泊하는困窮餓 寶帶를얻어本主에返還	比斯麥首相 (獨逸)	大學生時代는粗暴生活 史學과法學을專門研究
崔孤雲先生 (新羅)	12歲에는唐京에留學 18歲에는金榜에顯明	크리유클將軍 (南阿)	競走中에大獅子와格鬪 第一의月桂冠을奪得
李忠武公 (朝鮮)	幼時로부터戰鬪를嗜好 莊嚴한威信에衆兒服從	링컨大統領 (米國)	車後를推하는貧民의子 飯보다嗜好讀書癖
李恒福相公 (朝鮮)	幼時로부터才氣가卓越 奇絶한談諧는人을驚倒	袁世凱大統領 (中國)	讀書를不好하는放蕩兒 義俠에從事하는快男兒
豐臣秀吉公 (日本)	四方에漂泊하는猿面兒 戰爭戲를嗜好함이天性	부커 T. 워싱턴教授 (黑人)	小奴隸로부터勞動者 언제든지向學心이熱烈
德川家康公 (日本)	敵國에人質이된小公子 八官鳥를自由界에放送	레닌氏 (露國)	孤獨을조아하는詩家로 學生時代부터自由思想
林慶業將軍 (朝鮮)	兒戲中에建設한營寨 官行이敢히毀撤치못해		

〈표 1〉

이 저서에서는 동양 위인과 서양 위인의 소년시대는 다소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양 위인은 어려서부터 천재적 재질을 발휘한다. 예컨대, 이순신에게는 어려서부터 여러 사람을 제압하는 위엄이 있었다. 이에 비해 서양 위인의 어린 시절은 가난하고 불우하였으며 평범한 인물이었지만 뜻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여 성공한다. 스지븐손은 광부의 아들로 생활이 가난했으며 그 또한 광부 일을 하게 되었으나 호기심이 많아 세상 만물을 범연히 생각하지 않고 그 원리를 연구했다. 이로 알 수 있듯이 동양 위인은 선천적인 기질이 장성하여 큰 인물이 될 것을 암시하는 한편 서양 위인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선천적인 부족을 얼마든지 역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사람의 천질(天質)보다도 소

년시대의 수양이 더 중요하다는 서론의 문제의식과 조응되는 것이다.

최찬식은 위인 중에 과학자, 발명가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는 그가 많은 과학 기사를 쓴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찬식은 독자에게 과학지식을 보급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경성유람기」는 지나친 과학지식 정보를 도식화하여 빛을 발하지 못했다. 그는 끊임없는 시도는 1926년 마지막 작품인 『용정촌』에서도 나타난다. 『추월색』에서 영창이는 문학박사라는 순수한 문학을 하였다면 1926년 『용정촌』<sup>119)</sup>에

119) 춘자는 완고한 양반인 이승지의 장녀이다. 이승지는 보수적인 사람이라 여자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큰 금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딸 춘자가 조르고 졸라 11살 되던 해에 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그 후 혼자 일본 동경에 가서 고학을 한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순수문학을 많이 배우는 당시 많은 여학생과 달리 춘자는 생산적 학문을 연구하고자 마음을 먹고 고등공업전기과에 입학한다. 동경에서 같은 전공인 장봉익의 도움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귀국 후 장봉익은 전재산을 들여 경성 황금정에 큰 기계공장 하나를 설치하고 그 공장 안에 연구실을 부속하여 놓고 춘자와 같이 자전동력기를 연구한다. 과학실험을 하다가 잠깐 휴식할 때 춘자와 장봉익(월파)은 대화를 한다. 춘자는 장봉익더러 과학발명담을 해 달라고 부탁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큐리부인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다. 장봉익의 소개에 의하면 큐리부인은 자신과 같은 이상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늦도록 시집가지 않았으며 마침내 이상적인 연애를 하여 결혼을 한다. 큐리 내외는 같이 실험을 하여 화학 원소를 발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연애는 두 사람의 같은 목표를 갖고 과학발명을 하다는 의미이다. 인물들의 대화 속에 위인성공담을 녹여 쓴 것을 통하여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과학, 위인 이야기를 써낸 것이다. 또한 큐리부부는 같이 실험을 하여 화학원소를 발견하였다는 것을 통하여 춘자와 장봉익이 천연전류저장기를 공동 발명할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재계(財界)공황이 일어나며 십여 만 자본을 모두 소비해버리고 파산한다. 장봉익의 실패로 춘자의 집에서는 그를 다른 사람과 강제 결혼을 시킨다. 사업, 연애 모두 실패한 장봉익은 이별 편지 한 장 남기고 만주로 떠났다. 강제결혼을 당한 춘자도 역시 결혼 전날 만주로 떠난다.

(ㄱ)천연전류저장기는 그 기계가 특별히 교묘하고 그 능률이 비상히 유력하여 공중에 걸어놓은 『안테나』로써 몇천마력의 공중전류를 축전지에 저장하였다가 『모다』를 운전하여 동력에 사용하는 것이니 이 축전지는 지면에 구르는 차와 물우에 뜨는 배며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등을 무엇이던지 운전할 수 있고 모든 동력기계를 사용함에 지극히 간단하고 편리한 신발명이라. 이 기계가 발명됨으로부터 뇌성벽력을 하는 날 번쩍번쩍하는 전광을 따라 공중에서 소모 되어버리던 억만 마력의 번개불이 우리의 동력기계를 돌리게 되어 무한한 문명을 증진하는 원동력이 되게 된 것이다. (88면)

(ㄴ)그 중 가장 유리한 발명품은 네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에릭슨』씨의 일광발동기요, 또 하나는 『무우소』씨의 감광발동기며, 또 하나는 (후인틸)씨의 감광발전기며 그 외 하나는 장봉익씨와 이춘자양의 공동 발명품인 천연전류저장기라. 이상 네가지 중에서 일광발동기는 광대한 지면을 점령하고 또 동력이 미약하며 감광발동기는 일광발동기와 거진 같은데 동력이 조금 강대한듯하나 완전한 실용품은 되지 못하고 감광발전기는 일광을

서 주인공은 실학인 전기기계공학과에 입학하여 발명품을 발명하는 진정한 과학을 숭상하는 경지에 이른다. 이광수의 『개척자』에서도 반복된 화학실험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최찬식의 『용정촌』에서는 조선인이 과학실험에 성공하고 노벨 상금까지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물론 다소 과장된 요소가 있지만 1926년의 기사<sup>120)</sup>를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공중의 전류를 사용하여 기계를 발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에서 최찬식은 허황한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소설을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소설 작가인 최찬식이 이러한 과학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며 당시 지식인으로서의 포부를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렇듯 최찬식은 흥미유발을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당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감을 느끼도록 하는 한편, 계몽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음을 드러낸다. 특히 그의 소설 창작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더 현실에 주안점을 두고 당시 독자들 개화시키려는 노력이 보인다. 최찬식이 여러 편의 전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은 1920년대에 번역 전기가 가장 많이 편찬되었으며 더욱이 1920년대 후반부터는 번역전기보다 조선위인전기가 더 많이 발간되었다<sup>121)</sup>는 것과 긴밀히 관계가 있다.

---

이용하는 기계중에는 능률이 가장 양호하되 그 역시 석탄의 세력을 압도할 수 없는 것이라 이상 세종류는 모두 낙선이 되고 장봉익과 이춘자의 공동발명품인 천연전류저장기가 당선된다. (88면)

인용문(ㄱ)은 천연전류저장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천연전류저장기는 공중에 떠있는 전류를 저장하여 모드를 통해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동차, 기선, 비행기에 모두 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이다. (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20년대부터 최찬식은 석탄을 동력으로 쓰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자원을 찾으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0) 『레닝크라드』 대학교수 로징박사는 금번에 공중과 맞지중 전기를 리용하여 강력의 전류를 일으키는 발동기장치에 성공했는데 제일회 시험에 매우 좋은 성적을 얻었다더라. (『空中電流로 發動機使用』, 『매일신보』, 1926.9.13.)

121) 김성연, 『영웅에서 위인으로: 번역 위인전기 전집의 기원』, 소명출판사, 2013, 72면-73면.

## 5. 결론

본고는 최찬식의 생애와 전반 문필활동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의 문학세계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최찬식의 생애와 문필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최찬식의 문학세계를 탐구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초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최찬식의 초기 문필활동에서 기자로 재직 중에 많은 기행문을 썼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한 기행문의 분석을 통하여 최찬식이 대량의 기행문을 쓰게 된 것은 물론 잡지사의 기획에 의해 쓴 것도 있겠지만 최찬식 본인이 여행을 좋아하여 썼던 것도 큰 이유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렇듯 여행을 통하여 기행문을 쓰면서 최찬식은 자신만의 공간 의식을 형성하였고, 그것을 소설 창작에 응용하였다. 따라서 최찬식의 소설은 장소이동을 통하여 반복되는 만남과 이별에 대하여 자주 쓰고 있다. 만남과 이별이라는 ‘이합(離合)’의 구조는 기타 신소설 작가들도 자주 활용하는 구조이지만 최찬식은 이런 이야기 속에 유독 ‘의리’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최찬식은 의도적으로 명승고적을 소설의 배경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 자산만의 가치관을 내세우고자 한 의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그는 의좋은 형제, 남매를 등장시켜 주인공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한다. 이러한 주인공들은 구습을 고수하는 부모세대와는 달리 의리를 강조한다. 이 밖에 최찬식은 소설 속에서 부모가 부재한 것으로 설정하거나 그들의 역할을 약화하는 대신 의좋은 형제라는 수평적인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부모세대의 부재는 중요한 작가의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식인 최찬식으로서 전(前) 세대에 대한 부정이다.

4장에서는 1920년대의 문필활동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최찬식 소설의 배경은 만주라는 해외공간까지 확대되는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와서는 만주가 주요한 무대가 되었고 그곳에 있는 실존 인물 및 환경을 사실적으로 부각하려고 노력했으며 실존 인물단체인 마적의 의협심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1910년대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사람과의 의리를 중요시하였다면, 1920년대는 마적이란 사회단체의 의협심을 중요시하고 있다. 최찬식은 마적을 부조리한 사회에 존재하는 정의로운 인물로 부각하는데 이는 조선에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외 무대를 자주 등장시키며 최찬식이 보여주고자 하는 가치관을 마적을 통

하여 내세운 것이다.

또한 최찬식은 역사 인물들의 전기를 주로 썼는데 이는 1920년대에 번역 위인전이 성행하였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과학자, 발명가에 관심을 가졌고 과학적 요소를 소설에 쓰려고 노력했다. 이로부터 최찬식은 단지 재미를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계몽적 의지가 담긴 글쓰기를 고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찬식은 『추월색』을 발표하던 1912년에 31세였고 1927년 즉 46세까지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였다. 전근대에서 근대로 진입한 과정을 몸소 체험한 작가로서 최찬식은 부단히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였다. 이처럼 최찬식 문학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은 신소설 작가로서의 최찬식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식민지 조선에서 살아갔던 지식인으로서의 최찬식을 이해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1) 작품

권영민, 김종욱, 배경열 편, 『한국신소설선집』 7,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최찬식, 『도화원』, 유일서관, 1916.8.30.

\_\_\_\_\_, 『능라도』, 유일서관, 1919.2.7.

\_\_\_\_\_, 『삼강문』, 덕흥서림, 1918.11.11.

\_\_\_\_\_, 『춘몽』, 박문서관, 1924.2.29.

\_\_\_\_\_, 『강명화전』, 박문서관, 1925.11.15.

\_\_\_\_\_, 『백련화』, 박문서관, 1926.5.10.

\_\_\_\_\_, 『자작부인』, 조선도서주식회사, 1926.11.30.

\_\_\_\_\_, 『용정춘』, 조선도서주식회사, 1926.11.30.

『한국 신소설 전집』, 을유문화사, 2011.

### (2) 신문, 잡지

『대한매일신보』, 『시대일보』, 『신문계』, 『반도시론』, 『황성신문』

## 2. 국내논저

### (1)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大韓帝國官員履歷書』, 1972.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사, 2014.

김성연, 『영웅에서 위인으로: 번역 위인전기 전집의 기원』, 소명출판사, 2013.

김종욱, 『한국 현대소설의 서사형식과 미학』, 역락, 2005.

\_\_\_\_\_, 『한국 현대문학과 경계의 상상력』, 역락, 2012.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대한적십자사, 『한국적십자운동100년: 1905~2005』, 대한적십자사, 2006.

- 박진영, 『번역과 변안의 시대』, 소명출판사, 2011.
- 방민호, 『전란으로 읽는 조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외 저, 글항아리, 2016.
- 배정상,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출판사, 2015.
- 손유경, 『프로문학의 감성구조』, 소명출판사, 2012.
- 유양선, 『한국 근현대 문학과 시대정신』, 박이정 출판사, 1996.
- 윤명구, 『개화기 소설의 이해』, 인하대학교 출판사, 1986.
- 이강훈, 『馬賊과 倭賊』, 人物研究所, 1990
- 이경훈, 『오빠의 탄생: 한국 근대문학의 풍속사』, 문학과지성사, 2003.
- 임규찬, 한진일 편, 『임화신문학사』, 한길사, 1993.
- 전광용, 김열규, 신동욱 편,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 전광용, 『한국 현대 소설사연구』, 민음사, 1984.
-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 崔瑗植, 『我東崔氏考』, 新明文化社, 1968.
- 최원식, 『한국근현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 \_\_\_\_\_,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사, 2002.
- 한기형, 『한국 근대 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사, 2005.

## (2) 학술논문

- 강현조, 「김교제 번역·변안소설의 원작 및 대본 연구」, 『현대소설연구』 48, 현대소설학회, 2011.
- \_\_\_\_\_, 「한국근대소설 형성 동인으로서의 번역·변안 —근대초기 번역·변안 소설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
- 고은지, 「『추월색』의 대중적 인기와 서사구조」, 『민족문학사연구』 30, 민족문학사학회, 2006.
- 곽상인, 「최찬식 작품에 나타난 근대적 장치와 그 한계 —『추월색』과 『안의성』을 중심으로」, 『전농어문연구』 15, 서울시立大學校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004.
- 곽승미, 「근대 계몽기 서사의 이국취향을 통해 본 문화의 재배치 과정」,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권보드래, 「경성유람기」, 『민족문학사연구』 16, 민족문학사학회, 2000.
- \_\_\_\_\_, 「1910년대 ‘신문(新文)’의 구상과 「경성유람기」」, 『서울학연구』 18,

-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2002.
- \_\_\_\_\_,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 『동악어문학』 54, 동악어문학회, 2010.
- 김순전, 「말광철장(末廣鐵腸)와 최찬식(崔瓚植)의 비교연구」, 『日語日文學研究』 15, 한국일어일문학회, 1989.
- \_\_\_\_\_, 「崔瓚植의 『雪中梅』의 受容樣態比較研究」, 『용봉인문논총』 22, 全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93.
- 김경애, 「강명화 이야기의 소설적 변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 김동식, 「신소설과 철도의 표상; 이인직과 이해조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학회, 2012.
- 김용구, 「최찬식 소설의 구조」, 『冠嶽語文研究』 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 김종욱, 「『소학령』의 정치적 읽기」, 『우리말글』 68, 우리말글학회, 2016.
- 김주리, 「1910년대 과학, 기술의 표상과 근대 소설 —식민지의 미친 과학자들」,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회, 2013.
- 김중순, 「근대화의 담지자(擔持者) 기생(妓生) II: 대구 지역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한국학논집』 4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 김현숙, 「20세기 초 한국서사문학의 두 가지 양식」, 『상허학보』 8, 상허학회, 2002.
- 金熙子, 「崔瓚植 小說에서의 家父長的 이데올로기」, 『論文集』 29, 건국대학교, 1989.
- 남석순, 「신소설의 대중화와 통속적 요인 연구」, 『한국문예창작』 2, 한국문예창작학회, 2003.
- 노연숙, 「1900년대 과학 담론과 과학 소설의 양상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학회, 2012.
- 문흥구, 「최찬식의 『추월색』 연구」, 『돈암어문학』 9, 돈암어문학회, 1997.
- 박강, 「1920년대 마적과 한인, 그리고 아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
- 박단, 「만주국의 아편정책」, 『중국학논총』 8,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994.
- 서연주, 「신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광기」, 『여성문학연구』 3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 서영순, 「최찬식 소설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 석사학위 논문, 1981.

- 서혜은, 「소설 속 叛奴딸의 烈行서사의 향유 방식과 그 의식」, 『우리말글』 57, 우리말글학회, 2013.
- 소영현, 「정열의 근대적 재배치 —최찬식의 『능라도』와 이광수의 『개척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 손홍철, 「의리론」, 『선비문화』 27, 남명학연구원, 2015.
- 신승희, 「최찬식 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국어국문 석사학위 논문, 1986.
- 신현규, 「『女의 鬼 康明花實記 下』(1925) 부록 「妓生의 小傳」 연구」, 『근대서지』 6, 근대서지학회, 2012.
- \_\_\_\_\_, 「기생 「康春紅小傳」 연구」, 『語文論集』 61, 중앙어문학회, 2015.
- 오세창, 「1910년대 만주한인의 반일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3.
- 우미영, 「‘조선(朝鮮) 일주(一週)’의 정치성과 식민(植民) 정보원(情報員)의 글쓰기」, 『語文研究』 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 이경림, 「‘연애의 시대’ 이전: 1910년대 신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표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1, 한국현대문학학회, 2017.
- 이경훈, 「자본의 순환과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학관계 —한국 근대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티: 식민지와 관광지 —만주라는 근대 극장」, 『SAI』 6, 국제한국학문화학회, 2009.
- 이상신, 「이인직, 최찬식 소설속의 여성인물 연구」, 『社會科學研究』 11, 長安專門大學 社會科學研究所, 2002.
- 이상익, 「한국의 의리사상에 대한 접근법」, 『한국 철학논집』 33, 한국철학사연구회, 2012.
- 이승원, 「최찬식의 『추월색』 고」, 『국어교육』 3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1.
- 이영순, 「최찬식 신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 석사학위 논문, 1977.
- 이정은, 「최찬식의 (해안) 연구 —(안의 성) 및 신과극 (사민동권교사회지)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18, 한민족어문학회, 1990.
- 이지훈, 「신소설에 나타난 법과 일상성의 의미 연구: 근대 주체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석사학위 논문, 2009.
- \_\_\_\_\_,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의 여행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박사학위논문, 2107.
- 이행미, 「한국 근대문학과 ‘가족법’적 현실 연구: 1910~1940년대 전반기 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박사학위 논문, 2017.
- 임선애, 「『추월색』과 한국적 근대의 이질성」, 『현대소설연구』 32, 한국현대소

- 설학회, 2006.
- 장노현, 「근대전환기 중국 매개 번역문학의 현황과 양상」, 『국제어문』 56, 국제어문학회, 2012.
- 전광용, 「신소설과 최찬식」, 『국어국문학』 22, 국어국문학, 1960.
- \_\_\_\_\_, 「新小説研究」,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박사학위 논문, 1973.
- 정숙희, 「新小説作家 崔瓚植 研究」, 경희대학교 국어국문 석사학위 논문, 1974.
- 정준식, 「『삼강문』의 구성방식과 작가의식」, 『韓國文學論叢』 41, 한국문학회, 2005.
- 조경덕, 「최찬식 『능라도』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46, 국제어문학회, 2009.
- 조형래, 「두 “신문(新文)”, 과학 개념의 정착과 암면(暗面)으로의 소행(溯行) — 신문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1, 민족문학사학회, 2013.
- 천춘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박사학위 논문, 2014.
- 최기숙, 「출구 없는 여성, 여성적 시간의 식민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 최원식, 「1910년대 친일문학의 근대성」, 『아시아문화』 1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 \_\_\_\_\_, 「1910년대 친일문학과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14, 민족문학사학회, 1999.
- 최진옥, 「신소설에 나타난 가족 살해 모티프와 가족주의 고찰」, 『한국현대문학』 2, 한국현대문학학회, 2013.
- \_\_\_\_\_, 「신소설에 나타난 법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최혜실, 「개화기 근대정신과 자유연애 결혼 —『혈의 누』와 『추월색』을 중심으로」, 『현대이론연구』 10,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 하동호, 「개화기 소설 연구: 서지 중심으로 본 개화기 소설」, 단국대학교 국어국문 석사학위 논문, 1972.
- \_\_\_\_\_, 「해동초인소고」, 『시문학』, 1975.
- 한기형, 「무단통치기 문화정책의 성격: 잡지 『신문계』를 통한 사례 분석」, 『민족문학사연구』 9, 민족문학사학회, 1996.
- \_\_\_\_\_, 「1910년대 최찬식의 행적과 친일논리 —신자료 <괘상의 몽> 소개와 관련하여」, 『현대소설연구』 1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 홍순애, 「법률이야기의 정치성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최찬식 신소설을 중심

으로」, 『시학과 언어학』 28, 시학과언어학회, 2014.

황지영, 「근대 연애 담론의 양식적 변용과 정치적 재생산 —강명화(康明花) 소재 텍스트 양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6, 한국현대문예 비평학회, 2011.

### 3. 국외 논저

楊善玲, 「郭松齡反奉起因及失敗結局評析」,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4.

張麗珠, 『清代的義理學轉型』, 里仁書局, 2006.

高志剛, 「民國時期土匪群體透析」,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劉永文, 『晚清小說目録』, 上海古籍出版社, 2008.

李延哲, 高洋, 「近代東北土匪的嬗變」, 『赤峰學院學報』 31, 漢文哲學社會科學版, 2010.

魏連棟, 「清末至民國中期東北土匪研究」, 哈爾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미조구치 유조; 마루야마 마쓰유키; 이케다 도모히사 역음, 김석근; 김용천; 박규태 옮김, 『中國思想文化事典』, 책과함께, 2011.

付建舟, 『清末民初小說版本經眼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3.

楊雪, 「1925年郭松齡事變与日本的援張政策再抉擇」,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鄭方曉, 「清末民初商務版《說部叢書》研究」, 厦門大學博士學位論文, 2013.

賴靜, 「商務印書館与清末民初小說」,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4.

曹保明 지음, 이종주 옮김, 『마적(土匪)』, 민속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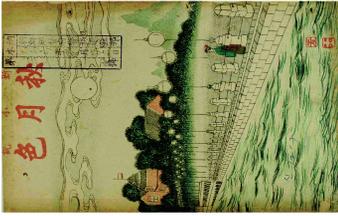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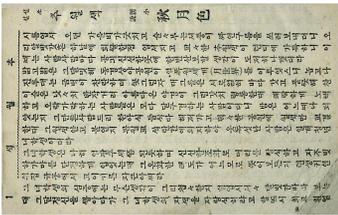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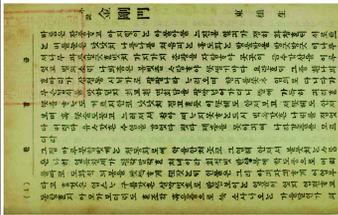
潘少瑜, 「近代翻譯家庭小說中女性社會身份的解離與重構」, 『跨文化流動的弔詭—晚清到民國』, 台北: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出版, 2016.

### 4. 기타자료

독립유공자(공훈록), 국가보훈처, 한창해, 2018년 8월 10일 최종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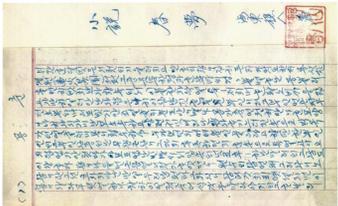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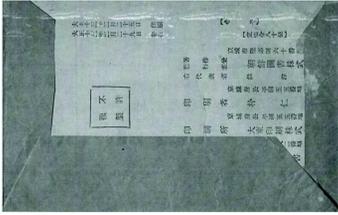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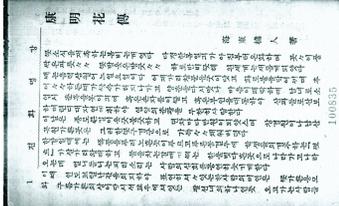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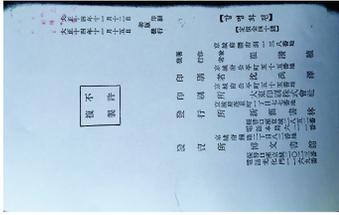
[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view.asp?ID=13774](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view.asp?ID=13774)

〈부록1〉 최찬식 작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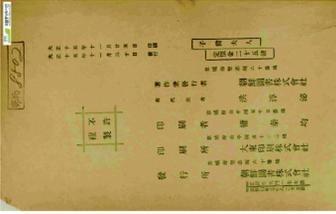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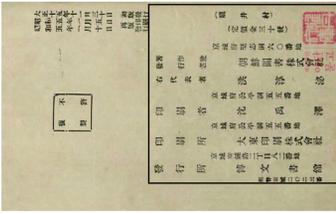
제목	발행연도	발행처	표지	저자명	판권지	비고
1 추월색(秋月色)	1912.3.13.	회동서관		추월색 秋月色		
2 해안(海岸)	1914.1.15.~ 1914.11.15.	우리의 가정				
3 백장홍(百丈紅)	1914.6.~ 1914.12.	신문계				해동초인
4 금강문(金剛門)	1914.8.19.	동미서서		金剛門		동초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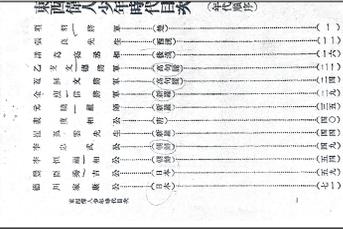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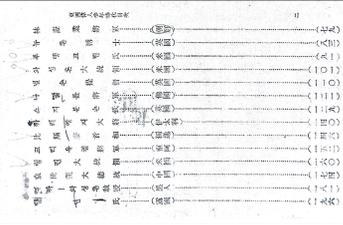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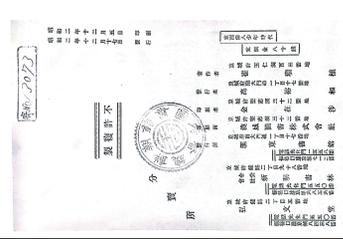
제 목	발행연도	발행처	표지	저자명	판권지	비고
5 안의 성(雁之聲)	1914.9.30.	박문서관		<p>안의성(雁之聲)은... (중략) ...의 정서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집이다. 안의성(雁之聲)은...</p>	<p>안의성(雁之聲)은... (중략) ...의 정서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집이다. 안의성(雁之聲)은...</p>	해동초인
6 도화원(桃花園)	1916.8.30.	유일서관		<p>도화원(桃花園)은... (중략) ...의 정서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집이다. 도화원(桃花園)은...</p>	<p>도화원(桃花園)은... (중략) ...의 정서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집이다. 도화원(桃花園)은...</p>	해동초인 지
7 입지소설:기상의 꿈 (立志小説:機上의夢)	1917.1~3.	신문계		<p>입지소설(立志小説)은... (중략) ...의 정서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집이다. 입지소설(立志小説)은...</p>		
8 종소리	1917.5.	반도시론				해동초인

제목	발행연도	발행처	표지	저자명	판권지	비고
삼강문(三剛門) 9 비련에 화: 흉안의 루 (悲戀哀話·紅顏의淚)	1918.11.11.	덕흥서림		<p>紅顏의淚 (紅顏의淚) 德興人 著</p> <p>三剛門 (三剛門) 德興人 著</p> <p>비련에 화 (悲戀哀話) 德興人 著</p>		해동초인 저
10 능라도 (綾羅島) 경중영 (鏡中影)	1919.2.7.	유일서관		<p>綾羅島 (綾羅島) 德興人 著</p> <p>鏡中影 (鏡中影) 德興人 著</p>		해동초인 취찬식 저
11 동정의 눈물	1921.11.	신민공론				해동초인

제목	발행연도	발행처	표지	저자명	판권지	비고
12 춘몽(春夢)	1924.2.29.	박문서관				해동초인 저
13 강명화전 (康明花傳)	1925.11.15.	박문서관				해동초인 저



제 목	발행연도	발행처	표지	저자명	판권지	비고
16 자각부인 (子爵夫人)	1926.11.30.	조선도서주식회사		자각부인 子爵夫人		해동초인 저
17 용강촌(龍井村)	1926.11.30.	조선도서주식회사		용강촌 龍井村		해동초인 저

	제목	발행연도	발행처	표지	저자명	판권지	비고
18	<p>동서위인소년시대 (東西偉人少年時代)</p>	<p>1927.12.17.</p>	<p>회동서관</p>				<p>취찬식</p>
19	<p>홍차기애화:출천지효 (洪次奇哀話:出天之孝)</p>	<p>1939.7.</p>	<p>월간야담</p>				<p>취찬식</p>

〈부록2〉 최찬식 기사 목록

신문계	기사 제목	저자	면수	기사유형
1913.4	金剛은 天然의 公園 1	海東山人	6-10면	기행문
1913.4	鑛物: 日用하는 石油는 吾人의 幸福	太華山人	18-23면	자연 과학문
1913.5	金剛은 天然의 公園 2,3,4,5	海東山人	10-14면	기행문
1913.6	金剛은 天然의 公園 6,7,8,9,10	海東山人	8-14면	기행문
1913.7	端陽天氣	碧鍾居士	6-7면	노래
1913.7	金剛은 天然의 公園 11,12,13,14,15,16	海東山人	8-20면	기행문
1913.8	金剛은 天然의 公園 17,18	海東山人	8-15면	기행문
1913.9	新作唱歌: 勤	海東樵人, 太華山人	74-75면	노래
1913.10	金剛은 天然의 公園 19,20,21,22,23	海東山人	8-16면	기행문
1913.10	理學參考: 天然瓦斯	海東樵人	29-33면	과학글
1913.11	關東八景의 奇勝	海東樵人	7-8면	기행문
1913.12	學術研究: 世界周遊記- 제1회 개성여행의 실기	海東樵人, 崔贊植	14-29면	기행문
1914.1	新春의 動物園	太華山人	23-26면	자연 과학문
1914.1	內地北海道千歲에 在한해 魚人工孵化場	碧鍾居士	27-30면	자연 과학문
1914.1	奇妙한 食蟲植物의 一種	海東樵人	26-29면	자연 과학문
1914.2	體操의 新話	太華山人	15-16면	자연 과학문
1914.2	白蟻는 可畏의 小動物	海東樵人	18-20면	자연 과학문
1914.3	惠澤을 交換하는 動植物	海東樵人, 太華山人	12-14면	자연 과학문
1914.3	酸素應用의 新發明	太華山人, 海東樵人	14-16면	자연 과학문
1914.4	新發見: 라지우무 金屬의 話	海東樵人, 崔贊植	32-35면	자연 과학문

신문계	기사 제목	저자	면수	기사유형
1914.4	活動寫眞의 學術上 必要	太華山人	39-41면	자연 과학문
1914.4	小說: 百丈紅	海東樵人	59-61면	소설 문예
1914.5	光과眼	太華山人	44-47면	자연 과학문
1914.5	小說: 百丈紅	海東樵人	55-57면	소설 문예
1914.6	新式 니도라電燈의 話	太華山人	20-24면	자연 과학문
1914.6	小說: 百丈紅	海東樵人	51-53면	소설 문예
1914.7	駝鳥의 話	太華山人	40-44면	자연 과학문
1914.7	小說: 百丈紅	海東樵人	51-53면	소설 문예
1914.8	酸素呼吸器	太華山人	15-17면	자연 과학문
1914.8	小說: 百丈紅	海東樵人	48-50면	소설 문예
1914.9	名士의 科學談	記者 崔瓚植	95-107면	자연 과학문
1914.10	無線電信의 將來	太華山人	52-54면	자연 과학문
1914.10	小說: 百丈紅	海東樵人	59-62면	소설 문예
1914.11	科學의 戰爭	崔瓚植	15-20면	자연 과학문
1914.11	小說: 百丈紅	海東樵人	50-51면	소설 문예
1914.12	小說: 百丈紅	海東樵人	52-54면	소설 문예
1915.1	余의 記者生活	海東樵人	58-63면	잡문
1915.1	歲의 新을 迎하는 吾人은 必히 吾人의 新을 求하라	碧鍾居士	8-10면	잡문
1915.1	短篇小說: 友誼	太華山人	97-110면	소설 문예
1915.2	有聲活動寫眞의 話	太華山人	22-23면	자연 과학문
1915.3	動植物의 共同生活	海東樵人	34-37면	자연 과학문
1915.3	電氣의 寫眞送達	太華山人	43-45면	자연 과학문
1915.4	泥炭의 利用	太華山人	33-36면	자연 과학문

신문계	기사 제목	저자	면수	기사유형
1915.5	農家副業: 稻田의 養鯉	海東樵人	10-12면	자연 과학문
1915.5	土耳其人の 清水 愛飲하는 奇風俗	碧鍾居士	40-42면	자연 과학문
1915.5	動物의 巢	太華山人	43-44면	자연 과학문
1915.7	米國加州의 不思議街	海東樵人	60-62면	잡문
1915.8	昌德宮拜觀記	崔贇植	33-36면	기행문
1915.8	海岡先生訪問記	海東樵人	55-60면	기행문
1915.9	共進會와 聯絡된 金剛山の 消息	海東樵人	92-96면	기행문
1915.9	共進會餘興의 古舞唱辭	太華山人	92-95면	노래
1915.10	朝鮮新聞社의 主催: 東洋美術展覽會一觀	太華山人	39-41면	기행문
1915.10	水族館觀覽記	海東樵人	72-75면	기행문
1915.10	家庭의 模範을 作할 家庭博	碧鍾居士	79-82면	잡문
1915.11	海獸類에 就하야	碧鍾居士	40-42면	자연 과학문
1915.12	和平堂藥房主「李應善」君!!	海東樵人 記者	42-49면	전기
1916.1	偉人 구리유개루의 少年時代	海東樵人 譯	23-27면	전기
1916.2	뉴톤의 少年時代	海東樵人 譯	33-38면	전기
1916.3	汽車 發明者 스티븐슨의 少年時代	碧鍾居士	21-29면	전기
1916.6	偉人 넬슨의 少年時代	碧鍾居士	21-29면	전기
1916.6	模範青年-손홍원 君	海東樵人 記	60-64면	전기
1916.7	宗教諸家の 新講話	海東樵人 記	12-18면	종교
1916.7	肥料의 三要素와 其 效用	太華山人	32-44면	자연 과학문
1916.7	梧桐栽培에 勸함	碧鍾居士	36-38면	자연 과학문
1916.8	世界の 絶勝 金剛山	海東樵人 記	24-26면	기행문
1916.8	動物質 肥料 話	太華山人	26-33면	자연 과학문

신문계	기사 제목	저자	면수	기사유형
1916.8	梧桐栽培에 關하여	碧鍾居士	37-39면	자연 과학문
1916.9	世界の 絶勝 金剛山	海東樵人 記	31-33면	기행문
1916.9	植物肥料의 話	太華山人	34-38면	자연 과학문
1916.10	世界絶勝: 金剛山の 一幅	海東樵人	23-25면	기행문
1916.10	鑛物質 肥料는 何者	碧鍾居士	40-43면	자연 과학문
1916.11	世界絶勝: 金剛山の 一幅	海東樵人	12-15면	기행문
1916.11	植物質 肥料는 何者	碧鍾居士	30-34면	자연 과학문
1917.1	自然育雜 及人工育雜	碧鍾居士	29-39면	자연 과학문
1917.1	世界絶勝: 金剛山の 一幅	海東樵人	60-62면	기행문
1917.1	間接肥料는 何者오	太華山人	72-73면	자연 과학문
1917.1	立志小説: 機上の 夢	東樵, 崔贖植	94-102면	소설 문예
1917.2	短篇小説: 京城遊覽記	碧鍾居士	15-58면	소설 문예
1917.2	短篇小説: 甕頭の 春歌	太華山人	53-57면	소설 문예
1917.2	立志小説: 機上の 夢	海東樵人	58-63면	소설 문예
1917.3	世界絶勝: 金剛山の 一幅	海東樵人	15-17면	기행문
1917.3	鷄의 醫	碧鍾居士	18-33면	자연 과학문
1917.3	立志小説: 機上の 夢	海東樵人	49-53면	소설 문예

반도시론	기사 제목	저자	면수	기사유형
1917.4	半島와 人物	太華山人	17-18면	잡문
1917.4	古今歌謠의 沿革: 歌謠	太華山人	54-66면	노래
1917.4	活動寫眞을 觀覽하는 趣味	海東樵人	95-98면	기사
1917.5	風紀肅清의 要點은 父子의 有親	崔贖植	25-27면	윤리
1917.5	단편소설: 종소리	海東樵人	76-85면	소설 문예
1917.7	支那의 風雲은 南北分立의 兆乎	海東樵人	22-24면	중국 시사
1917.8	怒濤淋漓的 支那政界	崔贖植	27-29면	중국 시사
1917.8	如繪如花의 秋金剛	海東樵人	39-41면	기행문
1917.10	開城人과 其生活	東樵生	81면	기행문
1917.11	金剛一峯	太華山人	16면	기행문
1917.11	大自然의 金剛	崔贖植	23-55면	기행문
1917.12	嶠南의 名勝과 古蹟	海東樵人	56-67면	기행문
1917.12	20日間 3千里 旅行	崔贖植	76-81면	기행문
1918.1	總督政治를 論함	崔贖植	7-10면	정치
1918.1	生活問題	東樵生	42-44면	교육
1918.1	20日間 3千里 旅行	崔贖植	62-66면	기행문
1918.2	生活問題	崔贖植	26-32면	교육
1918.2	浮浪者警告歌	海東樵人	59-62면	노래
1918.3	百濟 古都 夫餘의 八景	海東樵人	55-59면	기행문
1918.4	華城의 風景	東樵生	42-43면	기행문
1918.5	地方財産家여 共同事業을 興起하라	海東樵人	12-14면	교육
1918.6	青年을 警告함	崔贖植	13-16면	교육
1918.7	高慮古蹟과 其風景	海東樵人	33-36면	기행문

반도시론	기사 제목	저자	면수	기사유형
1918.7	朴淵觀暴記	崔贖植	70-73면	기행문
1918.8	自由의 嫁	崔贖植 記錄	76-80면	기사
1918.9	朝鮮의 資產家は 與國民에 無用物乎	崔贖植	6-9면	교육
1918.9	興天寺에 一夜	海東樵人	9면	기행문
1918.10	今日의 京城	海東樵人	43-48면	기행문
1918.11	朴熙道先生을 訪問하고 柳相玉小女の 消息을 聞함	海東樵人	57-60면	기사

# Abstract

## The Literary Study of Choi Chan-sik

Honglian J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the literary world of the Sinsoseol author named Choi Chan-sik who had not been investigated. Choi Chan-sik was popular with readers when “Chuwolsae” was published in 1912, after which he published lots of works such as “Geumgangmun”, “An-ui Seong”, “Neunglado”, “Chunmong”. He continued activities of creation, worked as a reporter in “Sinmungye” and “Bandosilon” till 1927. Choi Chan-sik lived in a turbulent period when modern and pre-modern generations crashed and things from the west imported. Therefore, Choi Chan-sik was an author who personally experienced the period of Sinsoseol’s rise and fall, as well as the transition and replacement of literary world.

Research of Choi Chan-sik evaluated his Japanophile and popularity so far. Choi Chan-sik was evaluated negatively because of his father’s experience of being the head of Ijinhoe. As for popularity, his works were undervalued as a retrograde step to the classic novel. Furthermore, Choi Chan-sik’s works lacked of comprehensive and overall research. However, Choi Chan-sik was definitely a pioneer of Sinsoseol, following Lee In-jik and Lee Hae-jo. To overcome the dearth of research of his works to date, the

study aimed to analyze Choi Chan-sik's literary world more comprehensively.

Choi Chan-sik's life and writing activities that had not been investigated were revealed in chapter 2 in order to restore his life. Also this chapter made a systematic work series including works that have been neglected and discovered recently.

Chapter 3 analyzed 1910s' novels and the travelogues which Choi Chan-sik wrote when he worked as a reporter in "Sinmungye" and "Bandosilon" to clarify the early literature's characteristics of Choi Chan-sik' works. As a reporter, Choi Chan-sik travelled to many scenic spots and historical sites and then wrote lots of travelogues. Lots of scenic spots and Geumsu Kangsan of Joseon were reproduced actively in novels of this stage. It was interesting that Choi Chan-sik showed his own values through such particular spaces.

Chapter 4 focused on analyzing novels and biographies that published in 1920s, where he set the overseas spot of Manchuria as the main stage and put positively up the Manchuria's "specialty" of mounted bandrits. Also based on reality he published some biographies because he was interested in the real people and biographies.

The study showed a new literary world of Choi Chan-sik. It will provide chances for re-evaluating Choi Chan-sik positively. Also It will be a cornerstone that enrich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Choi Chan-sik's works.

Keywords : Choi Chan-sik, press activities, Travelogue, Manchuria, mounted bandits,  
biography

*Student number* : 2016-25237